

생명·협동운동의 이론과 실천

모심과 살림

13^호

2019년 상반기

(사)모심과살림연구소는

생명의 세계관과 협동적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과 사회, 문명을 만들어가는 데 보탬이 되는 지혜를 탐구하고자 200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생명·협동운동에 대한 연구 조사와 세미나 및 포럼, 관련 연구자 및 단체와의 교류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모심과살림 13호 2019년 상반기

등록번호 서초, 사00065

발행인 황도근

기획자문 구현지 김동숙 박지은 오단이 홍덕화

기획 김이경 김현 박제선 임채도 정규호

편집 김현

디자인 디자인스튜디오 다다름 designstudio.dadarm@gmail.com

인쇄 세진인쇄

펴낸날 2018년 12월 13일

펴낸곳 (사)모심과살림연구소

서울 서초구 서운로 19 서초월드 3층

www.mosim.or.kr mosim@hansalim.or.kr 02-6931-3604

책값은 8천원입니다.

모심과 살림

13호

2019년 상반기

목차

모 심 의 눈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 황도근	4
기 획	농정의 전환과 농업의 미래	
	인터뷰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농정 - 김성훈 前 농림부 장관	17
	보이지 않는 농민, 사회적 위기에 노출된 농촌 ! 김정섭	28
	바뀌지 않는 한국 농업 관찰기 ! 김영규	39
	좌담1 '농'의 희망을 말하다 ! 박지은, 강태양, 김성만, 김영대, 최보란	49
	좌담2 '농'의 희망을 말하다 ! 배영태, 구장희, 이정선, 임대봉, 임홍순	69
특 집	살림운동의 오늘과 내일	
	조합원 655,751명의 구체적 일상에서 시작하는 한살림운동 ! 박제선	93
	한살림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 ! 구도완	108
	청년의 삶과 협동운동의 오늘과 내일 ! 김이경	120
	생협의 미래와 젊은 층 ! 권응	134
이 슈	북한의 유기농업 ! 콘라드 합플라이쉬	139
연구자의 시선	시진핑의 '신시대'와 향촌 '진흥' ! 김인경	150
기 고	떨어지는 비행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신승철	163
책	우리는 언제 지구를 느끼는가 ! 이문재	179
	생명의 사회경제 ! 류하	191
	가장자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 조완석	200
사 람	시골 사는 젊은 여자의 서사는 그다지 우울하지 않다 ! 열음	210
현장(단신)	사회적 금융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 ! 문지영	220
알 림	2018 한살림재단 '생명·협동연구 지원' 공모사업	223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황도근 모심과살림연구소 이사장 ndghwang@naver.com

2018년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내 주변에서 하던 일들이 모두 답답하게 느껴졌고 정체되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더 많은 것들이 새로이 생겨나고 있는데, 내 주변은 변화하기를 두려워하는 듯 놓아버리는 것을 아쉬워하는 듯 변화를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변해보자고, 무조건 변해보자고 말하기는 쉬워도 실제로 실천하려면 큰 고통이 따릅니다. 가까웠던 사람들과의 이해관계도 충돌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고통스러운 일도 생깁니다. 생명이란 관계와 관계에서 오는 소통의 감성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한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생성과 소멸의 흐름이다'라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강물은 흘러가야지 고여 있으면 썩는 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기에 힘들어도 때가 되면 변해야 합니다.

우선, ‘모심과살림연구소’가 먼저 변화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10년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한살림은 시대의 전환, 삶의 전환을 꿈꾸며 사회를 바꿔보려는 선배분들의 운동으로 시작한 일이어서, 시대정신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구소는 협동운동, 공동체운동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생명사상을 꾸준히 연구하고 정립해왔습니다. 그 덕분에 한살림이 가치를 중시하고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조직으로 신뢰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소비자 조합원들이 늘어나면서 삶과 조직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연구소가 현장과 함께해달라는 요구가 커졌고, 60만 조합원을 넘으면서 많은 곳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구는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논의 끝에 기존 분들이 현장으로 들어갔고 새로운 분들이 연구소 식구가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변화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연구소는 새로운 분들을 모셔서 한살림 조직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인력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분들과 시작한 첫 일이 ‘2018 전국한살림 조합원 의식조사’였습니다. 4-5년마다 한 번씩 해왔지만 이번은 특별히 정성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한살림의 실물경기가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비자의 의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논의와 토론 속에서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의식조사로 끝내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문항연구, 지역별 세대별 모집단 구성방법, 정책제언 등을 고려했으며 현장의 요구에 따라 추가조사도 실시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더욱이 무더운 여름부터 세 달 가까이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로 통계자료를 설명하고 지역 이사들과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로서로 만나고 고민하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 속에 한살림운동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한 실무자분들과 참여한 분들께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 과정에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한살림운동에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비록 30년의 세월 속에 적잖은 부분들이 관행화되고 습관화되어 많이 답답해졌지만, 한살림운동의 시대정신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과정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 실무자, 활동가들을 대상으로도 의식조사를 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생산자분들은 한살림운동의 시작이면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한살림운동이 시작된 이유도 농민들과 함께하기 위함이었습시다. 그래서 생산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는 내년에 꼭 할 예정입니다. 한살림의 성장과 더불어 실무자분들과 활동가분들 식구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큰 식구가 되어온 동안 그분들 사이에 노동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이 보입니다. 조직은 커지고 굳어지면서 함께 일하는 사무실에는 벽이 쌓여가듯 문제가 고여 온 느낌입니다. 이제 그분들의 문제들을 조심스럽게 드러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내부를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는 조사들을 계속해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한살림 모두가 바뀌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는 성장을 멈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살림도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성장률이 거의 20%를 상회하여 3년이면 두 배 이상의 성장을 거듭해왔으나, 몇 년 전부터는 성장률이 6-7%를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확실히 주춤하면서 1-2%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성장률은 빠르게 정체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고정비용인 임대료와 인건비의 상승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성장률이 정체되는 근본 원인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있습니다. 일본의 생협들이 어려워진 시기가 1994년부터라고 하는데, 그때가 65세 이상이 15%를 넘어서서 고령사회에 들어선 시기였습니다. 한국 역시 2018년 현재 고령화율이 15%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가 이미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령사회의 문제는 노인복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혼과 저출산, 1인가구의 급증, 실업률 확대, 부동산 편중, 복지연금의 부담, 인건비 상승, 청년실업, 지속적 경기침체 등 그동안 잠복해있던 사회 문제들이 경제성장이 멈추면서 한꺼번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막상 드러나면 지속적으로 썰물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모두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잘못 생각하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며 비난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급격한 성장 이후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은 짧은 판단으로 대처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문제를 봐야 합니다. 금세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두려워 말고 변화하는 세상에 문을 활짝 열고 무조건 변화해 나가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듯이 단기적으로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한살림은 무조건 변화해야 합니다.

요즘 한살림연합의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조직 개편이 한창입니다. 그에 대한 토론과 논란도 많았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한살림이 외부사업까지 해야 하느냐인데,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한살림은 30년인 한 세대가 지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커졌고 이미 새로운 사회적 요구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일단 조직이 변화하려는 노력에는 서로 힘을 보태야 합니다. 혹시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고치면 됩니다. 꼼짝하지 않고 버티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직 개편보다 먼저 꼭 바뀌었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 회의가 너무 많고 길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보면 협동조합이어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책임자가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조직문화가 낳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한 너무 많은 이들이 결정에 참여하려는 문제도 재고해봐야 합니다. 초창기에 규모가 작았을 때는 모든 일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70만 조합원에 생산자도 2천 가구가 넘고 실무자와 활동가도 천 명이 넘는 조직입니다. 회의와 논의도 중요하지만 직책에 맞게 책임지는 문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요즘 대학도 교육과 연구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매일 회의와 평가보고서를 쓰다가 망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없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조직일수록 회의와 논의는 더욱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생산자분들에게도 변화의 시기가 왔습니다.

30년 전 한살림이 태동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농민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가 한살림의 모토였으며 이번 의식조사에서도 이에 동의해 한살림에 가입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매장에서도 생산자분들이 함께하는 판매행사에 많은 소비자분들이 호응한다고 합니다. 생산자에 대한 한살림의 애정만큼은 참으로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생산자가 늘어나고 가공사업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면서 내부에서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 생산지에 강연을 가서 원로 생산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면 이런 호소를 하십니다. 더 이상 생산지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산자들의 나이가 많아지고 있는데 후속 젊은 생산자의 유입은 없는 문제, 생산자들 사이에서도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문제, 신규 생산자들 사이의 의식과 가치관의 차이, 가공사업의 투명성과 품질관리 등 여러 문제들이 쌓여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30년 전에는 도시의 소비자가 농촌의 생산자를 아끼고 보호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농촌이 시대의 아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도시가 시대의 아픔을 더 많이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도시 청년들은 대표적인 시대의 아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시는 빈부의 격차가 너무도 커지면서 돌봄의 대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장도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으로 운영의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몇몇 곳에서는 적자가 심한 매장을 철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에 따라 점점 어려워지는 매장 살림살이를 회복하는 데 소비자 조합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기에 한살림 식구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힘은 생산자분들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실태조사와 의식조사를 통해 새로운 물품과 조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연구소에서
도 생산자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예산을 절약해서 농업 전문 연구자
를 모시고 의식조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새로운 대안들을 마련하고
자 합니다.

그동안 한살림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
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커지면서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와
활동가의 역할과 노동의 문제들이 잘 정리되지 않은 듯합니다. 각 지
역 한살림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여지없이 이 문제가 나옵
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덮어두고만 있을 수
는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연구소에서 이분들을 대상으
로 하는 의식조사와 함께 한살림의 노동 문제와 활동 영역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모두
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우리만의 대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미래포럼을 다양하게 하고
싶습니다.

일본이 1994년 장기침체로 들어간 이후 20년 동안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분명한 원인은 부와 권력의 편중
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2차대전 직후인 1947-49년 사
이에 한꺼번에 태어난 단카이세대는 일본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고도성장 시기에 부와 권력을 모두 쥐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
면 이들이 국가 자산의 대략 70%를 소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
은 그런 부와 권력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청년들은 힘을 잃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

금 우리는 일본처럼 경기침체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청년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가 지닌 작은 부와 권력이라도 내어주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난 11월 말 연구소에서는 ‘청년의 삶과 협동운동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미래포럼을 열었습니다. 비록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에 국한된 논의였지만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니다. 대학생협의 의식조사와 청년유니온의 정책 방향에서 청년세대들이 추구하는 삶의 양식과 직업관이 확실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에 따른 스몰 라이프, 유연한 노동, 인권과 성평등에 관한 높은 감수성 등 그들만의 의식변화를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현재 10%가 넘는 청년실업을 때문에 예산을 늘리지만, 역설적으로 청년의 퇴사율은 급증하여 62.2%는 1년 2개월 만에 직장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 때문입니다. 청년연대은행과 청년주택협동조합을 추진해왔던 청년들의 이야기는 더욱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청년들이 주도하는 무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은 기존의 견고함을 유지한 채 청년들에게 단순히 참여하라고 할 뿐이어서, 아직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공간과 자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살림에서 활동하는 청년활동가의 목소리는 저의 귀를 활짝 열리게 했습니다. 거의 내부고발 같은 목소리에 시원한 사이다를 마신 느낌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연구소에서 더 많은 자리를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그들이 늘 호소할 수 있는 공간을 ‘모심과 살림’ 지면에도 열어놓을까 합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는 조직이 한살림이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전반적인 전환기(turning point)에 들어섰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더스트리(industry 4.0)’이라는 실체가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로 더 익숙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2차 기계혁명인 디지털혁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1차 기계혁명은 영국에서 시작하여 유럽, 미국, 일본을 관통하여 서구 열강들을 하드웨어적 공업사회의 주역으로 만들어놓은 산업혁명이었다면, 2차 기계혁명인 소프트웨어적 디지털혁명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하여 한국, 중국을 관통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산업과 경제, 기업과 국가, 교육과 문화 등 사회구조의 모두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10여 년 전 샌프란시스코 ‘맥월드 2007’에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지금처럼 세상을 뒤집어놓을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인 40억 명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기존의 산업을 모조리 바꿔버렸습니다. 노키아, 모토로라는 사라지고 소니, IBM 등 최고의 기업도 존재의 빛을 잃었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는 올해 광군제(중국 최대의 쇼핑 축제)에서 35조 원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구글은 창업 5년 만에, 페이스북은 6년 만에 10억 달러를 달성했고, 공유업체 에어비엔비, 우버 등은 호텔과 자동차 없이도 몇 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과 유통망은 모두 붕괴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기사를 보다가 ‘파괴적 혁신가(disruptor)’란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이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작년 한 해 미국의 소매점 9,000여 개가 문을 닫았고, 세계적인 장난감 대기업인 토이저러스가 70년 만에 파산하면서 아마존 때문에 파산한 27번째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마존은 광대한

미국을 완전히 장악하여 2일 이내 물품배송과 2시간 이내 식품배달로 매년 30-40%의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환의 시대에 놓여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전환의 시기에 더욱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안식처가 되어줄 공동체에 대한 요구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많은 학자들마저도 개인의 행복과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요즘 IT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블록체인, P2P, 커먼즈 운동, 기본소득이 이것에 해당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화폐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을 잇는 소통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움직임들입니다. 특히 중앙집중화를 막기 위해, 부의 편중을 개선하기 위해 젊은 IT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거대 정보권력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미국의 젊은 여성들은 페미니즘과 지역 풀뿌리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고 이번 미국 하원선거에서 ‘민주적 사회주의DSA’ 운동으로 2명이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구호가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즉 한살림과 같은 구조인 것입니다. 이제 생명운동은 세계적인 운동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IT 혁명으로 세상을 바꾸고 부와 권력을 독점한다고 해도 인간의 행복은 ‘좋은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산업혁명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바꿀 수는 있어도 본질적인 행복의 조건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시대에는 가치, 협동, 공유, 나눔, 감성, 생명, 자연, 생태, 이웃, 공동체 등이 새로운 화두가 될 것입니다. 200년 전 산업혁명이 한창이었던 영국에서 빈부 격차를 줄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찾고자 시작한 로버트 오언의 협동운동처럼, 앞으로 한국에서의 협동운동, 공동체운동, 생명운동, 사회적경제 등은 더욱 확장되고 깊어질 것입니다. IT 혁명이 가족공동체를 해체하

고 1인 개인사회를 확대할수록, 반대로 삶의 의지처가 되어줄 공동체운동은 점점 늘어갈 것입니다. 특히 청년과 여성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제 한살림은 먹거리를 넘어 돌봄과 나눔의 공동체로 확장해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한살림 식구들은 삶의 의지처로서 소통의 공간을 더욱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그동안의 내부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한살림은 새로운 소명인 안식처로서의 능력과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롭게 시작했으면 합니다.

끝으로,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버리고 버리고 또 버리면 그곳에 다 있네요.” 

모심과 싹림

기획   

농정의 전환과 농업의 미래

인터뷰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농정

— 김성훈 前 농림부 장관

보이지 않는 농민,

사회적 위기에 노출된 농촌

— 김정섭

바뀌지 않는 한국 농업 관찰기

— 김영규

좌담 1

‘농’의 희망을 말하다

— 박지은, 강태양, 김성만, 김영대, 최보란

좌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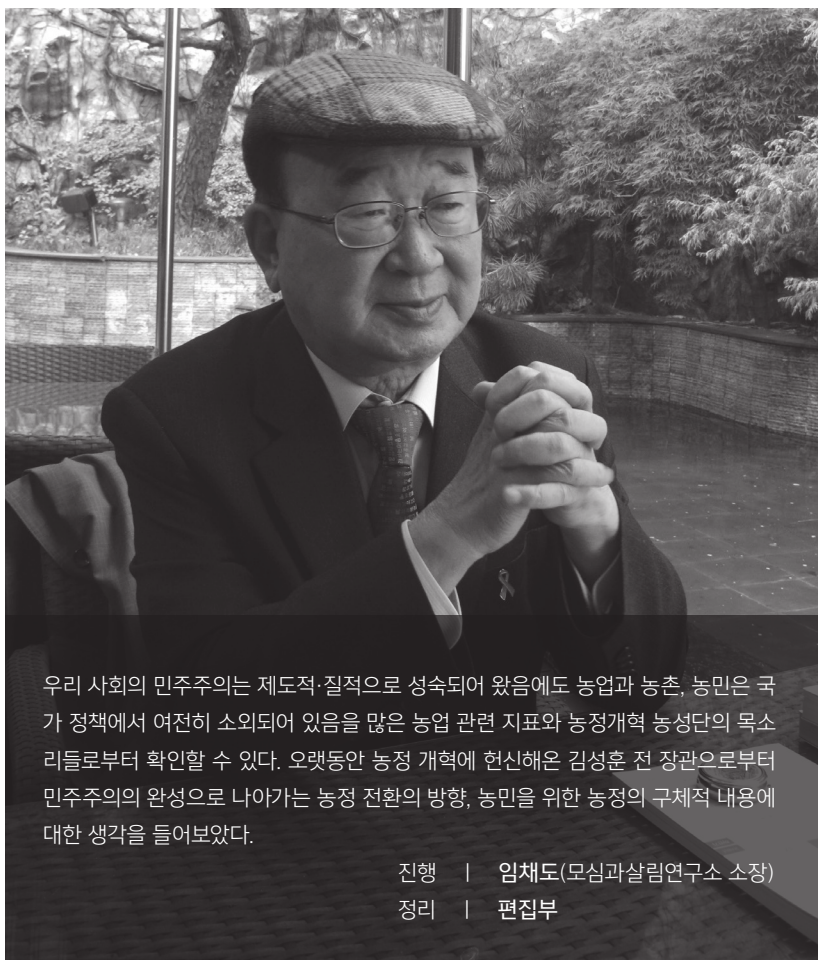
‘농’의 희망을 말하다

— 배영태, 구장희, 이정선, 임대봉, 임홍순

인터뷰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농정

김성훈 前 농림부 장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제도적·질적으로 성숙되어 왔음에도 농업과 농촌, 농민은 국가 정책에서 여전히 소외되어 있음을 많은 농업 관련 지표와 농정개혁 농성단의 목소리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오랫동안 농정 개혁에 헌신해온 김성훈 전 장관으로부터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농정 전환의 방향, 농민을 위한 농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진행 | 임채도(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

정리 | 편집부

밥이 민주주의다

임채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소위 촛불운동을 통해 탄생한 현 정부 역시 농업 정책에 있어서는 세심한 접근과 대안을 보여주고 있지 못할뿐더러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현장의 불만이 높습니다.

김성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농업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했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일구이언-口二言은 이부지자-父之字라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꼭 하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학교급식에서 GMO를 추방하겠다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식품안전표시제를 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죠. 막상 청와대 국민청원에 3일 만에 20만 명 넘게 참여하니, 통상마찰과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GMO표시제를 못한다고 해요. GMO가 들었다 안 들었다 표시하는 게 무슨 물가와 관계되고 통상마찰과 관계되나요?

또한 농정 문제를 사람 중심으로 본다면 중요한 게 농촌의 마을을 살리는 일입니다. 한 마을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20호는 살아야 해요. 그런데 지금 고령화, 부녀자화 단계를 지나 마을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전라남도에서만 40퍼센트의 마을이 사라질 지경이에요. 전남, 전북 지역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마을이 소멸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임채도 문재인 정부도 농업 정책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지금 농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농정에 대한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권을 막론하고 농정의 개혁과 전환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몬산토를 비롯

한 농자본들의 문제를 계속 지적해오셨는데 그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김성훈 농약회사나 농기계회사 같은 농업자본, 식품자본, 협회들의 로비가 막강하거든요. 농민단체의 반발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보도도 안 하고요. 언론은 되려 소위 ‘코포라토크라시 corporatocracy’라는 대기업자본주의의 주구 走狗 노릇을 하고 있어요.

임채도 정부는 드물게 농업 문제를 다룰 때마저 항상 시장의 경쟁력, 또 투자대비 결과의 효율성에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훈 그렇죠. 생산성, 투자, 이익성 같은 것만 이야기하지 사람, 생명에 대해서 경시하고 있어요. 최근에 발간한 저의 책 제목이 <농은 생명이고, 밥이 민주주의다>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가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하잖아요. 앞서도 GMO표시제 문제를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GMO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예요. 콩과 옥수수를 천 몇 백만 톤씩 들여오는데 그중에 식용이 240만 톤이니까 1인당 단순 계산하면 48킬로그램을 먹는 거예요. 게다가 가공된 제품으로 들어오는 게 120만 톤이거든요. 카놀라유 같은 형태로. 이걸 합하면 1인당 62킬로그램씩 먹는데, 미국이 1인당 68킬로그램이에요. 대동소이하죠.

임채도 그 책에서도 지적하셨듯이 국가가 국민들 모두가 먹는 ‘밥’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한 먹을거리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밥의 민주주의’라는 말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김성훈 먹거리에 대해서는 선택권도 주권도 없는 거죠, 알지도 못하고 먹으니까. 민주주의가 뭐예요? 이걸 사려면 사고, 안 사려면 안 사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 전제조건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캄캄한 세상이에요. 먹거리에서마저도 완전히 자유가 없는 거죠.

임채도 선생님께서는 농정의 방향 전환이 되지 않는 원인으로 통치권자와 관료들의 의지 부재, 그 뒤에 있는 거대 농업 자본들의 로비. 그리고 언론들이 농업 문제에 관한 기본철학도 없이 시장의 효율성만을 최고에 놓고 마구잡이 잣대를 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데요.

김성훈 제가 보기에 현 정부의 농정 역시 기본 철학이 없어요. 오래 전에 세종대왕이 ‘민위방본(民惟邦本, 식위민천(食爲民天))’이라고 했어요. 나라의 근본이 백성이고, 그 백성들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기는데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하다면 통치자로서 자격이 없죠. 지금 완전히 악의 서클, 나쁜 놈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순환체제가 되었어요. ‘민(民)’이 없고 ‘식(食)’도 없고, 다 돈만 관계되는 악의 순환체제죠. 모두가 돈에 자유롭지 못하고 기업과 광고에 자유롭지 못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임채도 말씀하신 대로 결국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출발점으로 선생님께서 GMO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복잡한 정책 이전에 국민이 알 수 있게 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이겠죠.

김성훈 국가권력이 왜 있는 겁니까.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죠. 돈 많은 놈이 시장을 지배하면 그걸 고치는 게 국가의 의무죠. 옛날부터 미국 같은 자본주의의 본국에서도 반트러스트법을 만들어서 독과점을 막도록 했거든요. 아주 강력한 법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기업에 휘둘러서 돈과 권력이, 악의 순환체제에서 나아가 악의 협의체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나아가는 사이에 실종된 것이 ‘밥’이고 ‘농’입니다. 돈과 관계 없으니까.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완전히 병 걸린 다음에 관심을 두게 되는 거죠.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일찍이 이 세상의 질병 중에 음식으로 고치지 못할 질병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어렸을 때를 떠올려보면 우리 할머니는 손자들이 12명이나 되니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아픈 아이들이 생겨요. 누구는 배가 아프니까 뭘 잘못 먹은 모양이다, 매실 엑기스 한 숟갈 입에 넣어줘라. 이렇게 먹거리를 가지고 몸을 돌봐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이윤과 돈벌이를 위해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막 쓰는 게 농업이 아닙니다. 본질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정부가 이끌어야 하고요. 김대중 정부 때 농림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유기농업원년을 선포하고 생협법을 제정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임채도 말씀하신 시기가 그간의 농정사에서 중요한 장면 또는 전환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 초에는 정부 개헌안이 발표되었는데, 여야 간 합의 불발로 무산되었습니다만, 농업 분야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농업의 다원적 기능, 공익적 가치 같은 수사들이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농민단체들이 환영 성명서를 내긴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런 지향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가가 관건이겠죠.

김성훈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로 한 것은 무척 고무적이었죠. 농민들이 스위스 등 북유럽 국가들처럼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공익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공익 요원이 되고, 그러면 더 떳떳하게 농가 기본소득제나 농자유전의 원칙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구요.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헌법에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 기능이 명시된다면 이를 바로잡을 근거가 되고 더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그렇게 농업의 공적 가치를 인정해서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고, 농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농자유전의 원칙을 두어 투기대상이 안 되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되어야 농업이 활기를 띠고 농민들도 어깨를 펴고 생명의 농업을 할 수 있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거죠.

농업 문제는 정치 문제

임채도 선생님께서는 농업이 단지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체 사회의 공익 문제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현실에서 농업 문제의 90퍼센트가 정치 문제고 10퍼센트가 농업 현실의 문제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농정의 개혁과 전환을 위해 그만큼 정치적 논의와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농정개혁 방안 가운데 특히 직불제 문제의 경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김성훈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로 통합해서 농가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봐요. 지금 정부에 불필요한 기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농촌진흥청이나 농어촌공사, 유통공사 등도 규모를 줄여야 하고요. 만일 농민 기본소득을 가구당 월 5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할 때 재원으로 약 6조 원이 필요한데, 그렇게 줄였을 경우 거뜬히 마련하고도 남아요. 농업이 쇠퇴하는 속에서도 농업 관계기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규모와 예산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죠. 농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현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정부 통계상으로는 4.5%예요. 개인적으로 추산하기로는 2%도 채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농업 관련 기관도 줄여야죠.

임채도 80년대 1000만 농민이라고 했던 그 시대의 기관, 부서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김성훈 내부적으로 더 늘리고 있어요. 스마트팜 밸리 같은 사업을 농업기관들이 주장하는 현실이니까요. 그건 농림부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농림부는 어디까지나 농민의 소득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주력해야죠.

임채도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부터 농업 분야에서도 4차산업혁명, 6차산업이 많이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김성훈 먹거리 안전 문제는 4차산업혁명이 오고 5차산업혁명이 와도 변함이 없어요. 생명을 유지시키는 농업의 기능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 기본을 충실히 해야지 농림부와 정부가 산업자본의 안내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마을에 농민이 없는데 스마트팜 밸리 만들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임채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관광농업이라고 해서 지역마다 인프라 시설과 건물을 많이 지었는데 지금 일부는 흉가처럼 변해 있는 상황입니다. 농가 인구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55%에 이를 정도로 고령화되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팜 밸리 같은 것이 조성되면 우리 농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김성훈 이미 흉가가 됐죠. 스마트팜의 경우도 전국의 농지들을 타 용도로 전환할 때 좋은 구실이 되는 거죠. 근사한 말로 포장하지만 결국 대기업들이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정부가 앞장서서 농촌의 몰락을 촉진시키는 형국입니다.

임채도 우리나라 농업 정책의 중요한 근간으로 농자유전 원칙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도 늘 주장해오셨지만 그 원칙이 헌법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차농의 비율을 보면 이미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성훈 농림 분야 공직자들이 냉철하게 내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성해보면 좋겠어요. 언론과 대기업, 자본의 권력에 흡입되어서 스스로 우리나라 생명농업의 미래를 짓밟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임채도 농업의 특수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농업 정책 전반에는 여전히 시장 경쟁력과 경제 논리가 강고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식인 쌀에 대해서는 직불제 외에 이렇다 할 정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훈 이제는 쌀 문제도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큰 틀에서 봐야 해요. 유기농으로 경작하기에 가장 쉬운 작물이 쌀이에요. 앞서 말했듯 스위스 같은 나라는 친환경 유기농의 조건하에서 농가소득의 50%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거든요. 도시민들도 생명을 살리는 농사, 먹거리를 살리는 대가라고 하면 동의하니까요. 농민들 과도 약속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 가치 때문에 지원한다는 것으로는 안 돼요. 친환경유기농업이기 때문에, 환경을 살리고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대가로 지원을 한다는 거죠.

임채도 그런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는 것, 그게 밥의 민주주의고, 또한 농업 문제는 정치 문제라는 말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농가기본소득 보장

김성훈 직불제를 도입한 게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인데, 그때도 가령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헥타르당 60만 원, 저농약 농가는 50만 원, 일반 농가들은 40만 원 등으로 차등 적용했거든요. 앞으로 만일 월 단위 기본소득을 준다고 할 때 그 근거가 쌀 경작 면적이 아닌 친

환경유기농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국민적 합의하에, 농민들이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대가로 먹고 살게 하는 거죠. 지금 직불제가 다소 변질되어서 땅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받고 땅이 적은 소농들은 못 받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농가 기본소득으로 통합하기 위한 근거로 친환경유기농업을 제안하는 거죠. 농민들에게도 그런 부분은 과감히 요구해야 하고요.

임채도 농민들이 화학농업과 절연하고 친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겠네요. 이번에 농정TF에서 제안한 직불제 개선안에도 기본직불제 위에 친환경농업이나 경관에 대한 부분 등을 추가하는 기여제직불제 등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훈 직불제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도 경관이나 친환경 부분을 고려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 정책은 복잡하게 설계하기보다 통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을 살리고 생태계와 경관도 살리는 것이 친환경유기농업이고, 농민들이 그걸 하면 무조건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 해야 도시민들도 동의가 쉬울 거예요. 도시민들에게 농촌 경관 유지하기 위해 농민 기본소득 주자고 하면 예를 들어 뒷산 잘 가꾸니 돈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정부통계에 따르면 농가소득 평균이 3천8백만 원이에요. 그중에 농업소득은 26%, 천만 원 남짓이죠. 친환경유기농업을 하면 파격적으로 월 100만 원 정도 주자는 거예요. 현재 농업소득에 육박하거나 넘는 수준이죠.

한살림의 역할

임채도 말씀하신 농민(농가)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여러 지역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결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986년 서울 제기동 한살림농산으로 시작한 한살림이 현재 조합원 60만 명이 넘을 정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만큼 덩치가 커진 한살림이 우리 농민,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성훈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중요한 반쪽을 빼놓고 이야기해왔어요. 북쪽에도 똑같은 우리 동포가 살고 있잖아요. 거기는 농약과 화학비료가 없어서 자연히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우리는 유기질퇴비 만드는 기술이 있잖아요. 가축분뇨를 바다에 버리는 대신에 퇴비화하고 북한에 공급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생산된 농산물을 대가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특히 친환경 농업 협력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밥이 민주주의예요.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우리 마음대로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죠. 그러려면 농업이 생명농업이어야 하고, 유기농업이어야 됩니다. 이것만은 만고불변의 진리고, 통일되기 전이나 후에도 다 공통된 것이예요. 이 기본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보이지 않는 농민, 사회적 위기에 노출된 농촌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촌사회학회 회원이며, 마을학회 일소공도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농촌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화두 삼아 연구하고 있다.

jskks@krei.re.kr

농업·농촌의 사회적 위기

지난여름 엽천炎天에 택배기사, 건설노동자, 청소노동자, 집배원, 에어컨 수리기사 등 더위 속에 수고하는 분들을 ‘투명인간’ 취급하지 말자는 신문 사설을 여럿 보았다.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이는 시민으로서 온전히 존중받지 못하는 자이며, 누군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이는 시민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이다. 인정認定과 연대는 사회를 가능케 하는 토대다. 그러나 존재감이 없어 인정자 명단에 이름을 못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농민들이다. 폭염이 끝날 줄 모르고 길어지자 작황을 염려하는 말들이 나왔는데, 작황이 안 좋으면 농가의 살림살이가 어찌 될 것인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가을 김장 배추 가격을 걱정하는 신문방송 보도만 있었다. 존재감을 얻지 못한, 즉 인정받지 못한 사회 집단은 그냥 무시당하고 마

는 게 아니다. 공공 행정이나 시장에서도 체계적으로 배제된다.

농촌의 미래를 논할 때, 이제는 사회적 차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과 사회 사이의 이격(離隔)이 심화된 현실, 그 자체가 경제적·환경적 위기와 더불어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삼중 위기를 구성한다. 농업·농촌에 대한 친숙함과 공감의 줄어들면서 농민에 대한 우호적 입장도 줄어들고 있다. 아니, 농민을 농촌에 투명한 인간으로 격리하는 듯한 조짐마저 보인다. 연간 농업생산액이 삼성전자의 3개월 매출액보다 적은 것은 스마트폰 등 첨단과학기술을 수용하지 못하는 우매한 농민 탓이라고 우겨대는 우매한 언론지식인, 맛있고 안전하고 외관도 매끈하고 가격까지 싼 농산물을 찾지만 농민의 뒤통을 빼앗지 않고서야 그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모르는 소비자, 농촌 생활을 꿈꾼다지만 정작 옷에 흙 묻는 것을 두려워하고 품앗이를 비합리적 관습이라고 타매하는 신출내기 귀촌 도시민, 복잡한 이론 모형이나 통계는 줄줄 꿰지만 눈에 물을 가두는 까닭을 모르는 학자, 농작물의 생육 리듬과 행정서류 결재의 리듬은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관료 및 공공기관 직원 등등. 농업·농촌의 사회적 위기 징후는 곳곳에 넘친다.

미디어와 인정: 농업 보조금 제도의 사례

도시와 농촌, 또는 일반 시민과 농민 사이에 틈이 벌어진 까닭을 대중 매체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단견(短見)이다. 사회 변동 과정에서 초래된 필연적 결과라고 이해하는 게 더 옳다. 물론, 대중 매체가 그 과정에서 첨병 노릇을 톡톡히 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길래 도시와 농촌 사이에 물이해, 소통 부족, 무관심, 무시 등이 팽배하게 된 것일까? 즉, 인정 관계가 약화된 까닭은 무엇일까? 그 근본 원인을 짚는 것은 가히 문명 비판 수준의 작업이 될 터이고, 필자의 능력을 당연히 초과하는 일이 될 것이다. 다만, 대중 매체 등에서 흔히 나타나는 사례 하나를 중심에 놓고 농민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차원을 살펴볼 수는 있겠다.

정작 본인은 농산물을 값싸게 사먹으면서도 ‘값싼 농산물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경쟁력 없는 농업, 부가가치 생산 능력 떨어지는 농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 아깝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놀란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관념의 출처가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논리에 갇힌 신문 사설 등의 대중 매체라는 점이다.¹⁾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대중 매체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물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라고 해도 사정이 별 다를 것은 없다.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이나 예산 규모의 충분성 등을 따지기 전에 농업 보조금을 바라보는 관점을 짚어보자. 농민들을 두고 ‘돈 달라고 떼쓰는 사람들’이라고 싸잡아 막말하는 그 사람들은 농업 보조금을 빈자(貧者)에게 던져 주는 적선쯤으로나 알고 있는 건가? 다른 한편으로, 시장에서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격이 지불되지 않으니 이를 보상할 특별한 보조금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농업 보조금은 적선 아니면 보상일 뿐일까? 여기에 인정이라는 차원을 덧붙여보자.

교통사고 피해자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어 입원했다. 가해자가

1) 농업 보조금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편향되게 연결하는 사례, 농산물 가격과 물가 문제를 성급하게 연결하는 사례,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불미스럽고 폭력적인 사태를 과장되게 농촌 지역 전체에 일반화시키는 사례, 농촌 주민은 죄다 어눌하고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보이게끔 연출하는 사례 등등 신문·방송의 왜곡이나 과장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여기서 낱말이 밝히기도 어려울 만큼 많다.

치료비 등 보상금을 전달했지만 병실에 코빼기도 안 보인다. 다치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다고 치자. 즉, 보상은 했으되 인정(認定)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법률적으로 문제없을지 몰라도, 잘했다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 물론, 형식적으로 문병하고서는 치료비 한 푼 보상하지 않는 거짓 인정의 사태와 비교할 일은 아니다. “한 그릇의 밥과 국 한 사발을 얻으면 살고 얻지 못한다면 죽는 경우가 있다. 손 치더라도, 온갖 욕을 하며 듣기 싫은 소리로 준다면 길 가던 나그네도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요, 그것을 발로 차면서 준다면 거지도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맹자의 말도 있다. 인정은 사회적 관계의 최저선이다. 보상이나 적선에 우선한다.

그런데 ‘인정한다’는 말은 오인될 소지가 있다. 누군가 ‘진상 고객은 왕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고객은 왕’이라는 말 자체가 비틀린 사회적 인정 관계를 나타낸다. 상품을 구매하면 왕으로 인정하고, 구매하지 않으면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소비 능력의 아우라를 온몸에 휘감고 이탈리아제 가방이 즐비한 백화점 1층 매장에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설 때나 존재를 인정받는 사회가 좋은 사회일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일 년에 몇 편 정도 논문을 써야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대학 교수들, 논문 한 편 쓸 때마다 연말 성과급이 올라가는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박사들은 과연 무엇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는 걸까? 학술논문이라는 걸 읽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논문은 대개 교수 자리나 연말 보너스와 교환되는 부적(符籍)일 뿐이다. 그 뜻을 제대로 읽고 비평하는 이 없어도 그걸 가진 사람에게 이익이 오게 만드는 신통방통한 ‘글자’를 부적이라 한다. 자기가 쓴 논문이 부적으로 취급될 때 학자는 인정받았다고 고마워해야 하는가, 무시당했다고 모욕감을 느껴야 하는가? 인정은 보상이나 대가 지불 따위의 행위로 등치될 수 없다. 어떤 사회 구성원의 존재와 그이가

하는 일, 그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 인정이다.

농정에서도 사회적 인정 관계를 회복하거나 적절하게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 농촌 지방자치단체에서 귀농인에게 이사비 혹은 주택 수리비를 보조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토박이 주민 사이에서 “이 동네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집 고치는 데 쓰라고 단돈 만 원도 받은 적 없다. 새로 이사 왔다고 해서 귀농인에게 수십만 원 또는 일이백만 원의 돈을 주는 게 말이 되는가?”라는 불만이 나온다. 기실, 필요한 돈을 못 받았다는 불만이 아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곳에서 인정 혹은 존중 받지 못한다’는 항의다.

농민 생산자 입장에서 비용과 수고를 금전 가치로 환산하여 따지면, 친환경농업을 하지 않는 게 남는 장사일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도 농민들이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건 그들이 장삿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는, ‘농민’임을 인정받길 원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화가가 돈 되는 상업 일러스트레이션을 제작할 기량이 충분함에도 배를 굶으면서 굳이 ‘자기 그림’을 그리는 건, 돈보다 예술가로 인정받는 것을 더 중하게 여기는 때문인 것과 같은 이치다.

국민이 낸 세금을 농민에게 직접 현금으로 주는 게 직접지불제다. 요즘 일부 신문에서 오도誤導하고 있지만, 직접지불제 등의 농업 보조금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농민들이 돈 달라고 떼를 쓰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떼어 주는’ 적선이 아니다. 어떤 직접지불제가 몇 가지 이유에서 농업 활동의 가치에 대한 보상인 것은 맞지만, ‘보상’이라는 말로 그 의미를 충분히 표현하기는 어렵다. 농업 직접지불제는 보상이기 전에 농업 활동과 농업의 주체인 농민에 대한 사회적 인정에 기초한 제도이다.

농업 보조금은 한국 사회의 한 부분을 떳떳하게 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형식이어야

한다. 한편으론 농민과 농민 아닌 자의 동등함을 인정하는 ‘권리’ 보장의 수단이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론 나와는 다른 일을 하는 농민 고유의 활동-농업이 지닌 독자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 통합의 수단이어야 한다. 시장에서 교환되는 상품의 가격은 그것을 생산하는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생산자의 존엄성을 온전히 대표하지 못한다. 상품 가격이 사회적 가치를 대표한다면, 우리는 농산물 가격이 올라갈 때는 농민을 그만큼 더 인정하고 내려갈 때에는 무시해야 할 테다. 이치에 닿지 않는다. 사회적 가치 인정은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존재 자체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가 하는 일이 내게 편익을 주기 때문에 딱 그 편익의 크기만큼 화폐로 대가를 지불하고서 ‘인정한다’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 가치는 보상 혹은 대가 지불의 명분이기에 앞서 인정의 대상이다.

물화, 위기의 본질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수십 년 동안의 ‘압축적’ 혹은 ‘돌진적’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타자(他者)와 맺는 관계의 진정성을 잃었고, 자연과의 관계를 잃었고, ‘나’와 관계 맺는 방법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성장의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그 같은 ‘관계 변질’의 문화 현상을 두고 물화(物化)라는 용어로 집약할 수 있다. 독일의 비판사회철학자 호네프 A. Honneth는 물화를 이렇게 묘사한다.

사회적 관계는 점점 더 냉정하고 계산적인 목적지향적 관계를 띠어갔다. 자신의 산물에 대한 장인적 애정은 사물을 한낱

도구적으로 처분하는 태도에 의해 분명하게 밀려나고 말았다.
주체들의 내적인 경험조차 계산적 순응의 차가운 입김에 의해
얼어갔다.²⁾

학자들은 ‘상품’과 더불어 태어나고 자란 자본주의의 쌍생아로
‘도시’를 지목한다. 어디선가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집 앞 가게에서
외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외상
거래 가능성 여부가 도시와 농촌의 사회적 관계 특성을 구분하는
지표인 셈이다. 시골 동네 구멍가게와는 달리, 도시 시가지 편의점에
서 외상이 안 되는 것은 물화된 사회적 관계의 흔한 풍경이다. 도시
의 대형마트에서 찬거리를 살 때 버섯, 상추, 고추장, 두부 등을 장바
구니에 담아 와 줄을 선다. 내 차례가 되면 계산대에서 신용카드를
내민다. 한편, 도시의 감정노동자³⁾들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삼키면서 자아自我마저도 식도 안으로 구
겨 넣어야 한다. 이처럼 도시의 대형마트에서 반복되는 무미건조한
기계적 동작과 감정노동은 물화의 대표적 풍경이다. 이와는 달리, 예
전 시골에서는 어쩌면 물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물이나 자연과 관
계를 맺는 풍경을 흔히 마주했을 테다.

김장밭에서 배추와 무를 뽑기 전에 씨앗들을 뿌리고, 비가 오
면 오는 대로 오지 않으면 또 오지 않는 탓을 하면서 김장밭을
보살펴야만 겨우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농작물이었

2) 악셀 호네프, 『물화: 인정이론적 탐구』, 강병호 역, 나남출판, 2006, 19쪽.

3)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이란 직장인이 사람을 대하는 일을 수행할 때 조직에서 바
람직하다고 여기는 감정을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행하는 노동을 의미한다.”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 2018년 11월 15일.

다. 배추와 무, 파만으로도 최소한 3개월, 아니 거기에 고추와 마늘을 기르고 거두는 일까지 하면 1년 내내 밭을 떠나지 않아야 가능한 일이었다. 고추는 별에 말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읍내 방앗간엘 다녀와야 비로소 고춧가루가 되었다. 새우젓은 생새우를 사다 최소한 2년은 소금에 절여두어야 했다. 멸치젓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집에서 손으로 만든 음식에는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깃들 수밖에 없었다. 친정이고 시집이고 어르신들이 직접 김장을 담가주면 얼마간 화폐로 보답했다고 도리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러므로 큰 잘못이었다. 거기에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과 근심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었다. 햇볕과 비/바람은 모른 척한다고 해도 그랬다.⁴⁾

이런 이유로, 물화되지 않은 그 무엇을 찾아 사람들은 도농교류 혹은 농촌 체험을 명목으로 여행한다. 도시에 머물 때에는 로컬푸드 local food 혹은 슬로푸드 slow food를 찾거나 텃밭을 가꾸는 도시농업 활동에 참여한다. 아예 도시 생활의 기반을 갈아 치우는 귀농을 결행하기도 한다.

다시 시작하는 대안 운동

과연, 우리는 농촌을 간접적으로 접하거나, 직접 체험하거나, 농촌으로 옮겨 가서 생활함으로써 물화의 사막을 벗어날 수 있을까?

4) 김담, 『숲의 인문학』, 글항아리, 2013, 356쪽.

혹은 지금의 한국 농촌에서 자본주의적 물화에 질식되지 않은 진정한 관계를 찾을 수 있을까? 아쉽게도, 그렇게 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농촌을 체험하고, 좋은 농산물을 먹고, 농작물을 심고, 심지어 사는 집을 농촌으로 옮겨도 내 눈앞의 풍경은 다시 물화의 사막일 수 있다. 물화에 대항하려는 대안적 실천들이 적지 않게 일어났으나, 도시-농촌의 진정한 만남 또는 관계를 회복하려는 취지가 무색하게 왜곡되어 온 것도 현실이다.

농촌체험이라는 말을 듣고 단체로 찾아간 시골에서 어린 학생들은 농촌체험 서비스 상품 구매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오고가는 정리(情理)라고는 도토리 모자만큼도 없는, 금전 거래의 현장일 뿐이다. 한 손에 호미를 쥐어주며 30분 남짓 고구마를 캐라고 하고는 1인당 5,000원씩 받는 광경을 보는 학생들에게, ‘도시에서는 만날 수 없는 자연과 인간에 관한 진정한 가치를 농촌에서 접할 수 있다’고는 차마 말하기 어렵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를 줄여보자’⁵⁾는 로컬푸드 운동은 농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산물 직매장 건립 유행과 구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한때는 정부가 로컬푸드 운동이라면 지질한 좌파 소농들의 헛짓이라고 여기는 기색이더니, 어느 날 갑자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대안이자 물가 안정에 기여할 정책 수단으로 대접하기에 이르렀다. ‘얼굴 있는 농산물’이라는 말은 선거에 나온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나 정부가 펼치는 정략(政略)의 ‘얼굴 마담’ 자리를 꿰차고 앉았다. 줄이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가 아니라 ‘당

5) 사단법인 로컬푸드운동본부의 블로그(<http://blog.naver.com/klocalfood>)에서는 로컬푸드 운동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운동.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즉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의 거리를 최대한 줄여 먹거리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산화탄소 등 농산물 이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며, 나아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를 줄여보자는 운동입니다.”

선 가능성에의 거리'인 듯하다.

한 서울 시민은 ‘숨 막히는 콘크리트 벽 사이에서 보리를 베면서 땀 흘리거나 상추 조금 뜯어먹어서 힐링healing이 되니 참 좋다’고 말한다. 스스로 힐링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을 타할 이유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키치kitsch 감성을 진작시키려는 것이 도시농업 운동의 원래 취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도시농업 실천이 그렇게 ‘문화 소비주의적 감성’에 취한 상태에 고착固着된다면, 결국 도시공간-소비자본주의 체계로 되먹임하는 상략商略의 제물이 되고 말 것이다.

귀농 운동의 주변은 어떠한가? 1990년대 초반 ‘귀농’이라는 말이 등장했을 때와는 비할 수 없이, 지금 그 단어는 범국민적인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온 국민이 다 아는 이 단어를 내걸고 매년 개최되는 귀농 박람회나 페스티벌이니 하는 거창한 행사를 신문과 방송이 꼬박꼬박 후원한다.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농촌 지방자치단체에 전화를 걸어 ‘그곳에 귀농하면 지원금이 얼마입니까?’라고 묻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당신네 회사의 스마트폰을 지금 구입하면 얼마나 할인해 줍니까?’라고 묻는 것과 비슷하다. 요즘의 귀농 행렬을 자본주의적 도시 공간의 물화된 관계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비롯되는 탈脫물화의 생애사적 결단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오히려 직업이나 거주지라는 상품을 구매하려는 흔한 선택에 가깝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앞에서 언급한 사회 현상은 모두 자본주의 체계가 확산하는 물화에 대한 비판과 저항으로 시작된 실천들과 관련이 있다. 그 운동의 요체가 사람살이에 대한 감각을 깨우고 연대의 불씨를 지피는 데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것들을 통틀어 ‘도농연대 운동’이라고 부를 만하다. 눈 밝은 이라면 충분히 짐작하겠지만, ‘농촌을 체험하고, 좋은 농산물을 먹고, 농작물을 재배하고, 농촌에 살면 지금 느끼는 물

화의 피로감에서 해방될 수 있으니 도농연대 실천을 열심히 하자’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다. 그런 주장은 실천적 수행성(遂行性) 속에서 단련된 근육과 같은 이론이 될 수 없다. 그저 허영으로 뒤범벅된 ‘의도’에 불과한 것이다. ‘의도는 외출하지 못한다’고 하듯이,⁶⁾ 또 앞에서 짧은 예를 들었듯이, ‘농업을 하자’ 또는 ‘농촌에서 살자’던 당초의 의도는 쉽게 어긋난다. 그렇다고 해서 냉소에 빠져도 안 될 것이다. “이념과 욕망의 교착(膠着), 진정성과 모방성의 혼동, 생각과 실천의 소외에 따르는 부족과 미달, 혹은 과장과 잉여를 세속이라고 부른다”⁷⁾고 하지만, 그리고 세속은 영영 어긋나는 것이라 하지만, 그 어긋남의 어느 한 순간을 포착하고 성찰하여 사회에 소금 같은 메시지를 던지는 것 또한 도농연대 운동의 몫이다. 결국, 농(農)의 가치를 아는 시민이 있어야 하리라.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알면 모른 체할 수 없다고 했던가? ‘농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따위를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과는 다른 인문(人文)적 앎을 말한다. 가령, 빨간 사과 한 알에 얼비치는 가을 햇빛에서 어떤 삶의 역사를, 고단하지만 긍지어린 노동의 얼굴을,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 속에 피어오르는 어떤 공동체의 장면을 어림짐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6) “막 낫바늘에 물려 올라와 낫선 땅바닥 위를 세차게 파닥거리는 물고기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제 세상을 떠난 물고기는, 그 미끈한 유선형의 몸뚱이와 날렵한 지느러미가 허방을 치는 ‘어긋남’을 절감하면서 죽음의 예감을 지척에서 느낀다. 물 밖에 나온 물고기의 지느러미처럼, 바야흐로 세속의 실천적 수행 속으로 용해되려는 이치들 역시 스스로의 낯섦과 그 어긋남에 소스라치며 몸을 던다. 오히려 ‘지느러미에 딸린 몸뚱이’를 가진 물고기는 죽음을 목전에 둔 낫선 환경 속에서 ‘어긋남’을 온전히 표상한다.” 김영민, 『세속의 어긋남과 어긋냄의 인문학』, 글항아리, 2011, 14쪽.

7) 김영민, 『세속의 어긋남과 어긋냄의 인문학』, 글항아리, 2011, 17쪽.

바뀌지 않는 한국 농업 관찰기

김영규

충남 홍성에 살면서 최근 십여 년 풀무생협,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에서 실무자로 몸담았다. 학교급식, GMO반대운동 등 먹거리운동에도 기웃거렸다.

이런 일은 없고 농민들에게 빚만 잔뜩 진 비관론자. yawha86@hanmail.net

하나. 들어가며

지난해 말. 그러니까 1년 전의 얘기다. 동네 선후배들이 모인 송년 술자리. 나는 취한 김에 내게는 이른바 ‘멘토’인 선배님께 거친 소리를 쏟아냈다. 나를 농업 문제에 집중하도록 이끌어준, 유기농업 경력만 30년이 훌쩍 넘는 대선배.

“형님. 유기농업 그만하시지요.”

대답이 없으시다.

“형님. 우리 농업을 접고 다른 일을 찾아봅시다요. 형님도 아는 ○○는 농업판 일 접고 몇 년 만에 편의점만 다섯 개이고, 그랜저 몰고 다닌답니다.”

늘 후배들에게 보내는 애뜻한 눈웃음으로 아무 답 없는 선배 앞

에서 나는 더 나갔다. 벌써 이십여 년째 그 선배 뒤를 따른 후배에게 내가 물었다.

“옆에서 줄곧 지켜봤으니 알 거다. 지금하고, 1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언제가 가장 좋아 보였냐?”

후배는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답한다. 과거로 올라갈수록 형편이 나았다고. 선배도 아무 말 못한다.

만일 혼자만 잘 살자고 자기 농사에만 열심이었던 선배였다면 나머지 일들은 그 인생의 굴곡이라고 치부해도 된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이랬으면 ‘함께 잘 살자’로 도배된 인생이었고, 그래서 그 일에 농토며 집이며 다 잡아먹어가며 근래 30년을 살아냈으며 또 그래서 후배들이 기꺼이 뒤를 따랐다. 그 결과 지금은 자기 땅이라고는 거의 없는 빈털터리 농사꾼으로 남았다.

나는 최근 10년 친환경 가공식품 생산에 목숨을 건, 그래서 여전히 배고픈 앞서의 후배에게도 쟁기를 박듯 모진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제 너도 그만해. 첨가물 안 넣고 맛을 내고, 원료 좋은 걸 고집하느라 돈 못 벌었지. 그걸 누가 알아주더냐. 유기농업 하면 더 감시의 대상이 되고, 범법자 취급받는 세상, 돈보다 가치 쫓는 놈이 바보 취급받는 세상에서 너도 이제 그만하고 돈 벌어.”

(그들은 지금도 가던 길을 가고 있다.)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 열심히 산 사람이 더 잘 살고, 공적인 역할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가 아니니 말이다. 농민들이 나서서 농업이 공적인 분야임을 국가를 상대로 설득해야 하는 나라다. 더 유기적인 농업을 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만들어놓은 엉터리 인증시스템과 고투입 농법을 따라가는 게 더 효율적이며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나라. 나는 심하게 무력감을 느꼈다. 농민단체 실무자로서의 분명한 한계도 엄습했다.

둘. 한국 농업은...

모름지기 국가기간산업이라면 저 정도는 되어야지. 11월 24일 모 통신회사 화재를 보면서 든 첫 느낌이다. 단지 전화가 불통된 것이 아니라 도시민 일상의 전반이 마비되는 통신대란. 농업 및 먹거리와의 차이가 느껴지시는가. 그러나 사실 함정이 있다. 통신회사는 바꿀 수 있지만 한 번 무너진 농업과 농촌은 대신할 방법이 없다. 왜 농업은 기간산업의 위치에서 서지 못할까. 대체가 불가능한데도...

한국 농업을 생산주의 농업, 농정으로 표현한다. 농업과 농업정책만이 아니라 한국의 국가전략 자체가 성장과 발전에 있어 왔고, 정부가 바뀌었어도 이 전략만큼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것이 고스란히 농업에도 적용되어 온 것일 뿐이다. 경쟁력을 갖는 농업, 효율과 소득을 목표로 하는 농업이 모든 것에 우선했다. 당연히 거기에는 농업과 농촌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나 공적인 기능과 역할은 뒷전이 되었다. 아직도 95%의 농가가 화학농업으로 하나라도 더 생산하라는 국가전략을 따르고 있고, 스마트팜이 정부가 바뀌어도 등장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당연하다.

농민과 국민의 행복은 뒤로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생산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경쟁지상주의 국정과 농정이 한국 농업을 수렁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농업과 농촌은 한국 사회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조건 없이 양보해야 했고, 농업 인구 비율이 5% 내외에 접어든 지금,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군이 되었다. 한 달 가까이 단식을 하고, 두 달간 농성을 해도 일간지 기삿거리조차 되지 못할 만큼.

현장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이제 40세 이하 농민들의 숫자는 전체 농가의 1% 미만에 불과하고 농민이 지키는 농촌은 아이를 낳

아 키울 수 없는 거대한 무덤이 되었다. 이제 농촌을 무너뜨리려 애 쓰지 않아도 불과 몇 년 뒤면 농촌은 썩대밭이 될 것이다. 2018 한국의 지방소멸보고서의 소멸위험 89개 지자체 중 18개를 제외한 지역이 ‘군’ 지역이었으며 대부분 농촌 지역임을 굳이 예로 들지 않더라도.

물론 아무리 농업과 농촌 문제를 팔시하고 방치한다고 해도 농업이 완전히 절멸하거나 농촌이 모두 사라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형태의 농업, 농촌은 아닐 테지만 말이다. 농업은 농산물만 생산해서 도시에 공급하면 되는 산업, 농촌은 그걸 가능케 하는 생산단지 정도로 판단하는 농정의 결과물은 이미 충분히 현실에 드러나 있다. 하지만 한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표는 그런 데 있지 않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그 숫자나 비율과 상관없이 사회적 가치나 공익적 역할이 존중되는 영역들이 존재한다. 60만 명의 군대, 100만 명의 공무원 등. 농민이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 끼어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요원해 보인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외친 것은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농업을 (국제)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 농업은 하루바삐 무너져 내려야 할 한국 최악의 산업이다. 그걸 영위한다고 끝없이 투자를 재촉하는 농민들은 한심한 기생집단이고, 이미 망가뜨린 농촌을 살릴 길은 없어 보인다. 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과 가치의 문제는 대체 누가 고민해야 하는가. 성장이데올로기는 계속되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한국 농업은 답이 없다.

셋. 친환경농업은...

한국의 친환경농업도 시작 이래 최고의 위기라는 게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공통된 얘기다. 그럼 한국의 유기농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는가.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으로 개입하고 산업적으로 접근한 1990년대 말부터는 얘기가 달라진다. 그전까지가 대단히 더딜지라도 현장 농민들의 자각으로 시작해 소비자들과 함께 가치를 확대해온 시기라면 정부가 육성정책을 마련한 90년대 말부터는 한국 농정의 패러다임이 그대로 친환경농업에도 적용된다.

첫 집계가 시작된 1999년 무렵 전체 농업의 0.1%에 지나지 않았던 친환경농업이 2009년에는 12%대를 넘어선다. 이 시기가 친환경농업을 끝없는 암흑의 터널로 밀어 넣은 시기이다. 환경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 대신 돈 되는 농업의 일환이 되어버렸고, 유기적인 농업 방식에 대한 끝없는 고민보다는 (효율을 염두에 둔 정책을 따라) 기성품 자재 중심의, 이름만 바꾼 친환경농업이 광폭으로 확대되었다. 물론 그 가운데 소비자에게도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농산물 소비라는 그릇된 목표가 심어졌다.

한국 농업의 전반적 위기에 정부의 육성책까지 더해지자 농민들은 서둘러 친환경농업으로 몰렸고, 소비에 대한 대책도 없이 숫자 늘리기에 집중한 정부 주도의 친환경농업은 2015년 말 4.5% 미만으로, 20만에 육박했던 농가는 6만으로 무너져 내렸다. 사실 이 무차별한 성장과 몰락의 시기, 그러니까 넘치는 친환경농산물과 그로 인해 농민들이 쏟아낸 피눈물 속에 생협이 성장이 맞물려 있기도 했다. 결과는 참혹했고, 이른바 ‘관행화된 친환경농업’만 남아버렸다.

지난해 여름 살충제 달걀 파동이 친환경농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공정성(公正性)’을 생각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출세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믿는다. 어떤 악행을 저질러도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으면 용서한다. 그게 우리 사회의 공정이다. 따라서 다들 서로를 의심한다. 설마 정당하게 돈을 벌었겠어?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벌 방법이 있나? 굳이 어려운 유기농업을 하겠어? 나처럼 농약을 쳤겠지... 그리고 그걸 입증하고 적발하기 위해 온갖 기준을 만들고, 사회적인 비용을 퍼붓는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친환경농업을 하는 5%의 농민과 그를 소비하는 5%의 소비자들끼리만 서로 믿는다. 나머지 95%는 5%가 엉터리일 거라고, 자기들의 공정 잣대로 폄하한다. 그런데 5%가 95%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 농민도 5%, 식량자급률도 쌀을 제외하고 나면 5% 남짓. 언론도 정부도 5%에는 관심이 없다. 이제 판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속해 있던 농민단체에서 마지막으로 한 일 중 하나가 친환경농어업법상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일에 참여한 것이었는데, 그게 쉽지 않았다. 현장의 정당한 요구, 많은 나라의 경험과 정의를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경로로 제시하였지만, 고위관료들의 입장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친환경농업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안전’을 개념에서 빼자는 우리의 요구는 ‘안전’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바뀌도 좋다는 고위관료의 의견에 막히고는 했다. 국민의 머릿속에 자신들이 만들어 집어넣은 왜곡된 개념을 포기하기가 어디 쉽겠는가. 국민들이 ‘안전’만 외우고 있는데 말이다.

환경을 살리는 농업에 충실하였는지,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신심을 다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될 일을 이제는 진즉 오염된 토양까지

강력한 검사와 분석으로 심사하겠다고 하는 세상에서, 유기농업을 하는 일은 정말 어리석은 바보들의 일이 되어가고 있다. 허허벌판에서 맨몸으로 폭풍을 맞이하는 농민들. 가엾은 그들.

넷. 농성은 무엇을 얻었나

기대 아닌 기대가 어찌 없을 수 있겠는가. 그 차가운 겨울에 촛불을 들어 정권을 무너뜨린 국민, 농민들에게. 하지만 자본과 기업을 위한 정부는 어김없이 농민들을 무력하게 했다. 사실 나는 정부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실망은 정부가 아닌 농민의 호민관들에게서 시작되었다. 나 역시 농민단체에서 작지만 한몫을 보냈고, 그래서 농민단체를 만들고 함께해온 것이니, 당연한 일 아닌가.

개혁을 표방하는 정부가 헛발질을 반복했다. 새 정부 초기에 농정 개혁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늦는다고 선거를 전후해 수많은 식자들이 게거품을 물었지만, 정부의 계속되는 적폐계승 행보에도 적극적인 반발은 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움직일 줄 알았던 농민단체들이 스스로 뒷걸음질 쳤다. 지난봄, 농민단체들은 1년 가까이 반복적으로 확인한 정부의 농업 무시에 대응해 연대투쟁을 계획하고도 스스로 주저앉았다. 이유는 많다. 그럴 때가 아니다(정부를 믿자는 것일 테다), 남북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에 투쟁이 묻힐 것이다, 지방선거가 중요하다, 그럴 역량이 없다 등등....

개혁을 주장하고 그를 함께 해나갈 의지를 가진 농민조직이 없다는 것은 결국 또다시 관료의 손에 개혁을 내맡기겠다는 것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 어찌겠는가. 정부와 관료들이 그 모양인 걸 알면서 현

실에 대응해야 하는 것처럼 단체들, 시민사회가 그런 줄 알고 대응하면 될 일이다. 그래서 개인으로서의 시민들이 나섰다. 이대로 한국의 농업이 고사하는 걸 지켜볼 수 없다고, 국민에게 제시했던 먹거리 공약을 지키라고 농성을 했다.

시작은 시민들이 했지만 어차피 정부를 상대해야 하는 일이라 단체들이 함께해주길 기다렸고,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단체들이 합류했다. 몇 가지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농성에 깊게 참여한 시민들은 굳이 성과로 포장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청와대 안에서 처음으로 농업 문제가 비서관들 사이에 화두가 되었다거나, 농업·먹거리 문제를 다룰 대통령직속위원회 문제를 농식품부 장관이 처음으로 자기 과제로 인식했다거나, 곧 대통령과의 면담을 잡아 주겠다는 것 등등.

물론 농성은 개인이 시작했지만, 접는 것은 단체들이 접었다. (그들은 나같이 의심이 많지 않고, 정부를 믿어보자는 독실함을 가졌다.) 단식을 좀 더 이어가서라도 최소한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농업과 국민의 먹거리를 직접 챙기겠다는 분명한 대국민 성명과 개혁 진영과의 면담이 성사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또 이 과정에서 끈질기게 적폐관료들이 시도할 (면담의 내용과 면담의 참여 주체 두 가지 면에서의) 물타기를 막아볼 요량이었지만, 이는 단체들의 결정에 따라 중단되었다.

아쉬움이 없지 않다. 그러나 가장 큰 아쉬움은 우리가 내건 요구의 성사 여부에 있지 않다. 사실 우리 농업이 처한 가장 큰 어려움은 (그 역시 정부가 만들어낸 작품이지만) 국민들에게서 농업·농촌·농민·먹거리 문제가 등외가 되었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것 아닌가. 따라서 가장 큰 아쉬움은 한 달 가까운 무기한 단식과 단체들의 릴레이 단식농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올라설 즈음에 중단해야만 했

던 사실이다.

이번 농성 과정에서 일부 농민단체들이 자신의 지역조직에 투쟁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에도, 현장의 많은 농민들이 농정의 근본을 바꾸고 농업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자리매김해야만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더 큰 희망은 한살림을 비롯한 소비자운동이 보여줬다. 그리고 농업을 에워싼 적극적인 소비자들이 더불어 존재한다는 사실이야말로 실로 놀라운 희망이자 성과이다. 이들과 함께 범국민 캠페인으로 나가지 못하고 서둘러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고두고 가슴 아프다.

또 하나. 착한 지식인은 존재해도 농업 판에 행동하는 지식집단은 없었다. 시민사회는 존재했지만 농업은 (스스로 아프다고 떠들어대지 않아서, 연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서이겠지만) 자신들의 일이 아니었다. 다만 생협이 있었고, 소리 없이 빛나는 소비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현장을 지키는 지역의 농민들이 있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한국 농업을 지키는 일에 농민단체보다는 소비자들이 앞장에 나서야 한다. (농특위법에서도 여야 합의로 소비자단체, 생협의 참여가 막혔다. 농민단체는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마지막. 그럼 무엇을?

정부가 무얼 제대로 할 것이라는 기대는 없기로 했다. 그걸 감시하거나 또는 개혁을 자신의 일이라고 굳게 믿고 서둘러 움직이는 주체가 없으므로, 정부도 농민단체도 내게는 희망의 원천이 아니다. 이제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것인가. 이젠 5%(농민)를 신뢰하는 다른

5%(생협) + α (시민)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새로운 것은 없다. 지역에서 그들과 굳건히 연대하는 소비자, 시민과 손 맞잡고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국지전만으로는 안 되고 전면전도 필요하다고 믿고 산 지난 10년이었지만, 지금은 접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라도 살아남는 국지전, 끝을 볼 생각으로 지켜내는 진지전으로 몇몇이라도 살아남는 것이 맞다.

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공급식,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조례 제개정, 정책수립, 실행참여 등), 정부의 퇴행적인 정책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 단위의 유기농업 실천과 민간 방식의 인증제 모색, (이해관계집단에 휘둘리지 않는) 지역 단위에서의 직불제 개편과 기본소득정책 수립, 농장을 매개로 한 청년농부의 유입과 교육, 도농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지역 만들기...

이런 실험과 노력은 꾸준히 계속되어왔다. 다시 말하지만 근본을 바꿔 전반적으로 새로운 회생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여기에 힘을 더 모으는 게 맞다.

스위스에서 아르맹 카폴이라는 농부에 의해 발의된, 소#의 제각除角, 뿔자르기을 반대하는 국민투표가 부결된 소식이 전해졌다. 비록 부결되었지만 생명을 가진 가축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국민여론을 환기시킨 점을 들어 국민투표 자체는 의미가 있었다고도 전한다.

나는 저런 뉴스를 기다린다. (지극히 사소해보일 수도 있지만, 스위스처럼) 농사짓는 방법을 두고 어떻게 하면 더 환경친화적일 수 있는지 국민이 투표하게 되었다는 뉴스, 20만 명이 서명하여 청원했더니 국가가 GMO 문제를 개에게 입마개 하는 문제보다 먼저 챙겼다는 뉴스, 농촌 문제를 풀었더니 도시 문제가 저절로 풀렸고, 먹거리 문제를 풀었더니 국민 건강이 점차 개선되었다는 뉴스.

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공정해지길 바란다. 공정해지는 만큼 농업이 보일 것이므로... 



좌담1

‘농’의 희망을 말하다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농업의 현실과 미래

진행 | 박지은(농촌사회학 연구자, 『모심과 살림』 기획자문위원)

참석 | 강태양(전남 해남), 김성만(경북 봉화), 김영대(광주), 최보란(강원 정선)

정리 | 편집부

젊은 농민들의 분투기

박지은 최근 들어 농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사는 분들이 많아지고 매스컴을 통해 소개되기도 하는 것 같다. 오늘 좌담에서는 특히 농사에 뜻을 두고 각자 방식으로 해 나가는 20~30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 오늘의 주제가 ‘농의 희망을 말하다’이지만 자유롭게 낱것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한다. 우선 왜 농민이 되었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지, 어떻게 농사를 지어왔는지 한 분씩 얘기해주시면 좋겠다.

김영대 저는 2013년에 가족들과 같이 장흥에 내려가서 1년 정도 왔다갔다 하며 지냈다. 농사만큼 생태적으로 살 수 있는 경제활동은 없겠다는 생각에서 귀농을 결심했는데,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실제 생태적으로 작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게 선행되어야 할까 고민하게 되었다.

박지은



김영대



우선 자급에 있어 핵심이 벼농사인데, 200평~400평 정도 규모로 벼농사를 지으면 40kg짜리 4~5가마가 나온다. 그래서 작은 정미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매통작은정미소’를 직접 열게 됐다. 여기는 5kg를 가져와도 도정을 해준다. 일반 정미소에 5kg를 가져가면, 아마 상상이 되실 거다.(웃음) 적어도 소농인들이 자기 농사를 짓고 가공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지금은 토종벼 농사를 작게 짓고 있는데 최대한 기계를 쓰지 않고 자연농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적정 수준의 농지 규모가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색깔이 드러나니까, 작은 것들이 아름다움을 다시 복원해보자는 취지에서, 재밌게 하고 있다.

박지은 토종벼를 다양하게 짓는다고 하셨는데 품종은 몇 가지인가?

김영대 27가지 정도다. 농사는 기본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규모이고, 도시민들을 초대해서 같이 짓기도 한다. 논 전체가 50평, 100평씩 나뉘져 있는데,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1,000평은 엄두가 안 나지만 가령 열 가족이 모여서 100평씩 하면 모내기든 벼베기든 한 시간 안에 끝난다. 귀농자들 중에 벼농사를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도 생각보다 수월해보이니 한번 지어볼까? 생각하게 된다. 규모가 작다는 게 중요한 요인인 것 같다.

강태양 저는 자연과 가까이 살고 싶어서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귀농했다. 그전에도 1년 반 정도 부모님 곁에서 지냈던 적이 있는데 당시엔 너무 어리기도 했고 부모님이 저를 감당을 못해서 돌아왔다.(웃음) 5년 뒤쯤 다시 갔는데 이제는 주변에도 자식들이 내려온 집들이 더러 있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 농약은 하기 싫었고 비닐 멀칭도 싫었다. 일단 너무 안 예쁘게 보였다. 물론 멀칭의 이점이 너무 많아서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다. 조금씩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풀을 메는 건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되고 자연농법 철학에도 맞지 않는 거다. 시골에 간 이유는 한편으로 많은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였는데, 너무 일을 많이 해야 했다.

그래서 풀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다. 헤어로비치라는 녹비작물은 겨울에 파종하면 4~5월에 무성하게 크고 6~7월에 하고현상으로 말라서 8월이면 자연적인 유기물 멀칭이 된다. 그때쯤이면 햇빛을 많이 안 봐도 되는 망초가 올라오고 적당히 경쟁을 해준다. 도라지 씨앗도 봄에 안 넣고 8월에 넣으면 별로 안 자라지만 일단 겨울만 나면 이듬해부터는 관리가 쉽다. 시간차를 활용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있다.

면적은 제가 4천 평 정도. 아버지는 2만 평 정도 된다. 둘 다 완전 자연재배다. 더덕, 도라지를 기본으로 하고 무를 2천 평 정도, 올해는 시범적으로 고구마 300평, 오이도 50평 심어봤다.

최보란 농촌에 들어가겠다고 생각한 가장 큰 계기는 엄마였다. 부모님이 두 분 다 농민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컸고, 휴학했을 때 잠깐 살았던 것 외에는 도시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 도시 삶에 대한 동경도 없었고 나고 자란 곳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컸다. 농업대학을 나오고, 인생 계획에 전혀 없던 결혼을 하게 돼서 (웃음) 지금은 강원도 정선에서 남편과 같이 농사짓고 있다.

부모님은 친환경농업을 하시고 엄마는 특히 토종종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지역에 가서 놀랐던 게 전부 관행농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제초제를 치는 모습이었다. 이 방식부터 맞지 않아서

순탄치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 부부가 농업에 대한 철학이나 생각이 정립되지 않은 시기라 앞으로 10년간은 배워간다는 생각으로 하게 될 것 같다.

농사 규모는 사과 4,000평, 아스파라거스가 1,200평인데 정리하고 시설로 옮길 예정이다. 나머지 밭은 고랭지 채소나 감자를 하고 있다. 둘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땅이다. 사실 원래는 소농이나 가족농을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저도 멀칭 안 하고 키우고 싶은데 도저히 불가능하다. 제초제를 치면서 둘 다 괴로워한다. 건강한 농산물을 키워서 다른 사람들,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원래 추구하던 농사 방식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보니 조금 힘든데, 만 평을 관행농으로 일구는 걸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사실 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은 20대니까 몸이 어떻게든 버텨가겠지만 나중에 엄마 나이, 할머니 나이가 되면 어떻게 생각도 든다. 그래도 내년부터는 밭 한편에 따로 저만의 토종사업을 조금 꾸려보려고 준비하고 있다.

김성만 2012년에 봉화로 귀농했다. 가기 전에 환경단체 활동가로 일했는데 내가 도시에서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지금 돌아보면 순수해지고 싶은 열망이었다. 좀 더 생태적으로, 내 집 짓고 내 먹을거리 생산하면서 살아보려고 시골로 왔다.

첫 번째 부딪힌 문제가 땅값이었다. 봉화는 경상도의 오지라고 할 정도로 당시 땅값이 별로 비싸지 않았지만 그곳에서도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일반적으로 농사짓기 편하다는 땅은 구할 수 없었다. 골짜기 중간에 있는 200평 안 되는 밭 하나, 골짜기 끝에 있는 600평짜리 논인데 두 단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농사짓기 어려운, 트랙터도 못



들어가는 땅이다. 200평 밭에 흙부대집도 혼자서 짓고, 집 바로 밑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을 또 샀다. 그 땅에서 자연농으로, 낫과 삽 들고 농사지었다.(웃음). 애 둘을 키우면서 가을마다 정미소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런저런 일거리로 생계를 유지해오다가, 올해는 꼭 농사로 수익을 내야겠다고 생각해서 천 평에 옥수수과 들깨 농사를 지었는데 수익이 50만 원이었다. 그나마 시장에서 종자 구입한 것 외에는 투입 비용이 거의 없고 노동도 대부분 혼자 했다.

그리고 주변에 자연양돈 하는 분들과 친해지면서 계속 꼬드김을 당하다가 넘어가서(웃음), 축사를 짓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한다. 현실적 고민으로 시작한 거다. 후계 경영인을 신청하면 대출이 총 3억까지 가능한데, 4년째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해서 일 년에 4천만 원이 넘는다. 농촌에서 그 빚을 갚으면서 내 생활을 할 수 있나 싶지만 일단 대출을 받았다. 이제 큰일이다.(웃음)

계속 농사지를 수 있을까

박지은 자연스럽게 비용과 생계 얘기가 나온 것 같다. 투입 대비 산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다.

강태양 저도 1억을 대출받았다. 한 해 2,300만 원 정도씩 갚는데, 부족한 건 또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메우고 있다. 꿈은 크지만 실제 상환 날짜가 되면 여러 고민이 든다. 그나마 농자재 비용은 안 들고 심고 수확할 때 동네 할머니들 품삤, 예초기 기름값 정도인데 전체 비용은 딱히 계산해보지 않았다.

최보란 저희가 작년에 무 농사 4,200평 해서 3천만 원 수익이 나왔는데 절반이 인건비였다. 보통은 어느 정도 키우고 밭째로 넘기는데 시기를 놓쳐서 너무 헐값이라 직접 팔아보려고 작업하다 보니 하루 100만 원씩, 그전에 풀 메는 일 등등 포함하면 1,500이 들었다. 거기에 자재값, 비료 등은 또 따로 들어간다. (직불금은 받지 않나?) 부모

강태양



최보란



님 명의로 되어 있어서 부모님이 저희에게 주시긴 하지만, 그것 가지
고도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

김영대 논농사를 중심으로 계산했을 때, 800평 정도에서 기계, 농
약, 예초기 비용, 도정 비용 등 포함하면 일반 쌀로 수확했을 때
425kg 정도 나온다. 지금 쌀값이 kg당 1,500~2,000원 정도인데 트랙
터, 콤바인 다 제하면 마이너스 100만 원 정도 된다. 적어도 4,000원
정도 돼야 본전이 되고 5,000원 정도 돼야 30~40만 원, 제 계산법으
로는 그 정도 수익이 생긴다. 지금 벼농사는 직불금 때문에 어느 정
도 유지되는 거고, 시장 쌀값 자체가 너무 낮다는 거다. 규모화되지
않으면.

최보란 최저가격이라도 보장된다면 농사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지을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이 없다가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정말 많이 한다.

김영대 작은 규모로 여러 사람이 짓는다면 품앗이가 가능한데 그
게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저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최대한 돈이 안 드는 방식을 추구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늘
어나게 되면 품앗이가 가능해지니 단위면적도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박지은 농지 형태도 궁금하다. 부모님 농지이거나 임차했거나 또는
소유 관계가 애매한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강태양 소유와 임대가 반반이다. 처음에는 아버지와 같이 농사짓다가 견해 차이로 다투게 돼서 지금은 독립적으로 짓고 있다. 반 정도는 부모님이 임대하던 걸 받아서 짓고 있다. 부모님이 장비가 있으니 도와주시기도 한다.

최보란 저는 다 부모님 농지다. 두 분 모두 다른 일을 하고 계셔서 대부분 저희끼리 하고 있다. 재작년에 사과밭을 새로 만들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임대를 하는 방식이 됐는데, 완전히 분리되진 않았다.

김영대 저는 임대 농지다. 도심이어서 땅값이 더 비싼데 상대적으로 농사짓기는 불편한 곳이다. 저는 단지 땅이 필요한 거니까, 직불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1,000평이 1년에 30만 원이다.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이나 농지원부가 필요하면 가능한 곳을 찾겠지만 그런 땅은 구하기 어렵다. 시골에서도 다랭이는 같은 경우가 나오지 잘 갖춰진 곳은 나오지 않는 것 같다.

박지은 임대했을 경우 농지관리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하다. 관리를 잘해 놓으면 주인이 도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 않나.

김영대 저는 그런 염려는 없다. 사람들이 신경 쓰는 땅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공간이라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 또 간혹 멧돼지가 나타나서, 관리가 잘 돼도 피해를 볼 수 있는 땅이다. 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농사짓고, 도시 공간이니 사람들 초대할 수 있고. 안정적이면서도 생태적인 측면에서도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다.

강태양 우리 마을은 해남에서도 외진 곳이고 산밑 동네라 밭이 많다. 논은 있지만 직접 지으니까 임대로 안 나오고, 밭은 일이 많아서 안 하려고 하니 저희에게 많이 온다. 마을 분들이 처음엔 무슨 농사를 그렇게 짓느냐고 하지만 수확 때 보면 풀밭에서도 수확량이 나오니까 신뢰를 얻으면서 밭이 점점 늘었다.

마을에서 밭은 네 분 정도밖에 안 할 정도로 밭농사는 거의 포기 상태라 뺏어갈 염려도 없다. 나중에 자식들이 와서 한다고 하면 모를까. 저도 임대 농지 중 한 곳은 자식이 몇 년 뒤에 오게 되면 다시 달라는 조건으로 얻었다.

김성만 저는 매입한 땅이 거의 2천 평 정도다. 그 땅에 집도 있고 200평 축사도 짓고 있다. 농지를 늘리고 싶어서 가능하면 더 임대를 하고 관행농으로 해보려는 생각도 있었다. 근데 우리 밭 모습을 보신 분들이 땅을 안 주신다.(웃음) 시골에 땅이 많으니 젊은 사람이 내려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저희 지역은 고추가 잘 돼서, 농사짓기 편한 데는 땅 가진 사람들이 다 고추를 심는다. 내놓는 땅은 저희 땅처럼 농사짓기 어려운 작은 땅이다.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농사 못 지어도 자식들 물려줘야 하니 팔지는 않고, 임대는 주로 땅값을 많이 쳐주는 인삼업자들에게 간다. 고령화사회라고 젊은 사람 떠난다고 신문에는 나오지만 현실은 다른 것 같다.

김성만



강태양 해남은 안 그렇다. 다른 마을에서 4,000평을 임대했다가 너무 멀어서 포기했는데 그래도 지으라고 하더라. 인구에 비해 농지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최보란 저희 지역도 땅 구하기는 어렵다. 지역 편차가 있는 것 같다.

더불어 살아가기, 어려움과 즐거움

최보란 최근에 시설 짓는 문제 때문에 땅을 측정해야 하는데 옆 땅이 친척 분 관계된 땅이라서 말을 못하고 있다. 너희들이 말하면 버릇없다고 하지 않겠냐고 하시는 거다. 저희 들어왔다고 어른들이 이것저것 요구하시는 건 많은데 뭔가 부탁드리려고 하면 버릇없다, '요즘 젊은 것들은...'이란 얘기를 듣는다. 이런 건 정말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다.

박지은 활동과 관계맺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다. 정치 경제 문화 활동을 포함해서 관계맺기의 어려움까지 얘기해주시면 좋겠다.

강태양 마을에서는 관계가 별로 없다. 주말 부부로 지내다 보니 그렇기도 하고, 부모님이 마을 관계는 많이 하신다. 또 점점 가치관이 안 맞으면 잘 안 만나게 되기도 한다. 한살림 공동체 분들 정도와 소통하고, 전남 청년농부협동조합 모임에도 간혹 나가고 있다.

최보란 저는 부녀회나 의용소방대 같은 지역활동에서 오는 압박이 있다. 인원 모자라니까, 젊으니까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는 식이다. 게다가 남편은 와서 적응하기도 벅찬데 마을에서 막내다 보니 마을 반장 하라거나 청년회 일도 하고, 마을 행사 있을 때마다 무조건 호출이다. 반면에 농업기술센터에 4-H라는 단체가 있는데,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많은 편이라서 그런 활동 하면서 힘든 것 이야기하고 서로 위안도 삼는 것 같다. 저도 먼 지역에 와서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친구들 있어서 좀 수월했던 것 같다. 강원여농에도 정식 가입은 안 했지만 토종 축제 같은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김성만 저는 마을 외딴 곳에 집이 있는데 그래도 같은 마을이니까 마을 총회와 어버이날 두 공식 행사에는 간다. 이장님과는 잘 알지만 그 외 분들과는 딱히 관계가 없다. 50대 중반 넘는 ‘젊은’ 형님들이 마을에 나오라고, 술 한잔 하자거나 밥 먹는 자리에 부르시는데 사실 세대 차이도 있고, 만나면 ‘농사 그렇게 짓지 말라’는 얘기가 반 이상이라서 편하진 않다.(웃음) SNS 통해서 만난 지역 분들과는 네 가구 정도가 친하게 지낸다. 자연재배나 생태귀농 같은 키워드가 맞는 분들이다.

김영대 장흥에 갔을 때는 처음에 땅부터 구하려고 했다면 경계했을 수도 있는데, 아는 사람 통해서 얻고 벼농사 짓기 시작하니까 소통이 시작됐다. 기계도 안 쓰고 예전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 다들 관심 있게 보시고 물 대준다고도 하셨다. 지금도 논 인근 마을들과는 잘 관계를 하려고 하는 편이다. 토종벼를 다양하게 심으면 그 자체가 다양한 모양이 돼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궁금해서 들여다보기도 한다.

강태양 저는 동네 입구에 밭이 있는데, 수확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걸 보고 생각이 바뀌시는 걸 봤다. 할머니들도 고구마 50평 정도 짓는데 내년에는 멀칭 안 하겠다고 하신다. 예상과 다른 결과를 직접 보니 시선에 변화가 생기더라.



© 김영대

농민들의 지속가능한 삶

박지은 이제 유통 얘기로 넘어가보자. 판매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김성만 작년에 시범 단계로 홈페이지 만들어서 전부 팔았다. 양이 얼마 안 되니 직거래가 아니면 어렵다. 소규모 축산도 납품하면 단가가 안 맞으니까 직거래밖에 길이 없다. 지역시장은 가격대가 안 맞아서 어렵다. 맛이 아니라 가치에 가격을 매긴 거라서, 그런 어려움을 알아주는 사람들을 찾아야 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가공해서 우리 농장 이름으로 판매하려면 자체 정육점도 있어야 해서 축사 옆에 만들려고 한다.

박지은 비슷하게 하는 분들과 협업하진 않나?

김성만 사료를 같이 사거나 기술도 주고받는데, 사업자는 각각 할 수밖에 없다. 뭉쳐서 협동조합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지금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돈 문제가 들어가면서 만일 틀어져 버리면 이 관계가 끝나버린다는 걸 다들 알고 있다. 친한 사람 몇 없는데 깨지면 안 되지 않나. 이상한 얘기 같지만 관계가 너무 소중한데서 같이 할 수가 없다.

강태양 저도 처음에는 더덕, 도라지를 도매로 백화점에 납품하면 금액이 안 돼서 더듬더듬 홈페이지 만들어서 직거래로 팔기 시작했다. 결혼할 때쯤, 장모님이 오래된 한살림 조합원이셔서 한살림 생산자가 되기로 약속하고, 지금은 일부를 한살림에 출하하고 있다. 작년에는 무가 1kg 되는 게 전체의 10%라면 올해는 30% 나왔다. 유기농 출하 기준에 맞게 자연농 재배가 가능한 품목들을 계속 개발하려고 한다. 자연농의 가치를 알아주는 분들도 전국에 있기 때문에 택배도 하지 않을 수 없다. 택배 포장에 너무 낭비가 많은 것 같아서 요즘은 설령 조금 마르더라도 비닐을 안 쓰려고 하고 있다.

최보란 저희는 거의 농협에 수매로 내고 사과는 10% 정도 개인 직거래로, 아스파라거스는 거의 언니네텃밭 직거래로 판매한다.

김영대 제 경우 토종쌀 수요 자체를 새롭게 창출해 가는 과정이다. 가공도 생각하고 있다. 비슷한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들 간에 생산과 가공과 유통이 다 연계된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를 시도해보고 싶다.

박지은 먹거리는 일정 정도 자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나머지 생활은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김성만 지금까지는 알바를 이것저것 해서 반 정도 충당하고 나머지는 땅과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는데 금액이 크진 않다. 사실 농사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올해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됐다.

최보란 다달이 생활할 수 있는 돈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다. 올해 사과밭 일이 많아서 고랭지 채소를 1모작만 하려고 했는데 다음 반년을 먹고살려면 2모작을 안 할 수 없다. 지역의 농민분들이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 현실이다.

강태양 제 경우는 더덕, 도라지를 오래 키워서 단일작목으로 하는 것보다 다품종 소량생산해서 계절마다 수확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올해도 무 심으면서 투입 비용은 거의 없었지만 평당 15,000원의 수익은 된다. 관행 방식으로는 일이 너무 많아서 어려울 수 있는데 저처럼 품을 적게 들이면 좀 덜 크고 수확량이 적어도 괜찮은 것 같다. 발이 많아서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김영대 할머니들이 농사짓는 걸 들여다보면 결국 다양성이다. 자투리 땅에 이것저것 심어서 손주 용돈도 주고, 물론 쓰는 게 굉장히 적겠지만. 갈무리하는 것 자체가 발갈이와 제초 작업이 되니까. 그런 시스템도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양한 농사 방식들: 관행농, 유기농, 자연농

박지은 농촌 현장에서 보면 관행에서 유기, 유기에서 관행으로 농민들이 경계를 넘나드는 것을 보게 된다. 전문가들이 인식하듯이 그 경계가 그리 공고하지 않은 것 같다. 예컨대 친환경농업을 지원하는 지역에서 농민들이 처음에는 유기농을 선택했다가 시장에서 가격지지를 받지 못해서 관행으로 탈바꿈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또한 30년 경력 농민이 20여 년간 농약을 쳤었는데 농약값이 많이 올라 한계에 이르자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돼지감자액을 자가제조하는 사례도 목격했다, 각자, 그리고 서로의 농사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강태양 관행농과 유기농은 서로 넘나들기 좋은 것 같다. 투입하는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자연농은 패러다임 자체가 다른 측면이 있다.

김영대 관행으로 농사를 지어온 어머니가 작물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면 농민들이 공통적으로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있다. 하지만 스마트팜 같은 것은 경계가 분명히 있다.

최보란 저도 지금 관행농 방식으로 배우고 짓고 있지만 다른 농사 방식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박지은 페르난도 푸네스 박사에 따르면,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쿠바에서도 유기농 비율이 25% 수준이다. 그만큼 표준화된 유기농 비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농민들의 다양한 농사 방식

이 우선 존중되길 바란다. 농민들이 생존할 수 있어야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모색도 가능할 것이다. 결국 농사짓는 삶이 지속가능해야 하는데, 앞으로의 농사, 생활에 있어 변화와 계획, 전망을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다.

최보란 저는 그렇게 힘이 들에도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곳에서 뭔가를 일궈나가고 있는 것 자체가 희망적이고, 일단 지금 이 삶이 너무 즐겁다.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새로운 시도로 내년에는 혼자 500평 정도에 감자를 해보려고 한다. 멀칭도 안 하고 싶은데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언제 부모님들에게 생각이 묵살될지 모르지만... 웅원은 해주시는데 오셔서 몰래 약 뿌리고 가시고 그런다.(웃음)

박지은 주 농사가 관행일 경우에 여성들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

강태양 처음에 내려갔을 때 비닐멀칭이 싫어서 그 방법을 연구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니까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교육까지도 관심이 생겼다. 한살림에도 올해는 무를 출하했지만 당근, 고구마 같은 다양한 작물을 출하해보고 싶다. 먹어본 분들이 어렸을 때 먹었던 맛이라고, 맛이 좋다고 얘기할 때 뿌듯하다.

김영대 과거에는 마을마다 공유지가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거의 사유화돼서 개발되거나 사라졌지만. 땅을 적게 가진 사람들은 산에서 나오는 산나물 같은 걸 통해서 일정 정도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 마을마다 그런 공유지를 되살리고, 마을에서 공동의 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이 결정할 수 있다면 어떨까 상상해본다. 그 가능성이 될 수 있는 게 농지은행인 것 같다. 국가에서 장기임대를 해주는 제도를 좀 더 확대해서 농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그걸 마을로 돌려줬으면 한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농지를 관리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도 빌려주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떨까. 제가 하려는 일도 말하자면 도시 마을과 농촌 마을을 잇는 방식으로 그런 마을 공유지를 만들자는 운동이다.

또 하나는 공유지와 비슷하게 도시농부 장터라든가 마실장, 마르쉐 같은 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해남 경우는 농민수당을 주기 시작하는데, 대안 시장 또한 현금이 모이고 나뉘지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기본적인 생활 비용들이 그런 시장을 통해 해결된다면 우리가

꿈꾸는 농사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박지은 친환경농사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쟁점이 농지다. 한국은 농민들이 평균적으로 농지를 자가소유하는 비율이 절반 수준이어서 농지 자체가 불안정한 현실이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지점은 월급제, 창업농 지원 등 현금이 돌았을 때 분명 활력이 커지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조금에 의지해서 사는 농민들만 살아남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역할과 농민들 자체 재생산이 같이 가야 하는 두 축이라고 생각한다.

김성만 저는 적어도 도시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에 만족한다. 귀농할 때 가져온 전세금 5~6천만 원으로 땅 사고 집도 짓고, 내가 지은 집에서 앉아서 박을 볼 때마다 우리 사는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한다. 빛도 지진 했지만, 자연양돈으로 옮겨가면서 열심히만 하면 생계는 뒷받침될 것 같다. 농사일로 여러 가지 고민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사실 재밌기도 하다. 창의적으로 살 수 있고, 집 짓고 나니까 뭐라도 해보겠다는 마음이 든다. 가구가 필요하면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까를 생각한다. 고민의 방식이 전혀 바뀌었다. 나중에 농사 고수가 됐을 때 우리 밭 한편에 바로 먹을 수 있는 채소를 가득 채우고 거기 밥상 차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런 상상을 하고 있다. 그런 게 농촌 삶의 매력인 것 같다.

박지은 여러분 각자가 진행하는 실험들을 응원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개개인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오늘 시간이 다른 가능성과 이야기를 만드는 하나의 시작이 되었길 바란다. 

좌담2

‘농’의 희망을 말하다

한살림 생산공동체에서 바라보는
농업의 미래와 희망



참석 | 배영태, 구장희, 이정선, 임대봉, 임홍순(산들바다공동체 인문학동아리)
정리 | 편집부

배영태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공교롭게 다 귀농자들이다. 우선 각자 귀농하게 된 계기와 시기 등 간단한 소개로 시작하면 좋겠다.

임홍순 2010년에 부안으로 귀농해 제실의 문중전답을 임대해서 관행농으로 5년 농사지었다. 귀농 전에 전국귀농운동본부 교육을 받으면서 유기농과 소농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공부도 했는데 주변에 유기농사 하는 분들을 찾기 쉽지 않았고 지역 정보도 없었다. 그러다 2012년에 생산자 한 분과 인연이 돼서 산들바다공동체(이하 산들바다)를 알게 됐다.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데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처음엔 산들바다 배추 작업 등에 참여하다가 2016년부터 새롭게 논밭을 임차해서 유기농을 시작했다.

임대봉 2017년 6월에, 시골이 좋아서 귀촌했다. 부안에서 첫 자리를 잡은 곳이 저 역시도 제실이였다. 대학에서 산악회 활동을 했고, 아내도 거기서 만났다. 졸업 후에 등산의류회사에서 5년 정도 일했는데 직접 옷을 만들어보고 싶어 옷 만드는 일도 배웠다. 아내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저 역시 산에 다니며 알게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아내가 농촌에 가서 자급자족적인 삶을 살고 싶어 했고 옷을 만들어 팔면 어느 정도 생활도 가능할 것 같았다. 딱히 농사를 지을 생각은 없었는데, 사는 제실에 딸린 전답이 6천 평 정도 있어서 그냥 놀리기 아까워 농사를 지었다. 약 치는 일을 돕다가 약 냄새도 싫고 이렇게는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농약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했다.(웃음) 그해 깨농사를 겨우 본전치기로 했다. 이후에 임홍순 형과 인연이 되어 산들바다를 알게 되었고 작년(2017년) 가을 배추 작업 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집도 공동체 회원들이 많이 계신 근처로 이사하고 논밭도 공



동체 분들 통해 임대받아서 지금 밭 1,500평, 논 10마지기 짓고 있다. 운 좋게도 다 유기 땅이라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을 텐데 들뜨기도 하지만 여러 품목을 잘 키워서 약정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도 하다.

이정선 2000년 8월에 귀농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고, 늘 시골이 좋았다. 아이들을 시골에서 키우고 싶다는 마음도 컸다. 울산에 살 때는 공업지대지만 산도 가까이 있어서 쭉이나 참나물도 뜯고 텃밭 농사도 지었다. 한살림 조합원으로 생산지 방문도 많이 다녔다. 귀농지를 알아보러 다닐 때는 보는 데마다 다 좋았지만 특히 이곳의 바다와 바다 먹을거리가 좋았다.

구장희 이정선의 남편이다. 귀농 전 조합원으로 한살림 생산지에서 2박3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생산

자분들을 보면서 ‘저런 삶도 괜찮을 것 같다’, ‘저런 길이 있구나’ 생각하게 됐다. 잘할 자신보다는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귀농을 결심했다. 농사 배우러 다니면서 한울공동체(산들바다공동체 전신) 분들과 인연이 닿았고 2003-4년 산들바다공동체 준비모임 할 때 방폐장 투쟁 등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했다. 현재 논이 8,400평, 밭이 4,000평 정도 되고, 무, 배추, 시금치 등 15품목 정도 계절별 노지작물 중심으로 농사짓고 있다. 산들바다에서 농사 규모(면적)로는 중상^{中上} 정도 되는 것 같다.

배영태 20대 후반 첫 일터가 한살림이었다. 20년 넘는 시간 동안 2~3년을 제외하고는 늘 생산지와 농업 관련 일을 했다. 점점 큰 역할을 맡고 중압감이 커져가면서, 어느 때부턴가 떠밀려 일하는 느낌, 옳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즐겁지 않고 당위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있었다. 그렇다 보니 의욕도 별로 없고, 몸도 마음도 아픈 것 같았다. 이런 상태로는 나에게나 조직, 동료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일을 그만두었다. 그리고는 애초에 해보려 했던 일(농사)을

배영태



임홍순



시작하려고 알아보던 중 이곳 산들바다에는 애기 나눌 사람도 많고 같이 즐겁게 지낼 수 있겠다 싶어서 공동체에 의뢰해 오게 되었다. 이제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작년에는 배추 따고 절이는 작업 거들면서 공동체에 스며드는 과정이 있었고, 올봄부터 본격적으로 단호박, 우엉, 쌀농사, 시금치 등 몇 가지 작물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만족스런 첫해였다. 재밌게 살고 있다.

경제적 전망과 삶의 만족

배영태 이 좌담의 주제가 ‘농의 희망’인데, ‘희망은 있는가’라고 자꾸 묻는다는 건 ‘없다’는 데 중심이 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 이야기를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도 해보게 된다. 그래서, 남들이 어찌 보든 우리 스스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얘기해봤으면 좋겠다. 희망이라는 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반영된 것일 텐데,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어떻게 사는가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우선 농사와 관련해서 농지와 소득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부터 이야기해보자.

임홍순 공동체가 주로 터를 잡고 있는 변산 쪽에서는 공동체 회원들 도움으로 논과 밭을 비교적 수월하게 얻었다. 반면 주거지는 다른 면에 있다 보니 집 주변에서도 얻으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밭은 좀 나오는데 논은 구하기 어렵다. (어르신들이 짓던 논은 어디로 가나?) 그 옆에 사는 젊은 친구, 또는 그 옆 동네 사는 젊은 친구에게 간다. 오랫동안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알고

있고 저희한테까지 오진 않는다.

희망이 있다고 하려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안정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초기에는 농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지금도 안정된 건 아니지만 공동체 선배 생산자분들 따라서 열심히 하면서, 내년 정도에는 농사 규모도 늘리고 소득도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사교육도 전혀 시키지 않아서 지출이 많지 않지만 도시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면 여러 모로 지출이 상당히 클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다.

배영대 말씀하신 경제적 부분에서의 전망도 중요한 것 같다. 그게 보이지 않을 때는 농사 규모를 늘리려는 성급한 욕심도 생기고 실패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기도 하는데,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다. 살림살이와 농사 규모를 알뜰하게 정하고, 유기농 안에서 생산성도 높여내면서 기본적인 소득이 마련되어야 일하는 자신도 행복하고 누구에게 같이 해보자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임대봉 제 경우는 운 좋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창업농 지원사업에 선정돼서 3년 동안 지원을 받는다. 첫해에는 한 달에 100만 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으로,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과 비슷하다. 그러다 보니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는데 이런 게 없

임대봉



이 농사를 시작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다. 처음 오면 사람도 많이 모를뿐더러 일하고 싶어도 못한다. 저는 다행히 공동체를 통해서 일이 많이 들어온다. (어떤 일이 들어오나?) 농사, 운송 등 되는 대로 다 하고 있다.(웃음) 개인 농사 외에 그렇게 버는 소득이 한 달에 150만 원 이상 된다.

배영태 최근에 농민 기본소득도 얘기하는데, 청년 지원금도 잘 활용되면 정착할 수 있는 기반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임대봉 청년 지원사업 필수 교육 중 하나로 좌담회에서 토론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농촌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가 주제였다. 그런데 소득에 대한 얘기만 하고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농사를 짓고 승계농이라 물려받은 게 많아도 살아가는 게 힘들구나 싶었다. 각자 알아서 생존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 그만큼 삶이나 생각의 여유가 없어 보였다. 저 역시 공동체를 벗어나서 생각하면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임홍순 앞서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 외 삶의 만족도도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원하는 일도 같이 하고 싶다. 지금은 워낙 농사 작기가 계절별로 잘 만들어져서 그 농사를 다 소화한다면 1월 한 달 정도밖에 안 쉴 정도로 여유가 별로 없다. 달리 보면 농사체계가 잘 짜여 있는 거라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개인 시간을 내기 어렵기도 하다. 익숙해지고 나면 개인적으로 즐거운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도시에 살 때는 가족들과 캠핑을 자주 다녔었는데 귀농해서는 그런 시간을 별로 갖지 못했다.

캠핑카를 직접 꾸며서 여행 다니고, 나무로 이것저것 만들어보고 싶기도 하다.

이정선 사람들이 정말 농사가 많아서 자기 시간이 안 나는 건지 농사에 빠져서 자기 시간을 안 내는 건지 궁금할 때가 많다. 우리는 사실 날라리 농사꾼이긴 하지만, 농사짓는 속에 자기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취미생활 하는 데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다. 시골에 산다는 자체, 철 따라 꽃을 가꾸는 것, 기른 농산물로 요리해 먹는 것, 그 하나하나가 재밌고 너무 좋다. 그뿐 아니라 바느질이나 염색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책 읽고 빵도 굽고 수없이 많은 걸 하고 있다. 그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농사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애들도 잘 키울 수 있었다. 공동체에서도 같이 갯살림하고 산행도 하는데, 다른 공동체에서 부러워하는 부분이다.

남들이 얘기하고 규정짓는 희망보다 생활에서 자기가 갖는 욕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돈도 필요하지만 도시에서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었는데도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이 벌지 않더라도 촌에서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걸 알고 있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였다. 무엇보다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가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임홍순 시골 생활과 농사를 잘 조율하시는 것 같아서 부럽다. 시골 생활을 충분히 즐기면서 농사일도 한다는 게 이상적인 생활인데. 농사일에 매몰돼서 그 이외의 생활은 전혀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배영태 물론 취미가 농사인 분도 계시긴 하다.(웃음) ‘못 살겠다’ ‘힘들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그게 업살만은

아닌 듯도 하다. 그렇다면 어떤 농사를 어느 정도로 짓기에 어렵고 힘든 것일까, 궁금하다. 제 경우는 논 2,400평과 밭 1,300평 정도를 공동체를 통해 쉽게 얻은 편이고 첫해 수익이 2천만 원 정도로, 앞으로 잘 가꿔 가면 지속할 수 있겠단 생각이다. 그런데 이게 나만의 경우라면, 우리(산들바다공동체)만의 경우라면, 확장해서는 한살림에만 국한된 얘기만 곤란하지 않나. 나 자신의 행복도 필요하고 중요한 얘기지만, ‘나는 이렇게 사는데 당신들은 왜...’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는 건 1년 살림살이를 알뜰살뜰 할 수 있도록 작부체계가 촘촘히 짜여 있는 이유도 있는 것 같다. 이런 모델들을 잘 만든다면, 최소한 이 정도 규모와 농사 방식으로 가능하다, 농촌에 살아봄 직하다, 이렇게 내부에서는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만 만들어진 조건인지, 확장 가능성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물음표다. 법·제도와 정책은 확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하는 만큼, 한살림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 같이 거들어줬을 때 최소한 이만큼은 행복하게 농사지을 수 있겠다는 전망을 만들어가고 나아가 국가로 확장한다면 200만 조금 넘는 농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

구장희 주변에 일반 농민들을 볼 때 농사지어서 그런대로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는 잘살고 있기도 하다. 돈 많이 벌어서 서울에 아파트 사는 정도까진 아니지만 도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등과 비교해 봐도 특별히 어렵고 힘든가, 의문이 든다. 예전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 있어서 다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던 시기가 있었는데, 70-80년대까지 많은 인구가 떠났고 현재는 필요한 적정 인구가 남은 게 아닌가 한다. 그들은 농사짓고 애들 키우면서 농지도 넓히고 나름

성공적으로 시골에 남아 있는 것 같다. 물론 여기서 더 줄어드는 것이 문제이고 그런 측면에서 어렵고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 같다.

배영태 그럼에도 도시가구 평균소득과 비교하면 농가 소득은 절대적으로 떨어진다. 60-70대 농가 경영주들을 제외한다면 평균소득 자체는 분명 다를 것이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경작하면 농민이라고 하는데, 다 같은 농민은 아니다. 이미 농외소득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다른 범주로 봐야 할 지점이 있는 것 같다. 일반 농가들의 생활 정도를 파악하고 특히 40-50대, 집중적으로 지출이 많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 시기에 적절한 소득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야만 농촌에 사람이 더 오든 아니면 늘지 않더라도 일단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다.

공동체의 협동과 참여

임홍순 개인적으로 시골에 들어와서 농사로 정착하는 과정에 굴곡과 어려움이 많았다. 어디에 길이 있는지, 가다가 끊기는 길인지 알기도 어렵다. 이후에 오는 분들에게도 그런 길을 잘 볼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다행인 것은 혼자 유기농사를 배우려고 했으면 지금도 헤매고 있겠지만 오랫동안 해온 분들에게서 보고 듣고 정보를 얻는 데서 수십 년을 버는 것 같다.

구장희 공동체 선배들의 경우도 자재나 기술도 부족한 채로 고생을 많이 했다. 이후에 품목도 늘어나고 출하체계가 생기면서 안정됐는

데, 그 시기가 10년도 채 안 된다. 저 역시 귀농해서 여러 해 동안 고생했다. 귀농해서 농사를 짓는 데도 자기 능력이 필요하다. 금방 되는 건 아니고 4-5년 정도 지나야 자기 것을 만들어가는 것 같다.

배영태 자연스럽게 공동체 얘기로 넘어가보자. 저도 이 공동체가 없었다면 혼자 이런 방식으로 농사짓기 어려웠을 거다. 장비나 기술력도 없고 생면부지 누군가한테서 땅을 빌린다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오랫동안 선배들이 잘 닦아온 덕분에 농사에 진입하는 게 수월했다. 그런데 한살림 역시 성장 시기를 지나서 정체되다 보니 공동체 안에서 기존 분들이 내어놓고 나누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결국은 이런 농사를 같이 짓고 싶어도 판로 문제가 가장 큰 장벽일 것 같다.

공동체의 또 다른 힘은 '생산의 협동'이 아닐까 싶다. 우리 공동체에서 쌀농사를 쉽게 하는 이유도 법씨 파종부터 모 기르기, 모내기를 같이 하고 수확, 건조, 출하까지 시스템이 잘 짜여 있어서다. 그 시스템 속에 편입되고 녹아들 수 있도록 상당한 협동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이정선 저도 벼농사를 공동으로 하면서 훨씬 수월해졌다. 우엉 같은 작물도 거의 품앗이로 하고 있고, 배추도 마찬가지다. 동네 사람들과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공동체에서 할 수 있어서 좋다.

배영태 품앗이는 아무래도 일을 시킨다기보다는 같이 한다는 느낌이 커서 일꾼을 얻어서 하는 것과 다르다.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결국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저도 혼자 농사지어 보니까 가능한 일과 아예 불가능한 일이 있다. 돌이, 냇이 필요한 일이 있는 거다. 마찬가지로 나 혼자

좋은 마음을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협동하고 연대하는 삶이 실현될 때 나의 행복이 배가되고 증폭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공동체 식구들 중에서도, 가령 저분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농사를 지을까 궁금한 분들도 있다. 이야기를 많이 안 나눠봐서일 수도 있지만 결이 다른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여기서 같이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임흥순 저도 많이 느꼈던 점인데, 참여하는 분들은 늘 한다. 반면 어떤 행사에 참여를 부탁했을 때 바로 안 된다, 어렵다는 대답이 오는 경우에는, 농사 이외의 다른 관계에 대해서는 맺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서운함과 아쉬움이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더 즐겁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다.

구장희 공동체 활동 가운데 책임과 의무감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해서는 규율도 필요하다. 월례회의나 공동의 일, 행사 등. 나머지 그 밖의 영역들은 자율적인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싶다. 활동 영역은 본인 스스로 즐겁게 하는 것인데,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을 활동이라고 볼 순 없을 것 같다.

이정선 그 경계가 참 애매한 것 같다.

임흥순 물론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한편으로 모든 행사나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마음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구장희 그 사람들이 특별히 혜택만 누리고 책임을 게을리한다고 보

진 않는다. 활동영역 외에 생산출하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배영태 소위 무임승차자 문제는 어느 사회나 조직이나 늘상 있다. 그들이 다수를 점하는 순간 그 조직이 건강하게 운영되기는 어려우니 최소화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활동도 보다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분명한 건 그 상태가 유지되도록 누군가 항상 애쓰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다. 어느 공동체에서나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 한살림 생산공동체들이 출하공동체라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닐까.

구장희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는 거라고 본다. 생산공동체도 출하자 모임으로 출발했던 게 사실이고, 영역이 넓어지는 과정에서 도농교류 활동이 늘어나고 의무와 참여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 기본적으로 출하를 공동으로 하면서 또한 활동 영역들이 얼마나 넓어지는가의 숙제가 계속 있는 것 같다.

구장희



이정선



그런데 한살림 생산조직의 책임 영역에 있는 어떤 이들은 회의, 도농교류, 각종 활동 등 한살림이 생산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왜 이렇게 많으냐고 얘기하기도 한다. 농사꾼이니까 농사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한살림(실무자)의 역할이 아니냐는 거다. 그런 시각은 잘못된 것이고 생산자들을 우민화시키는 거다. 개개인의 삶이 풍부해져야 하고, 그런 바탕 위에 마을 지역에서 협동하는 생산자가 되도록, 그렇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책임 일꾼들의 태도여야 한다고 본다.

임흥순 공동체 자체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고민을 거치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의 현재가 좋아 보이고 고민의 흔적도 많이 보인다. 앞으로도 그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모임들이 가지고 얘기를 모아가다 보면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배영태 그런 점에서 농촌 사회가 여전히 ‘뜨거운 사회’여야 한다고 본다. 평온하고 평화로운 것도 좋지만 공동체 안에서 더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 다만 불화나 다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이 채택되기도 하고 아직 준비가 덜 됐다면 못 하는 것도 생기고, 그렇게 애깃거리를 끊임 없이 던지고 설득하고 복돋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안 될 거야, 필요 없어, 다른 것도 바쁘데, 라는 태도보다는. 우리 공동체 또한 좀 더 뜨거워져야 여기서 보다 더 나아갈 거라고 생각한다.

희망의 확장 - 마을과 지역사회

배영태 개인적으로는 공동체에 깊숙이 젖어들다 보니 ‘마을’이 잘 안 보인다. 공동체가 필요하고 순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여기에만 매몰되면 우리가 함께 사는 마을, 동네, 좀 더 넓혀서 먼 단위나 군 단위로 확장되기 힘들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지난번 해창갯벌 정비 활동을 마을 사람들과 모여서 했는데, 뭔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 안에서 같은 일과 고민을 하는 계기가 마련되면 같이 얘기도 나누고 힘도 보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공동체 식구 중에도, 누군가는 공동체의 결속력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을이나 지역에 관심과 고민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어찌 보면 산들바다공동체도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역사회에서 자리 잡고 역할 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2018 산들바다공동체 정기총회

어쨌든 확장성을 가져야겠다. 우리가 운이 좋고 열심히 해서 지금의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는 온전할지 몰라도 5년 뒤, 10년 뒤를 본다면 우리끼리만 잘해서는 불가능한 것도 많으니까. 학교급식 등 여러 고민과 모색들도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오는 것 같다.

임흥순 제 경우에도, 공동체 활동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마을 일은 잘 모르기도 하고 자연히 참여를 잘 하지 않게 된다. 그러다 보니 관계가 안 만들어지고 관심을 안 갖게 되고 나와 다른 삶을 산다고 단정 짓게 되기도 한다. 관계의 소원함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쉽게 안 풀리는 부분도 있다. 마을 분들과 좀 더 관계를 넓히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평계 같지만 일이 바빠서이기도 하고. 솔직히 공동체 일이 더 즐겁기도 하다.

이정선 그 부분은 늘 고민거리다. 동네에서의 관계는 사실 농사일이 매개가 되어야 하는데, 농사가 다르다 보니 품앗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뭔가 해봐야겠다고 생각도 했지만 어느 정도 거기 매달리지 않고서는 쉽지 않았다. 지금은 어르신들 보면 인사 잘하고, 마을 전체 회의에 한두 번 나가고, 단호박 수확하면 좀 갖다드리는데 정도다. 그렇지만 마을에서 관광버스 타고 놀러가는 건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하는데, 동네 분들은 그게 섭섭한 듯하다. 나중에 동네에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나는 그냥 따뜻한 동네 어른 정도 되고 싶은데 여전히 간섭하려는 분들이 있어서 어렵고, 한편에는 부채감 같은 것도 있다.

배영태 옛날은 항공방제, 요즘은 드론 방제라고 할 정도로 농지가 규모화된 농가들에게 많이 넘어간 상황이다. 공간(지역) 문제가 같

이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지향하는 농업의 미래도 그 속에서 고사될지 모른다는 문제의식이 결국 마을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일로 이어지는 것 같다. 농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농사짓는 방식이 존중받고, 우리도 그분들이 열심히 농사짓는 데 대해 존중해주고, 상호 이해되고 협조가 구해지는 상황에서 확장의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임흥순 마포마을의 당산제를 공동체에서 다시 부활시켰는데, 마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 술 한잔하고 용출 같이 매면서 생기는 연대감이 대단하더라. 그런 행사를 활성화하고 다양화해간다면 마을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좋은 수단이 될 것 같다.

구장희 우리 자신들이 연중 농사에 전념하다 보니 거기에서 오는 한계가 큰 것 같다. 귀농자들이 많기도 하고,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을 해봤지만 지속적이지 못하고 토막토막인 이유가 그런 것이다. 사실 부안 지역의 사회문화단체들도 상당히 위축되어있고 파편적이다. 그래서 다들 고민이다. 우선은 해창장승벌보존활동, 소녀상건립추진, 학교급식 등 눈에 보이는 일부터 서로 열심히 하는 게 좋겠다. 공동체의 조직문화도 조금씩 바뀌가고, 그러면서 서로 힘을 받고 지역 인적자원의 네트워킹이 강화되다 보면 더 좋은, 재미있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도시와 농촌에서 같이 만드는 농업의 희망

배영태 농업의 희망이 있으려면 또한 95% 도시민들의 연대와 도농 간 협동이 분명 뒷받침되어야 한다. 농업의 가치에 대해, 특히 유기 농업과 생태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내는 사람들과 같이 가야 하는 거다.

임흥순 도시 사람들이 직접 보고 들어야만 희망이 있는지 절망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보려면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한살림의 경우 도농교류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지만, 농촌과 농업이 왜 필요한지를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도 농사를 짓고 있는 농사꾼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

임대봉 우리끼리만 얘기해서는 전달되지 않는다. 버스킹 형식의 노래나 공연으로 농사짓는 이야기, 농촌에 사는 목소리를 내봤으면 한다. 흘러가는 소리라도 들을 수 있게, 사람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내용으로. 내 장바구니에 든 게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고 단지 가격 맞으니까 사는 게 아니라 ‘왜’가 중요한데, 그 ‘왜’를 알려주는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임흥순 매스컴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을 트랙터 끌고 올라가는 데모꾼으로 매도해서, 자기 목소리만 내는 사람들이라는 편견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임대봉 방식을 좀 더 부드럽게 바꿀 필요가 있다.

이정선 교육에서 농업의 가치, 자연의 가치, 먹거리의 중요성이 얘기되어야 한다. 인식 전환이 함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다. 지금 기본소득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기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직불제도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먹거리 교육을 통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고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장희 우리 마을의 경우, 은퇴 귀촌자들이 많다. 마을 출신들이 한두 명씩 돌아오고 마을의 문화도 그 사람들 중심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등 변화가 있지만 그 덕분에 마을 규모는 좀 커졌다. 결국 사람이 자꾸 와서 농사 짓고, 농사 안 짓더라도 근처에서 이해하면서 모여 사는 게 농업의 희망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살림에 바라는 내용도, 생산공동체를 풍성하게 하고 사람 늘리고 마을 만드는 일들을 고민하고 만들어갔으면 하는 거다. 재정적 측면을 포함해서 귀농학교 등 여러 미션이 있을 것 같다.

배영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한살림에 기대지 않았다면 안정적으로 귀농하기 어렵고 엄두도 못 낼 수 있다. 그나마 기본 약정 시스템 안에서 최소한의 기반이 만들어지니까 가능한데, 한살림이 고도성장 시기가 지나고 이제 제로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에서 기존 시스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거다. 산들바다도 한살림만으로는 새 식구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고. 부안군이나 공공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고민도 있어야 할 것 같다. 법/제도도 분명 구비되어야 한다. 청년창업농 지원정책처럼, 결국 살 법하다고 만들어주는 게 제일 필요한데 그건 일정 소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본다.

구장희 그 역할을 한살림이 하면 안 될까. 기금을 조성해서 청년, 또는 실무자나 조합원 출신이 생산공동체로 귀농할 때 기본소득을 몇 년간 보장한다든지 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배영태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우리 (농민, 공동체)는 우리대로 의미 있는 일들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살림(생산자연합회)은 자기 쌈짓돈 털어서 후계농 키우는 시스템인데, 조합원들도 그 몫을 같이 해나갔으면 한다.

임대봉 근처 변산공동체 회원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공동체학교 학생들이 자주 보는데, 고등학교 2,3학년 친구들 보면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여기서도 짬뽕공예나 직조 같은 여러 가지를 배우지만 정작 먹고살려고 보니 고민이 시작되는 거다.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사회에 나가도 기존에 배웠던 것과 전혀 다른 생각들과 부딪히고 힘들어한다. 지역 안에서라도 이 친구들이 먹고살 수 있게 돕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는 변산 청년모임에서 고추협업농장을 하려고 한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일단 시범적으로, 매뉴얼도 만들어서 누구나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끔 해보려는 계획이다. 빵집도 내보려고 하고, 굳이 농사가 아니어도 지역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구상을 하고 있다.

임홍순 ‘농’의 희망이란 농업 농촌 자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결국 농사를 짓는 사람, 농민 개개인이 행복한지를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자기 일을 즐기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면

에서 보면 참 행복하다. 아내가 매일매일 겨울 찬바람을 맞으며 시금치를 수확하면서도 그 일이 참 재밌다고 하니, 이번에 수능을 치른 아들이 시금치 포장을 돕다가 “그것이 천직”이라고 말해서 식구들이 다 같이 웃었다. 원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행복한 것 아닐까.

이정선 결국 행복은, 희망은 자기주도성에 있는 것 같다. 우리가 행복한 것도 농사를 즐기고 있고 스스로 그걸 찾았기 때문이다. 농사짓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건 아닌 것 같다. 행복의 조건이나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임홍순 농사나 농사짓는 사람에 대해 낮은 가치를 두는 경우도 많다. 특히나 원래 농사를 짓고 있던 동네 어르신들이 그렇다. 귀농하니 사업이 망해서 왔다고 생각하더라.

배영태 연령대별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40~50대에서도 그런 경향이 더러 있는 것 같다. 조금 선부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아직은 매일 내 손으로 직접 시금치를 수확하는 것이 참 신비롭다. 그런데 보통은 농업을 이야기할 때 경제성이나 생산성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몸을 쓰는 노동이라기보다 다른 노동력을 쓰는 경영의 관점이 강하다보니 노동하는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부리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농사 잘 짓는 기준을 말할 때 다른 데서 품 파는 것보다 농사 수입이 더 많은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품을 파는 정도로 충분한 듯도 싶다.

임홍순 연령대별로 조금 다르다는 데 공감이 된다. 초등학교 정도 아이들은 긴 머리를 질끈 묶은 내 모습을 보면 “오~자연인이다~”라

고 말한다. 매스컴의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단순히 외모를 보는 시각도 어른들과 많이 다르다. 마찬가지로 예전에 부모님들이 힘들어 하며 농사짓는 모습을 봤던 사람은 왜 어렵게 농사를 짓느냐고 보는 시각이 있고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또 다른 느낌으로 보는 것 같다.

임대봉 그래서 버스킹을 이야기했던 것이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농촌도 살 만하다, 도시 삶보다 스트레스 덜 받고 농사도 지을 만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그러면 농업에 별로 관심 없던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야 하고 궁금해하지 않을까.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려와서 같이 시금치 작업을 해 본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농”에 대해서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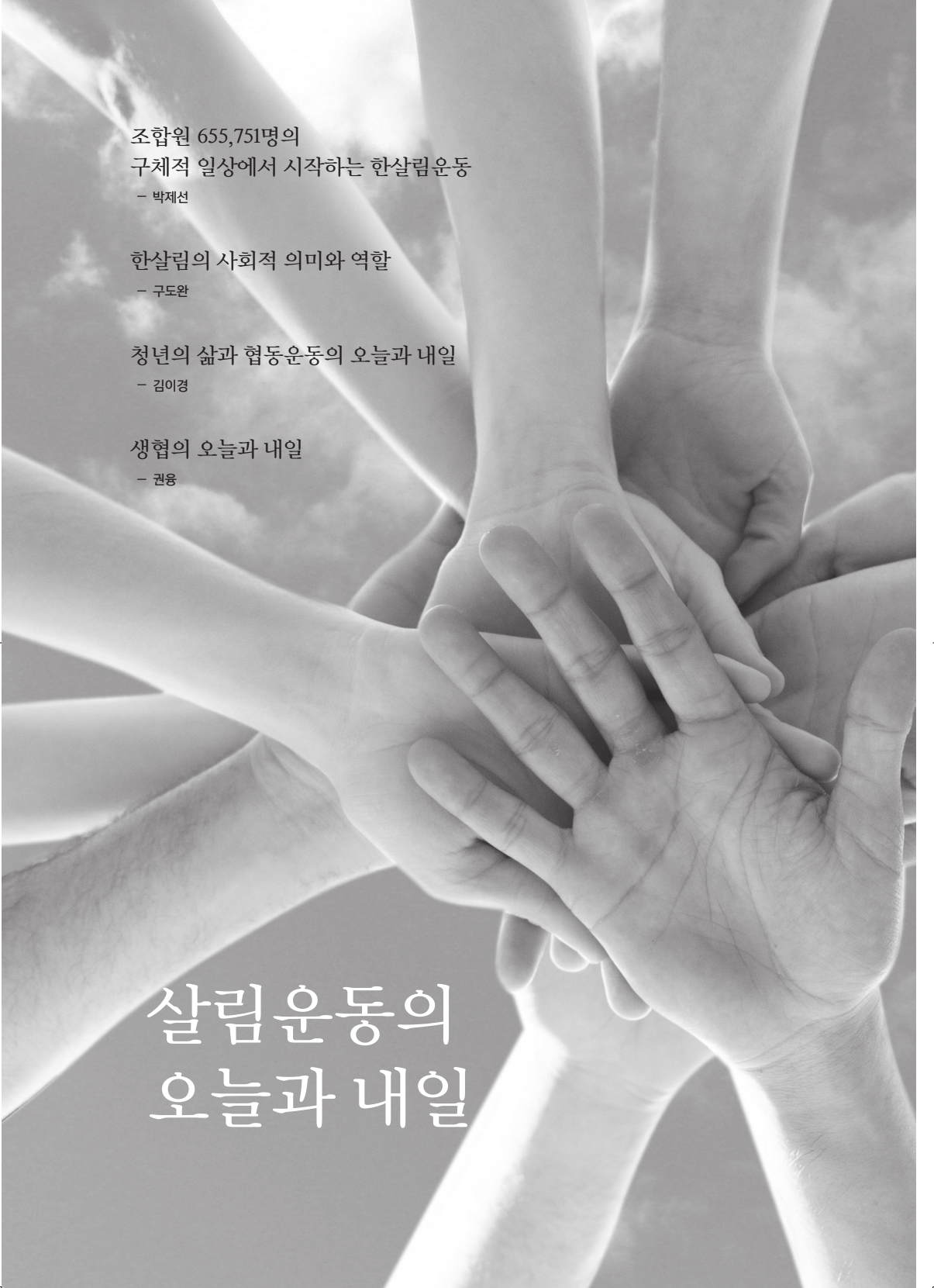
임홍순 엇그제 TV 프로그램에서 마을 안에 공동의 공간을 만들고 사람들이 재밌게 서로 어울려 사는 모습을 봤다. 앞으로는 그런 다양한 모습을 갖춘 마을이 많이 나타날 것 같다. 우리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 차도 마시고, 탁구 치고, 책 보고, 각자의 취미나 재능을 나눌 수도 있을 것 같다.

배영태 농촌의 문제란 결국 개인이나 공동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과 밖에서 풀어야 할 제도나 정책, 법의 차원들이 다 얹혀 있을 텐데, 다행히 우리 안에서는 ‘농촌이 살 만한 곳’이고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다. 오늘 시간이 농민으로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공동체와 사회로의 확장에 대한 고민까지 폭넓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 

모심과 실림

특집





조합원 655,751명의
구체적 일상에서 시작하는 한살림운동

- 박제선

한살림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

- 구도완

청년의 삶과 협동운동의 오늘과 내일

- 김이경

생협의 오늘과 내일

- 권용

살림운동의
오늘과 내일

조합원 655,751명¹⁾의 구체적 일상에서 시작하는 한살림운동

‘2018 전국 한살림 조합원 의식조사²⁾’ 결과와 시사점

박제선 모심과살림연구소 사무국장. parkjesun@hansalim.or.kr

모심과살림연구소는 지난 7월 한살림연합과 함께 ‘2018 전국 한살림 조합원 의식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2014년에 이어 4년 만에 시행한 조사로, 한살림 조합원의 생활양식을 확인하고 조합원 활동·물품·한살림 가치 공감 등 조합원의 한살림에 대한 생각과 기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 글에서는 조사 결과를 요약해 소

1) 2018년 10월 기준 전국 한살림 조합원 세대

2) · 조사기간: 2018년 7월 9일~30일·조사방식: 이번 설문은 동일한 설문문항으로 ‘모바일 및 온라인 자기기입식 조사’, ‘한살림 매장 방문 조합원 자기기입식 조사’, 23개 지역생협 조합원 대표들이 수행한 대면조사라는 3가지 방식을 병행했다.

· 표본 선정: 조사는 한살림 전체 조합원 630,574명(2018년 4월 30일 기준)을 대상으로

① 지역생협 → ②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물품 이용횟수(최소 1회 이상 물품 이용 조합원 465,655명) → ③ 연령대를 기준으로 70,712명을 표본으로 층화 표집했다.

· 응답자: 조사에는 모두 11,718명이 참여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부실한 응답을 제외한 11,109명 중에서 표본에 포함된 응답자는 9,561명으로 이들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비표본응답자는 1,548명이었다.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한계는 $\pm 0.34\%$.

개하며, 특히 두드러지는 변화 지점과 사회 일반과 구분되는 특징, 한살림운동에의 제언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저출산 고령화는 한살림 조합원 구성에도 영향을 미쳐

저출산 고령화라는 한국 사회의 큰 흐름은 한살림 조합원 구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한살림 물품을 1회 이상 이용한 조합원의 평균 연령은 48.1세로 나타났다. 2014년 전체 조합원 평균 연령 46.3세보다 1.8세 증가했다.

2017년 기준 전년 대비 11.5% 증가했던 신규 조합원 가입 증가율은 2018년에는 3.0%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한살림을 주로 시작하는 연령대인 30대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년 전보다 3.9% 감소했다.

30대 조합원의 비율이 줄었다는 것은 30대가 예전보다 한살림에 덜 찾아온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면 30대 조합원이 줄어드는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한국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는 연령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4인 가족을 일반화해 접근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결혼과 출산은 조합원의 인생 과정에서 한살림을 비롯한 생협에 참여하는 큰 계기다. 그런데 우리 사회 여성 일반의 평균 초혼 연령은 2014년 29.81세에서 2017년 30.24세로 늦춰졌다³⁾. 자연스럽게 첫째 아이 출산 연령도 4년 전 31.0세에서 31.6세로 늦어졌다⁴⁾.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 현상이 신규 조합원 가입 증가세를 주춤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3) 통계청, <시도별 평균초혼연령>, 2018년 3월

4) 통계청, <2017년 출생 통계(확정)>, 2018년 8월

<표1> 한살림 조합원의 연령대별 비율 변화 (단위: %)

구분		2018년 모집단 5)	차이	차이
20~29세		0.8	1.2	-0.4% p
30~39세		22.8	26.7	-3.9% p
40~49세		37.3	39.5	-2.2% p
50~59세		23.4	21.7	+1.7% p
60세 이상		15.7	10.8	+4.9% p
	60~69세	11.6	10.8	
	70세 이상	4.1		
무응답		0.0		
전체		100	99.9	

30대 조합원의 물품 이용 감소, 한살림에 매력을 덜 느껴서?

30대 조합원 비율이 감소한 다른 이유는, 한살림을 시작했어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살림에 매력을 덜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30대 조합원의 물품 이용액 감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30대 조합원의 물품 이용액은 7.3% 포인트, 물품 이용 건수는 9.2% 포인트 감소⁶⁾했다. 40대 조합원의 물품 이용액과 물품 이용 건수도 감소했다. 50대와 60대, 70대 이상 조합원의 물품 이

5)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회 이상 물품을 이용한 조합원 465,655명을 말한다.

6) 한살림 통합 정보 시스템 '살림e'

용이 늘어난 것과 비교된다. 10년 전만 해도 한살림 정도로 신뢰를 보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 선택지가 많아졌다. 한살림은 ‘여럿 중 하나’로 자리가 달라졌다. 한살림의 미래를 위해 젊은 세대의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4년 전보다 전업주부와 4인 가족 비율 모두 감소

한살림 조합원 가구라 하면 보통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4인 가족을 떠올린다. 그런데 4년이라는 시간은 이러한 한살림 조합원 가구 구성에 변화를 가져오기에 충분했다. 먼저 4년 전과 비교해 조합원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달라졌다. 전업주부 조합원은 56.3%에서 50.3%로 6.3% 포인트 감소했다. 4인 가족 비율도 42.2%에서 34.7%로 줄어들었다. 3인 가족과 2인 가족은 4년 전보다 소폭 증가했다. 특이점은 55세 이상 조합원의 2인 가족 비율이 24.7%, 60세 이상 조합원의 1인 가족 비율이 15.9%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55세 이상’부터 자녀의 진학, 취업, 분가 등으로 ‘빈 둥지’가 늘어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4년 전과 비교해 조합원 가족 구성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물론, 여전히 사회 일반의 4인 가족 비율 17.7%⁷⁾보다 한살림 조합원의 4인 가족 구성비가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조합원의 평균 가구원 수도 3.3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의 3.33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사회 일반 평균 가구

7) 통계청, <2016년 인구총조사>

<표2> 연령대별 한살림 조합원의 가족구성원 비율

구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인 가족	3	21.4	21	21	77	11	104	5.4	109	5.6	98	5.7
2인 가족	2	14.3	24	24	121	17.4	229	11.8	193	9.9	233	13.4
3인 가족	5	35.7	24	24	261	37.4	645	33.3	584	29.9	466	26.9
4인 가족	4	28.6	21	21	170	24.4	709	36.6	793	40.5	727	41.9
5인 가족			4	4	44	6.3	147	7.6	193	9.9	151	8.7
6인 가족			1	1	15	2.2	65	3.4	47	2.4	30	1.7
7인 가족 이상			5	5	9	1.3	39	2	37	1.9	29	1.7
전체	14	100	112	100	697	100	1,938	100	1,956	100	1,734	100

구분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세 이상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인 가족	93	8.0	87	9.6	92	15.9	60	21.6	47	24.6
2인 가족	162	13.9	223	24.7	204	35.2	114	41	73	38.2
3인 가족	310	26.6	246	27.2	138	23.8	64	23	36	18.8
4인 가족	486	41.7	264	29.2	99	17.1	23	8.3	15	7.9
5인 가족	79	6.8	62	6.9	30	5.2	7.0	2.5	9	4.7
6인 가족	26	2.2	13	1.4	12	2.1	7.0	2.5	8	4.2
7인 가족 이상	10	0.9	9	1.0	5	0.9	3.0	1.1	3	1.6
전체	1,166	100	904	100	580	100	278	100	191	100

* 4인 가구는 '40~44세', '35~39세', '30~34세' 연령대에 많다. 2인 가구는 '55~59세' 연령대부터 크게 늘기 시작하고, 1인 가구는 '60~64세' 연령대부터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특이점이다.

원 수 2.5인보다는 여전히 많다. 그리고 ‘2015년에서 2018년’에 가입한 조합원의 경우 절반 이상(51.6%)은 ‘7세 이하 영유아 자녀가 있고, 22.3%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을 경험한 후 한살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봐야 한다. 현재까지 한살림 조합원들이 사회 일반보다 가족공동체적 특성을 많이 나타내기는 하지만,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할 것이다.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라는 큰 흐름을 비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한살림 조합원은 ‘밥 운동’을 하는 사람들

한살림운동이 밥을 매개로 하는 ‘밥 운동’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도 있었다. 응답 조합원의 10명 중 6명(58.4%)은 아침밥을 매일 먹는다고 응답했다(<표3>). 또한, 조합원 10명 중 7명(67.9%)은 하루에 1시간 이상 요리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요리에 시간을 쓰는 만큼 식료품을 구매하는 횟수도 많았다. 조합원의 절반 이상(51.6%)이 1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장을 본다고 응답했다. 이는 사회 일반 조사에서 나타난 39.2%⁸⁾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아침을 잘 챙겨 먹고, 요리를 많이 하는 한살림 조합원의 특성은 사회 일반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다.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식품소비행태조사>

<표3> 한살림 조합원의 '1주일 아침 식사 횟수'와 사회 일반 아침 식사 결식률 비교

구분	2018 한살림 의식조사 (%)							2016년 사회 일반 아침식사 결식률 ⁹⁾ (%)		
	없다	주 1회	주 2~3회	주 4~5회	매일	무응답	빈도	여성	남성	전체
20~24세	7.1		21.4		71.4		14	49.9	55.1	52.6
25~29세	30.0	10.0	12.0	14.0	34.0		100			
30~34세	15.9	9.3	23.0	19.1	32.7		697			
35~39세	7.3	6.2	18.3	18.7	49.4		1938	23.7	34.4	29.2
40~44세	3.9	4.3	15.7	18.4	57.6	0.1	1956			
45~49세	4.6	3.5	12.6	17.1	62.0	0.2	1734			
50~54세	3.5	4.1	12.8	16.3	63.2	0.1	1166	15.5	17.1	16.3
55~59세	4.4	2.3	12.3	13.4	67.3	0.3	904			
60~64세	3.6	1.2	9.8	9.5	75.5	0.3	580			
65~69세	4.3	3.2	6.1	8.3	77.7	0.4	278	8.7	5.4	7.3
70세 이상	4.2	0.5	5.8	7.9	80.1	1.6	191			
전체	5.9	4.5	14.7	16.4	58.4	0.2	9,561	26.4	32.1	29.6

9)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아침식사 결식률 추이>, 2016년. 사회 일반 아침식사 결식률은 조사 1일 전 아침식사를 결식한 비율로 한살림 조합원 의식조사에 나타난 결식률('없다')고 바로 비교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다만, 사회 일반과의 결식률 추이를 비교하기 위해 인용했다.

조합원이 일상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한살림운동, 물품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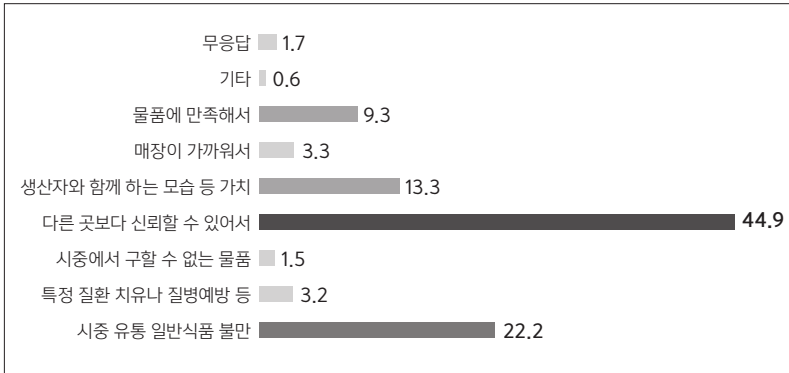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서 한살림 조합원이 사회 일반보다 밥에 관심을 두고 책임감을 느끼는 훌륭한 생활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한살림운동은 조합원이 일상생활에서 밥상살림을 실천하며, 자연스럽게 농업살림과 생명살림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조합원의 물품 이용은 한살림운동의 시작이자, 가장 기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살림 물품이 한살림 가치를 실현하고 조합원의 생활 속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65만 조합원을 하나의 덩어리로 바라보지 말고, 연령과 사는 곳 등 조합원의 생활에 기반해 조합원이 처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조합원 생애 주기에 따른 생활 속 필요의 충족’이 물품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런 인식에서 조합원에게 한살림 물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물론, 조합원 필요 충족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고 농업과 생명을 살리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한살림 물품 이용 이유 1위는 ‘신뢰’

한살림 조합원들이 한살림 물품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뢰’로 나타났다(<그림1>). ‘다른 친환경 식품 판매처(다른 생협 포함)보다 신뢰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44.9%에 달했다. 다음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식품이 불안해서’라는 응답이 22.2%로 뒤를 이었다. 시중 식품에 대한 불안감은 한살림 물품에 대한 ‘신뢰’로 해석할 수 있

<그림1> 한살림 물품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응답: 9,561명)



다. 응답 조합원의 67.1%가 한살림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신뢰를 꼽은 것이다. 조합원들이 보내는 신뢰는 한살림의 큰 자산이다.

물품 이용 최우선 개선점 1위는 ‘결품 해소’

물품 이용이 한살림운동의 기본이라고 할 때 한살림 매장에서 가장 필요한 개선점으로 조합원의 27.6%가 ‘물품 부족 방지’를 꼽은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한살림 조합원들은 채소(31.2%), 우유·유정란(22.4%), 반찬 재료(15.5%) 순으로 물품에 만족하는데, 한살림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과일(15.8%), 채소(14.7%), 축산물(14.2%) 등 1차 농축산물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농산물과 축산물을 이용하기 위해 한살림 조합원이 되지만, 한살림 안에서 모든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4년 전에 56.3%에 달했던 농산물에 대한 물품군별 상대적 만

족도¹⁰⁾가 채소 31.2%, 과일 3.3%로 낮아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3.3%에 그친 과일 만족도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표4> 물품 이용액별 한살림 가치에 대한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조합원의 비율(단위: %)

구분	1만원 미만	5만원 미만	10만원 미만	20만원 미만	30만원 미만	4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60만원 미만
우리 농업을 지키는 곳	28.4	33.1	39.6	44.1	47.0	52.2	60.7	59.4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곳	30.1	33.5	39.7	42.9	44.2	49.0	55.2	53.8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곳	23.7	26.2	30.0	33.7	33.6	34.2	40.0	36.4
조합원이 출자·이용· 운영하는 협동운동 조직	28.3	30.4	35.1	40.2	38.7	45.4	47.3	50.0
건강한 먹을거리를 나누려고 노력하는 곳	34.2	38.7	43.6	47.9	50.1	52.7	55.7	55.9
환경과 생태계를 지키는 사회실천 활동 열심히	30.1	32.5	36.4	39.4	39.3	42.4	45.3	42.0

* '70만원 미만' 구간부터 '100만 이상' 구간 조합원은 응답자 수가 적어서 생략함.

10) 채소류, 과일류, 축산물, 수산물, 생활용품 등 물품군을 나열한 후 '만족하는 물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질문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만족도'가 아닌 물품군별 상대적 만족도로 바라봐야 한다. 또한, 2014년 의식조사와 비교해 문항에 차이(2014년 농산물 → 2018년 과일류, 채소류 구분)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에서 한살림 물품 이용액이 많을수록 한살림 가치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공감하는 조합원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4>). 이를 반대로 한살림 가치에 공감하기 때문에 물품을 열심히 이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한살림운동의 성과는 물품 이용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결국 물품 이용은 한살림운동의 시작이자 기본이 되는 활동이다.

활동 참여 조합원들이 한살림 가치에 더 공감하게 하는 조합원 활동의 힘

조합원은 물품 이용으로 시작해 마을모임과 같은 조합원 활동에 참여하면서 한살림생협의 한살림 운동가로, 그리고 지역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는 성장경로를 밟아간다. 지난해(2017년) 조합원들의 26.7%가 마을모임, 지역 소모임, 한살림 총회, 교육과 강좌 등 다양한 조합원 활동에 참여했다. 재미있는 지점은 조합원 대표들과 얼굴을 알고 지내는 조합원(비표본 응답)의 활동 참여율이 88.6%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얼굴이 보이는 조합원 활동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전체 조합원(표본 응답자)의 73.3%가 조합원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지점에서 조합원 활동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확인한다. 참여하지 못한 조합원의 절반 이상(56.1%)이 직장·육아·가사 부담으로 시간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들이 마음 편히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원 활동의 내용, 참여 방식 등에서 혁신이 필요하다. 현재는 주로 전업주부를 주요 참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

는데, 개최 시간을 옮길 수도 있고 조합원이 참여하고 싶은 내용을 확인해 활동 내용을 다양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시간이 없을 뿐 아니라, 어린아이를 데리고 집 밖을 나서기 어려운 조합원이 시간적·물리적 한계를 넘어 한살림 조합원이라는 소속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커뮤니티로 조합원 활동 공간의 범위를 넓힐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조합원 100명 중 13명(13.4%)이 조합원 활동 정보를 몰라서 참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조합원 활동과 관련한 조합원과의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

달라진 조합원 생활에 맞춘 참신한 조합원 활동이 많아져야

조합원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조합원 활동은 한살림운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살림’,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와 같은 한살림 가치에 공감하는 비율은 조합원 활동 참여 경험에 있는 조합원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를 조합원 가입 기간별로 확인하면 더욱 확연해진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한살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한살림 가치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비율이 함께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결과를 확인했다. 2002년 이전에 가입한 조합원보다 2003년과 2006년 사이에 가입한 조합원의 적극적 공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유는 해당 연도에 가입한 조합원의 조합원 활동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¹¹⁾. 물품 이용으로 시작해서 조합원

11) ‘2003~2006년’ 가입 조합원의 ‘조합원 활동’ 참여 비율은 34.5%로 나타났다. 이는 ‘2015~2018년’ 23.4%, ‘2011~2014년’ 26.6%, ‘2007~2010년’ 29.5%는 물론, ‘2002년 이전’ 29.6%와 비교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5> 가입기간별 한살림 가치에 대한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조합원의 비율(단위: %)

구분	2002년 이전	2003~ 2006년	2007~ 2010년	2011~ 2014년	2015~ 2018년
우리 농업을 지키는 곳	43.0	43.7	40.0	38.9	38.3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곳	40.7	42.9	39.0	38.7	38.0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곳	26.4	32.2	28.6	28.9	30.8
조합원이 출자·이용· 운영하는 협동운동 조직	36.5	38.0	36.7	34.9	34.6
건강한 먹을거리를 나누려고 노력하는 곳	43.2	47.1	42.7	42.6	43.7
환경과 생태계를 지키는 사회실천 활동 열심히	35.7	38.9	35.0	34.9	36.9

활동에 참여하면서 한살림 가치에 더욱 공감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인구구조 변화 등 달라진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조합원의 의식과 생활양식을 확인하고, 그들의 생활 속 필요를 충족하면서도 의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참신한 조합원 활동이 많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조합원을 한살림생협의 주인으로 세우는 교육과 훈련

한살림생협은 생활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그런데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조합원은 14.1%로, 다른 가치에 대한 공감과 비교해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살림생협의 주인이 조합원이라고 할 때 조합원을 주인답게 만들려면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다. 조합원을 주인으로 세우는 협동조합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과정은 조합원 가입, 마을모임 등 기초조직 참여, 대의원, 위원회, 이사회까지 연결되는 조합원 활동과정별 교육과 연결해 한살림 운동가를 길러내는 과정으로 복합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조합원을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시키는 지역살림

또한, 지역살림운동에 대한 조합원의 공감도도 ‘농업살림’, ‘생산자와 소비자’와 함께와 같은 가치보다 떨어졌다. 시민들이 정주하지 못하고 표류하며 살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정이 들어야 마을과 동네, 이웃 주민이 눈에 들어올 것 아닌가. 마을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으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한살림지역생협이 지역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지역사회에서 신망을 높이는 한편으로, 한살림 운동가를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시킬 수 있다.

조합원의 구체적인 생활에서 한살림운동의 활력을 찾자

지난 30년, 한살림운동은 성공적이었다. 한살림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말하면서, ‘밥상살림’이라는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한살림운동의 선구자들은 부엌에서, 동네에서 평범한 동료 시민인 조합원들과 수다를 떨며 조합원의 말을 경청하고 생활을 살폈다. 조합원의 생활을 살피는 섬세함은 생명살림이라는 끈으로 연결된 생산자와의 협동과 만나 조합원의 생활 속 필요를 충족시키는 활동과 사업으로 나타났다. 평범한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이 생명을 살리는 우주적 각성으로 연결되는 경이로운 역사를 조합원과 조합원 활동가, 한살림 조직의 터를 닦은 실무자, 생명농업을 일궈온 생산자들이 함께 써왔다. 조합원들은 구체적인 생활 현장에서, 생산자들은 생산 현장에서 한살림운동을 만들어 온 것이다.

이번 ‘2018 전국 한살림 조합원 의식조사’가 조합원의 구체적인 생활 현장과 생산자들의 생산 현장을 연결하는 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살림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기획위원장. 환경운동, 대안적 발전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한국 환경운동의 사회학』, 『마을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생태민주주의』 등이 있다. dwku2@hanmail.net

시장, 민주, 그리고 생명

1987년에서 2018년에 이르는 30여 년 동안 한국 사회를 관통한 두 가지 흐름을 든다면, 시장화와 민주화라고 말할 수 있다.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개념으로 말하면, ‘자기규제적 시장’이 사회와 자연을 지배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사회는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며 ‘민주화’를 통해 사회와 자연을 지키기 위한 ‘자기보호 운동’을 벌여왔다.

한살림은 시장화와 민주화의 큰 흐름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운동

을 일관되게 해왔다.¹⁾ 이 운동은 민주화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나 그것으로 환원할 수 없고, 환경운동과 비슷하지만 철학과 운동방식이 다르며, 협동조합이라는 틀을 갖고 있으나 ‘협동’과 ‘조합’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공업 문명에 바탕을 둔 시장화의 흐름 속에서 ‘생명’을 중심에 놓고 민주주의를 성찰하고 재구성한 운동이 한살림운동이다.

우리나라에서 민주화운동이 불타오르던 1986년에 ‘한살림농산’이라는 쌀가게가 생겼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에 ‘한살림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런 역사적 사건들의 흐름 속에서 한살림운동은 민주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사회제도를 넘어서서 ‘우주적 생명’에 대한 각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명,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 거대한 전환 기획으로 출발했다. 이로부터 30년 후, 2017년 1월에 한살림은 30주년을 맞아 「한살림, 새로운 30년 비전을 묻다: 한살림 30년 비전 제안 보고서」라는 보고서(아래에서 비전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한살림이 그간 한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자세하고 풍부하게 담고 있다.

이 글은 30여 년의 역사 속에서 한살림의 사회적 의미를 검토하고 미래의 사회적 역할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살림 30년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앞으로 한살림이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토론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제보다 나은 한살림, 어제와는 다른 사람, 다른 사회가 생겨날 것이다.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기획위원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한살림

1) 여기에서 한살림은 협동조합 한살림은 물론 한살림모임, 모심과살림연구소 등 한살림운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모든 조직과 사람들을 포함한다.

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주제를 놓고 여러 차례 모여서 깊이 있고 폭넓은 토론을 나누었다. 한살림이 우리 사회에서 해 왔고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여러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실천이 풍부해지고 성숙해지며 확장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 글은 이런 공동 작업의 일부이다. 우리의 작업이 곧 여러 독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살림의 사회적 의미 돌아보기

한살림은 우리 사회에 생명과 살림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그 가치를 바탕으로 협동운동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살림은 1985년 원주 소비자협동조합, 1986년 한살림농산과 같이 작은 유기농 직거래 운동조직으로 시작하여 2018년 현재 60여만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한국 최대 규모의 생협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열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소득 증가 등의 외부적인 요인도 들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한살림 사람들의 진지하고 성실한 헌신과 그것이 만들어낸 사회적 신뢰의 힘을 들 수 있다.

한살림운동의 핵심을 거칠게 요약하면 '생명을 살리는 협동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상에 협동조합과 협동운동은 많지만 '우주적 생명'의 관점에서 '살림의 문명'으로 전환한다는 거대한 전환을 목표로 하는 대중적 협동운동은 매우 드물다. 다른 한편으로 깊고 심오한 가치와 담론을 지향하는 집합적인 움직임은 많지만 이런 가치 지향 운동이 생활의 문제와 접합되어 실용적이고 대중적인 경제

조직이자 결사체로 성장하여 제도화되고 발전한 사례도 흔하지 않다. 달리 말하면 한살림은 생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선물을 주고받듯이 생산물을 주고받는 대중적 협동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교환에 중앙은행의 화폐가 매개로 기능하지만 여기서 화폐는 가치의 증식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사용 가치를 교환하기 위한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수단에 가깝다.

한살림의 초창기에 이런 ‘생명운동’의 특성은 매우 강했고, 참여자들의 정서적 유대감도 매우 강했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의 생산자, 소비자, 실무자들은 새로운 가족처럼 먹을거리를 나누며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조합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바뀌면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판매하고 구매하는 또 하나의 슈퍼마켓’처럼 인식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조직이 성장하고 제도화되면서 조합원 활동가, 실무자, 생산자, 조합원, 경영자 등 다양한 자리에 따라 다양한 필요와 욕망이 분화되었다.

그러면 한살림운동이 지향하는 밥상·농업·생명·지역살림과 문명 전환이 지난 30여 년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자. 첫째 밥상살림 운동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는 방사능 문제에 집중하여 자체 검사를 강화했고 이를 조합원과 꾸준히 소통해서 신뢰를 쌓았다. 이러한 사회적 신뢰는 한살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커다란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농업살림 운동은 2,000여 세대 생산자들의 연합체가 생기고 이 농민들이 생활과 생존을 지탱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튼튼한 물류와 사람들의 연결망을 형성해 자립의 기반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점은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

나 유기농과 관행농의 구분이 형식화·제도화되면서 또 다른 구별을 낳고 이것이 농업과 농촌을 모두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구별에 의한 상품화로 귀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지구적인 시장화와 공업화의 흐름 속에서 농업살림 운동은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셋째, 지역살림 운동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많이 논의되었으나 한살림이 주도해서 지역을 전환시킨 사례는 드물다. 한살림운동은 ‘우리끼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이 잘 살고,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운동이다. 한살림 안에서는 ‘우리들끼리’ 행복한데 밖으로 나가면 무서운 경쟁 사회가 그대로 있다면 지역살림 운동은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살림이 주도하여 지역순환농업을 추진하고, 한살림이 지역 내 사회운동의 중심이 되는 지역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살림은 한살림 안에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고 이를 확장하는 데 자원을 집중해 왔고, 지역사회를 전환하고 살리는 데에는 관심과 자원을 쏟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생명살림 운동은 인간은 물론 모든 생명, 더 나아가 ‘우주적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다. 이 운동의 목표는 매우 크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평가하기 쉽지 않다. <한살림 선언>에 의하면 생명은 유기체로 표상되고 생명살림은 죽임의 문명, 즉 기계 문명을 넘어서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좁게 보면 자연을 살리고 개별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고, 넓게 보면 한살림의 밥상·농업·지역살림이 모두 생명살림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동안 한살림은 수돗물 불소화 반대운동, GMO 반대운동, 탈핵운동, 햇빛발전소 설립 등 생명을 살리기 위한 운동에 참여해 왔다. 이런 운동 사례들은 한살림이 ‘우리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지구를 살리는 데 기여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모심과살림연구소는 생명운동의 담론과 가치를 심화시키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런 활동들의 성과는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생명 담론이 우리 사회에 넓게 퍼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한살림은 우리 사회의 생명 담론의 흐름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살림운동은 작은 쌀가게에서 시작해서 60만 조합원의 생협으로 성장했다. 생명을 살리는 농부들을 도시의 소비자들과 연결하여 살림의 공동체를 만드는 작은 실험이 거대한 조직으로 제도화되었다. 증산을 위해서는 화학농법을 써야만 한다는 국가 담론을 ‘친환경 농업’ 중심으로 바꾸어 농업의 레짐regime을 전환시켰다. 생명과 평화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나 공감할 정도로 사회 전체의 문화도 바뀌었다.

그러면 죽음의 기계문명, 산업문명에서 생명의 새로운 문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수백 년의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문명의 전환을 30여 년의 시간 범위에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그 의미를 평가한다면, 한살림의 담론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관점과 문제 틀을 제기한 것은 분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성장, 산업주의, 인간중심주의에 빠져 있을 때 생명의 관점에서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문명전환의 담론을 제안한 것은 미래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살림이 나아갈 길: 비전 보고서

한살림은 2016년에 창립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30년을 내다보는 ‘한살림 30년 비전위원회’를 만들고 수많은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었고, 2017년에 비전 보고서를 발간했다.²⁾ 한살림 비전 보고서는 ‘밥, 한사람, 공동체’를 새로운 비전의 열쇳말로 제안했다. 이 열쇳말들을 바탕으로 제안한 비전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자립기반 확충

- (1) 식량과 에너지의 자립 기반 확대
- (2) 생활돌봄과 생산하는 소비자운동

2) 실천과제

- (1) 사람을 기르고 한살림 하는 사람 되기
 - (2) 참여와 소통의 확대로 아래로부터의 활력 높이기
 - (3) 구심력과 원심력을 함께 높이기
 - (4) 한살림의 체질 개선
 - (5) 실행 제안: 공부, 혁신, 미래 설계
-

2) 한살림 30년 비전위원회, 『한살림, 새로운 30년 비전을 묻다: 한살림 30년 비전 제안보고서』, 2017.

비전 보고서에는 <한살림 선언>처럼 거대하고 추상적인 담론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다양한 목소리가 많이 담겨 있다.³⁾ 이것은 이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 수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이를 ‘한살림 30년 비전위원회’가 잘 담으려고 애썼기 때문이다. 비전 보고서는 오늘날 세계와 한국의 구조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한 후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에 대해 ‘다 같이 생각해 보자, 함께 노력해보자’고 말을 건넨다. 마지막 실행 제안이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니라, ‘공부, 혁신, 미래 설계’라는 것은 이 보고서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강점일 수도 있다. 이러한 특징은 구심력과 원심력을 함께 높이자는 제안에서도 나타난다. 모순처럼 보이는 두 과제를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은 결사의 결사를 강화하면서 결사들의 자율성을 높여서 새로운 혁신을 해나가자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전 보고서에는 미래 30년을 내다보며 더 강화해야 할 과제, 고쳐야 할 숙제, 새롭게 시도해 볼 만한 실험 등 다양한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이 제안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한살림 하는 사람들이 한살림답게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해나간다면 우리 사회에서 생명을 살리는 대안 사회의 씨앗이 크게 자랄 것이다.

3) 주요섭은 루만의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한살림 선언>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했다. (주요섭, “루만으로 본 한살림선언: ‘작동적 구성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체계이론학회 발표논문, 2018. 5. 25.) 그는 생명 담론이 빠질 수 있는 독단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생명이라는 구별은 탁월했다. 그러나 그것이 ‘또 하나의 구별’이 아니라 ‘최후의 구별’로 선언되었을 때 그것은 도그마가 되고 인식론적 감옥이 되었다. ‘생명이라는 이상’이 되었다.” 또한 그는 <한살림 선언>의 깨달음, 각성 같은 인식론적 비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한살림선언은 생명세계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말한다. 세계의 실상은 ‘생명의 그물’이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생물의 그물 안에 포함된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었다.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는 우주인처럼 말한다.” 주요섭은 <한살림 선언>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재귀적으로 해석하여 생명사상을 재구성하려고 한다. 이런 그의 비판적 재해석은 한살림이 새로운 30년을 기획하는데 중요한 성찰적 전망을 보여준다.

한살림의 사회적 역할

서른 살 한살림은 이제 어지간한 비바람에도 견딜 만큼 크게 자랐다. 한살림은 자기를 스스로 재생산하는 하나의 조직을 넘어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공동체로 성장했다. 이런 한살림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사회적 역할은 무엇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우애와 환대의 공동체’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인류는 가족과 씨족, 부족 공동체를 넘어서서 대규모 협동을 할 수 있는 민족과 국가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협동의 연결망은 넓어졌지만 언제나 우리 집단과 그들 집단의 경계는 분명했다. 한살림운동은 이런 경계를 넘어서 ‘우주적 생명’을 살리는 거대한 전환을 꿈꾸었다. 달리 말하면 한살림 사람들은 우리끼리 서로 우애를 나눌 뿐만 아니라 이웃을 환대하여 너와 나, 우리 집단과 그들 집단이 하나가 되어 밥과 사랑을 함께 만들고 나누는 공동체를 만드는 꿈을 꾸었고 지금도 그 꿈을 꾸고 있다. 그런데 이 꿈은 실현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꿈이다.

한살림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면 그 역할은 한살림의 자기생산을 넘어서서 모두를 위한 생명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모두’란 인간은 물론 비인간 자연을 아우른다. 모두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며 강제와 폭력을 넘어서서 자신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평등하고 공평한 세상을 꿈꾸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한살림의 사회적 역할은 위로부터 국가 권력을 장악하여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제도정치나 조직의 자원 동원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는 영향의 정치와는 다르다. 한살림의 사회적 역할의 특이성은 생명을 모시고 살리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지탱하고 도움으로써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이들을 넘어서는 공동체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여기서 공동체(共同體)는 공동의 것(the common/commons)을 만들어가는 commoning 존재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살림은 밥을 매개로 공동의 것을 만듦으로써 우애를 넓고 깊게 만들며 현대의 힘을 키우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 공동체 속에서 한 사람은 고립된 개인이나 사회의 부분이 아니라 자신의 특이성을 창조하며 공동의 것을 만들어가는 창의적이며 유기적인 존재로 스스로를 키우고 변화시켜나간다. 한살림의 사회적 역할은 이런 한 사람을 키우는 공동체를 만들면서 그 한 사람과 공동체의 힘으로 우애와 환대를 국가와 시장으로 스며들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한살림의 사회적 역할은 국가권력을 잡아서 시장과 사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의 힘으로 새롭게 공동의 것을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힘은 억압하거나 꼬드기는 권력이 아니라 특이하면서도 공통적인 사람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힘이 시장과 국가에 스며들도록 해서, 관료들에게 포획되거나 시장에 의해 전유된 공적 영역(public sphere)과 국가를 다시 공동의 것으로 만드는 것(commoning)이다. 이렇게 될 때 국가는 더 이상 억압적이거나 꼬드기는 외재적인 권력이 아니라 공동체 또는 사회 안으로 내재하는 embedded 공동체의 관리인이 될 것이다.⁴⁾

4) 무엇이 공동의 것이고 이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의견 차이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차이와 갈등은 모두의 참여(미래세대와 비인간 자연의 대리인과 후견인 포함) 아래 속의(공평하고 평등한 토론과 심의)를 지속할 때 줄어나갈 수 있다. 그런데 현대의 공론장은 성장과 인간중심주의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생명의 관점에서 생태적 공론장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공동의 것, 또는 공동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는 수렵, 채취나 농경 사회에서는 일반적이었던 공동의 생산과 소비를 현대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하여 모두의 특이성을 살리면서 공동의 삶을 자율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전유하여 특이성은 물론 공동의 것을 사라지게 만든 국가 사회주의의 잘못에 대한 비판이다. 또한 이는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 ‘개인의 자유’의 이름으로 소비하는 주체를 호명하는 시장 자본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이 모든 것을 상품화한 현대에 국가는 성장 책무imperative에 붙들려 공동의 것을 지키고 만들어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관료제에 포획되어 국가 자신의 권력을 키우는 데 자원을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때문에 한살림과 같이 공동의 것,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한살림은 시장과 국가 사이에 있으며 그것을 넘어서는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고 키우는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고 이를 더 잘 해야 한다.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여기서는 밥상, 농업, 지역, 생명 살림의 관점에서 한살림의 역할을 논의해 보겠다. 첫째로 한살림은 밥상과 농업을 살려왔고 이를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기후변화와 핵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밥을 살려야 밥이 될 수 있다. 허남혁은 ‘푸드플랜과 한살림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글에서 어떻게 밥을 살려야 할지 논의한다. 김용우는 밥상과 농업을 살리기 위해 한살림의 농지보전운동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김훈기는 국내 농업 관련 연구개발 정책의 동향을 분석하여 한살림이 생명을 살리는 농업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한다.

둘째로 한살림은 자기 재생산을 넘어서서 지역과 사회를 ‘우애와

환대의 공동체'로 만드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 생협의 사회적 활동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강내영은 일본의 생활클럽생협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살림이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길들을 보여준다. 이경란은 성미산마을 사례를 통해 공유지 혹은 공동의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의 의미를 살펴본다. 하승우는 공공성과 공유재의 개념을 검토하면서 공^공의 힘으로 공^공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길에 대해 이야기한다.

셋째, 한살림은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신승철은 지구 생태계의 존속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한살림의 전략지도를 제시한다. 박숙현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소개하고 한살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검토한다. 양세진은 한살림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는 협동의 주체로 어떻게 되는지, 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기획위원회는 한살림의 미래의 사회적 역할을 토론하고 고민하며 하나의 그림을 세상에 내놓는다. 이 글들을 통해 한살림 사람들이 '우애와 환대의 공동체'를 만드는 상상력을 키우고 이를 좀 더 많은 이들이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청년의 삶과 협동운동의 오늘과 내일

모심과살림연구소 2018년 하반기 포럼을 정리하며

김이경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원. yesleft@hansalim.or.kr

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는 지난 11월, “청년의 삶과 협동운동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지면에서는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뿐 아니라 포럼을 준비하는 과정과 고민, 추후 구상 등도 함께 담았습니다.

청년 문제를 논할 때마다 부딪히는 건 ‘누가 청년인가’라는 질문이다. 만 35세, 만 42세까지만 ‘청년이다’라고 하기에는 숫자를 넘어선 문제들이 많다. 흔히 농촌에서는 60대가 청년이기도 하고, 20대지만 ‘젊은꼰대’라고 불리는 이들도 있다. 이처럼 청년은 다양한 삶이 있는 만큼 그 이해의 폭도 넓다. 연구소에서는 청년을 나이의 개념으로 재단하지는 않았다. 적어도

모심과살림연구소 2018년 하반기포럼

청년의 삶과 협동운동의 오늘과 내일

필요에 의한 협동조합 스스로 사회적경제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다

2018.11.26 (월) 오후 6시
한살림서울 2층 교육장
(서울 종로구 신광로2가 1-140)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8:00~18:05	환영사(모심과살림연구소 이사장)
18:05~18:15	포럼 시작 및 참가자 간에 인사(모심과살림연구소)
18:15~18:40	한국 청년 협동조합 현황과 사회적경제생태계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다 (모심과살림연구소 이사장)
18:40~19:15	청년과 협동조합 생활 이야기 주요협동조합 주안점(모심과살림연구소 이사장)
19:15~19:40	청년과 나의 삶(이혜숙 활동가) 청년과 협동조합(이혜숙 활동가)
19:40~20:20	협동조합 청년과 협동조합 생활 이야기 청년 생활 이야기

주최: 주한 모심과살림연구소 후원: 02-4931-3636

5060세대 이하에서 나이를 넘어서서 새로운 시도에 거침없이 도전하는 이들, 민간 영역에서 스스로의 힘을 길러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청년으로 보았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연구소는, 그리고 한살림운동은 어떤 역할을 해왔고 할 수 있을까. 더불어 청년들은 한살림운동 중 하나인 생활협동조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는 생태문명·협동경제·농촌과 도시의 상생 등을 구상하며 발전한 생협이 직면한 또 다른 고민이기도 하다. 2030세대뿐 아니라 시니어의 1인가구 증가와 출생률 하락, 먹거리 불안과 친환경식품의 기업적 성장 등 생협도 일반 사회현상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연구소에서는 현안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미래포럼을 준비했다. 청년과 접점을 찾는 작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살림 자료를 살펴보면 한살림에서는 운동이 시작되는 초창기부터 청(소)년과 만났다. 1989년 고등학교 졸업생 대상으로 진행된 ‘한살림 배움마당’이 그 시작이다. 한살림배움마당은 “고등학교 졸업 후 흔히 겪는 공허함을 함께하는 활동으로 채우고 앞으로 대학과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¹⁾ 진행되었다. 이후 1991년에는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일요일, 한살림모임 청년소강좌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들을 사회주체로 성장할 중요한 세대로 보고 기존 사회나 제도권 교육 안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문명전환과 생명운동, 협동조합, 여성문제 등의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 한살림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을 보면 어린이와 주부조합원이 주축이며 청년과 관련된 기록은 찾기 어렵다.

1) 1989년 한살림 소식지에 실린 내용으로 「청춘의 밥과 삶, 안녕하십니까」(김현, 모심과살림연구소, 2014) 60면을 참고.

한살림 청년프로그램 및 행사(1989~2016)2)

일시	제목	장소/기간	주요내용	참여
1989.1	한살림 배움마당	6일	· 고등학교 졸업생 대상 장일순·최열 등 강연, 모듬활동	-
1991.4~9	한살림모임 청년소강좌	4월~9월 매주 일요일 총 20회 학전소극장	· 문명 전환과 생명운동 · 새로운 생산양식 실험 등 환경, 생명, 협동조합, 여성문제 강의·토론	-
2009.11	한살림 청년 캠프	괴산 2박3일	· 한살림운동 이해 · 농사체험, 생산자와 대화	22명
2010.3	한살림 청년 캠프	괴산 2박3일	· 한살림 소개 · 농사체험, 생산자와 대화 · 강의, 토론	21명
2010.7	한살림 청년 생태농활	의성 4박5일	· 농사체험, 생산자와 대화	18명
2011.6	한살림 청년 아카데미	서울, 부안 총 6일	· 강의 · 생산지방문 · 워크숍	44명
2011.11	한살림 청년 협동경제 워크숍	서울 총 2일	· 협동경제 키워드 찾기 · 사업계획 공유	18명
2012.5	한살림 청년 아카데미	서울, 부안 총 5일	· 강의 · 청년생산자와 만남	20명
2012.6~10	한살림 청년 일손돕기 유랑단	총 4회	· 파주, 홍천, 아산, 여주 생산지 방문	회차별 4~7명
2013.7	한살림 청년 캠프	총 5일	· 농사체험, 생산자와 대화	25명
2013.10	한살림 청년 이야기마당	1일	· 협동조합·공유경제 이야기나눔	15명
2015.5~7	청년 살림학교	총 8일	· 강의 · 생산자와 교류	-
2016.6	서른살 청년이 한살림에게 말걸기	1회	· 청년활동가·실무자 이야기나눔	30명
2016.10	청춘들과 함께하는 한살림 집밥만들기	1박 2일	· 간담회, 생산자와 교류	-

2) 앞의 책, 70~71면을 요약정리함.

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는 이러한 한살림과 청년의 단절에 문제의식을 갖고 2009년부터 “미완의 상상력으로, 북극곰의 목마름으로, 새로운 생명의 질서로, 다시 만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한살림 청년캠프’를 진행했다. 이후 2016년까지 거의 매년 1-2회에 걸쳐 캠프 및 청년아카데미를 열었고, 매회 15명에서 40여 명의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함께 한살림 생산지를 방문했다. 캠프에 참가한 청년 중 한살림 실무자가 된 이들도 있고 후속모임을 이어간 그룹도 있다.

한살림청년 프로그램은 농업과 생명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자신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동료를 만나는 장일 뿐 아니라 일자리로 연결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살림 안에서는 정책이나 활동의 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한살림 조합원 구성에서 청년이라 인식되는 2030세대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물론 아이를 키우는 30-40대 조합원수는 많지만 비혼, 1인가구, 덩크족인 2030세대는 한살림의 여러 모임 등에서 만나기 어렵다.

협동운동과 청년, 새로운 접근

2014년과 2018년 한살림의식조사를 살펴보면 조합원 중 20대는 2%에도 미치지 못하며, 30-35세 미만 비율은 5.5%에 불과하다. 이처럼 낮은 비율이기에 청년들이 1년에 한 번가량 한살림 행사에 초대되어 자신들의 활동을 발표하지만 프로그램 중 하나일 뿐이었다. 또한 한살림 30년 비전 구상시 한살림 청년조합원들이 모여 매장 내 1인가구를 위한 냉장고 비치, 청년위원회 등의 욕구와 요구를 전했다. 하지만 후속작업은 이뤄지지 못했다.

연구소에서는 한살림운동 차원뿐 아니라 협동운동의 미래를 고민하는 측면에서 청년 문제를 보다 폭넓게 바라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포럼을 준비했다. 무엇보다 궁금했던 건 ‘그동안 진행되었던 협동운동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 ‘청년들은 협동운동을 향후 대안으로 보고 있을까?’였다.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세 단계의 작업을 거쳤다.

대학생협		청년연대은행 토닥		청년조직 간담회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 1652명 응답 (2018.9.10.-9.28)	+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78명 응답 (2018.9.28.-10.16)	+	청년운동 참여자 7명 참여 (2018.10.11.)

우선 이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대학생협연합회와 협업하여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청년협동조합 등 청년협동운동 조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경우 차이점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세 단체에 설문의를 거쳐 결국 청년연대은행 토닥(이하 토닥)에서 설문을 진행하게 되었다. 설문 문항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첫째는 청년들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식생활, 경제, 주거 등이다. 두 번째는 노동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가치관 변화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협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일자리로서의 전망이다.

청년 문제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이전에 진행된 한살림 청년프로그램이 대안운동, 귀농, 한살림운동에 관심 있는 개인 참여자 중심으로 진행된 것과 결을 조금 달리한다. 학교-직장(회사)이라는 단순

한 도식이 아닌 다른 삶을 선택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이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건 동일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청년의 삶을 파악하고 개인 외에 청년단체도 함께 만나고자 했다. 개인뿐 아니라 단체와 한살림의 접점을 만든다면 사업적인 부분에서 접근 가능성도 있고 청년과 한살림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담겨 있다.

이제는 ‘대안’이 그리 낯선 것만은 아니다. 지금은 특정 지역에서 공동체를 만드는 것 외에도 그동안 충분히 분출되지 못했던 다양한 욕구와 억압이 개인과 온라인 영역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미 기존 경제제도 속에서도 다양한 삶을 스스로 선택해서 만들어나가는 젊은 세대들이 등장했고, 이들은 개인 메신저를 활용해 소통하고 또 변화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적경제 정책이 확장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경제운동도 활발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청년들의 일상과 가치관 변화를 살펴본 후 협동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세워보고자 했다.

청년세대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변화

대학생과 토닥 조합원의 설문결과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물론 대학생협 설문의 경우 불특정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운데 1,600여 명이 응답한 결과이고 토닥의 경우는 조합원 대상으로 70여 명(조합원 중 15%)이 응답했기에 비교대상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하지만 결과로 드러난 경향성을 본다면 사회생활 경험과 협동조합 참여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다.

공통점	차이점
·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에 호감 · 협동조합=공동체운동단체로 인식 · 협동조합 경험과 협동조합 인식 비례함 · 선호하는 주거형태=1인가구 · 조직문화에 높은 관심 시간·장소 선택 가능한 유연근무제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한 조직 선호 · 전더 및 성평등에 관한 감수성 높음 · 사회적경제 서비스 관심 = 먹거리 및 농업	➡ 일반 대학생 · 한살림 등 생협 인식을 현저히 낮음 · 구내식당 및 간편식·반조리식품 선호 · 대형마트 40%, 생협 1.6% 이용 · 공무원 등 안정적 일자리 선호 ➡ 청년협동조합 조합원 · 한살림 등 생협 이용률 22% · 조리할 수 있는 재료로 '직접요리' 선호 ·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동의 90% · 일자리로 사회적경제 조직 선호

차이점을 보기 전에 우선 공통점에 대해서 살펴보자.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이해에 차이는 있지만 공감도가 50% 이상으로 긍정적이다. 대학생과 20-30대 청년 모두 협동조합을 공동체운동단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 부분은 오늘날 청년들에게 '공동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협동조합이 공동체운동으로 보이는 요소가 무엇인지 보다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할 지점으로 보인다. 또한 1주일 중 혼밥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청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제품 및 서비스는 '먹거리 및 농업'이라는 점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생활 및 가치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장 선호하는 주거생활형태로 '1인가구'를 꼽았다는 점이다. 대학생의 경우 54%가, 토박의 경우는 38%가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1인가구를 선호했다. 이는 결혼 시기가 늦춰지고 비혼, 독립가구가 증가하는 등의 맥락과 일치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이다. 더 깊게 들여다

보면 사회 문제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SNS 참여, 기부 및 후원금 지원 등) 비율이 30%가량으로 나타나 ‘혼자 있고 싶지만 고립되고 싶지 않다’는 성향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참여 방식이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형태로 변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경우 8시간 노동, 공무원 등을 선호하지만 ‘시간과 장소 선택이 가능한 유연근무제’ 및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한 조직’에 대한 욕구가 컸다. 더 나아가 토닥의 경우 진로·직업 선택 시 가장 피하고 싶은 조직으로 ‘경직된 조직문화 및 리더’가 있는 곳을 택했다. 이처럼 청년세대들은 일자리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개인으로 존중받고 소모품이 되지 않는 일터, 그러한 조직문화를 바라고 있다. 유연함과 다양성에 대한 가치 추구는 현재 가장 관심 갖는 사회 문제로 대학생과 20-30대 청년 모두 ‘젠더 및 성평등’을 2순위에 둘만큼 사회적 가치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협동조합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 변화로 가는 첫 시도

협동조합·사회적경제 부분에서는 차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토닥의 경우 직접 조리가 가능한 재료를 구입해서 요리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21%가 한살림 등 생협을 이용했다. 이는 40% 이상이 매장 및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생협 등의 이용률이 1%가량인 대학생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를 볼 때 한살림 등 생협에서는 1인가구를 선호하고 주 5회가량 혼밥을 하지만 직접 생협에서 장을 보고 요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청년을 발굴하고 주목해야 한다.

토닥은 협동조합 인지도와 동의율이 90%에 이른다. 이들이 협동조합을 알게 된 경로는 조합활동이다. 대학생의 경우 ‘이번 설문’을 통해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를 알게 되었다면 토닥은 조합 활동을 통해 협동조합의 운영원리와 가치를 이해하고 경험도와 비례해서 동의와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온라인 등 다양한 플랫폼이 있지만 협동조합을 직접 경험하는 것, 필요에 의해 협동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이 협동조합의 이해를 높이고 운동의 주체로 설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대학생협과 토닥의 차이, 특히 협동조합·사회적경제 인식과 경험에 대해서는 포럼 이전에 열린 간담회에서도 주목되었다. 필요, 그리고 경험이 전제가 되어야 협동운동을 이해하고 동의하게 된다는 것이다.

“주거 문제에 공감해서 오지 ‘협동’에 공감해서는 오지 않아요. 활동을 하다 보니 옆에 사람과 하고 있는 게 ‘협동’이구나 하고 체화하고 협동조합도 공부해보자 하는 거죠.”

- 임소라(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

“토닥 결과를 보면서 경험하는 게 확실히 다르구나, 목적성을 갖고 경험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 김진아(한국대학생협연합회 이사장)

하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에 호감을 갖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청년이 활동하거나 일하기에는 아직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조직이 준비되지 못함도 지적되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청년과의 접점에 대한 고민 지점을 나눴다.

➡ 협동조합 경험의 중요성

- 청년연대은행 토닥의 경우 조합활동을 통해 협동조합·사회적 경제를 알게 되고 경험하며 인식 상승
- 협동조합, 사회적경제에서 실제로 보이고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 확인

➡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청년 주체성의 문제

- 사회적경제에 청년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 부족
-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청년 주체 인지여부 부족
- 사회공헌사업을 위한 조직 대상으로 활용되는 청년
- 사회적경제=단편적 일자리 문제로 접근, 청년의 주체적 활동에 대한 고민 부족

➡ 민주적이지 않은 사회적경제 조직문화

- 대안을 찾기 위해 취업한 사회적경제 조직이지만 민주적이지 않은 의사결정
- 헌신과 신념을 강조하는 1세대 등으로 인한 ‘놀림과 강요’
- 청년의 중요한 가치 = 희생, 헌신이 아닌 평등과 젠더 감수성, 소통
- 1세대와 청년 실무자의 가치관 불화 해결과 조직 내부 문제 발산 방식 변화 필요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이 청년과 만나려면

위와 같이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거쳐 연구소 포럼이 진행되었다. 포럼은 크게 대학생과 청년의 삶을 살펴보면 ‘대학생이 바라보는 협동조합·사회적경제’, ‘나는 왜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었나?’, ‘협동조합에서 일해 보니 어떠한가?’로 주제를 정하고 대학생, 청년 조합원, 청년 실무자로 발표자를 구성했다. 특히 간담회 시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많다. 한살림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협동조합 청년실무자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에 총 여섯 분(토론자 세 명, 토론자 세 명)을 모시고 포럼을 진행했다.

협동조합·사회적경제와 청년의 접점이라는 큰 주제를 두고 토론과 발표에서 나온 이야기를 요약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청년들을 믿고 역할을 달라. 청년유니온, 청년연대은행 토당을 설립하는 데 앞장서고 현재 청년들을 위한 제도권 금융인 청년신협을 만들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조금득 위원장은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기를 꺾는 기성세대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다. 높은 월세로 열악한 주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힘을 모아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을 만들었지만 이들에게 기존 은행은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에 보증금을 빌려준 곳은 청년연대은행 토당이었고, 이들은 기성세대와 기성 조직이 힘을 보태주지 않았음에도 서로 일으켜 세우며 제도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이들은 청년들을 믿어주는 것, 그것 하나만이라도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 운동이 청년과 만날 때 중요한 건 청년들을 더 많이 믿어달라는 거예요. 청년들의 무한한 의지와 활동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청년들은 자체적으로 아이디어와 힘이 있어요. 기성의 활동가들이 내용적으로 도움 준다고 하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간을 지원해주거나 하는 것이 힘이 돼요. 그리고 2018 GSEF Global Social Economy Forum Secretariat,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에 참여한 청년들이 선언한 것처럼 청년을 ‘사회적경제 행사 진행보조자가 아닌 스피커’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해요.” - 조금득(청년신협 추진위원장)

둘째, 개인의 가치와 공동체의 가치가 공존하는 조직 감수성이 필요하다. 조직문화에 대한 부분은 설문조사에서부터 포럼까지 계속 제기된 문제였다.

“헌신, 희생 등 과거에 유의미했던 방식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사회에서 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구조를 짜야 하는가가 과제라고 생각해요. 87년 이전 세대는 대의를 위해서는 ‘이 정도는 묻고 가자’라고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 세대에서는 ‘대의는 대의고, 이건 아니야’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된 사항을 왜곡시킬 때 받는 저항감이나 문제의식이 더 크다는 거죠.” - 김기민(청년연대은행 토닥 이사장)

“(협동조합·사회적경제) 1세대 운동가분들께서 경직된 조직문화와 리더의 문제를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다만 탐다운 방식의 경직된 권위적인 문화에 익숙한 거예요. 청년들은 개인의 가치가 조직에서 공감되지 않는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걸 사회적경제 모범도시로 알려진 퀘벡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고 청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대가 갖는 과제이기도 해요.” - 조금득

이처럼 개인과 공동체의 가치 충돌과 수평적 조직문화에 대한 요구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가치에 공감하고 수직적인 문화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개인에게 조금씩 싹트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 지역, 하나의 조직이 아닌 자유로운 개인이 존중받는 느슨한 연대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이기도 하다.

셋째, 협동은 선택이 아닌 필요의 문제이다.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은 비판하지만 오랫동안 이어진 협동운동은 지금 더욱 필요하다고 말한다.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했던 건 연대였어요. 많은 조합원들은 연대의 힘을 느끼고 있어요. 달팽이집에 있는 청년들이 그래요 ‘공동체를 형성할 기회라도 얻은 것 같다’라고요.” - 임소라

“청년이 협동을 좋아할까요? 지금 세대에게 협동은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삶의 조건하에서 제가 살아가는 조건을 선택하는 데 최적화된 방식이 토닥, 신희, 생협으로 결국 협동인 거예요.” - 김기민

청년과 한살림의 만남, 앞으로의 구상과 과제

일련의 과정을 함께한 청년들은 한 번으로 그치는 행사가 아닌 작은 것이라도 변화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길 원했다. 연구소에서도 이번 포럼으로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한살림, 협동운동과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고 논의의 장을 계속 만들 예정이다. 더불어 연구소에서는 내년부터 가칭 청년·다양성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그를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견들이 단순히 문제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여러 시도를 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들은 ‘공론장’을 만드는 일이다. 모여서 떠들고 즐기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공개되어야 변화는 시작된다. 연구소에서는 이 작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문을 열어 두고 있다.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생협의 미래와 젊은 층

일본 생협종합연구소

‘생협은 젊은 층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조사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권웅 한살림연합 정책기획팀. smoky.kwon@gmail.com

나이 든 일본과 급히 따라가는 한국

일본에서 가장 큰 생협 연구소인 공인재단법인 생협종합연구소는 지금까지 몇 차례 ‘생협과 젊은 층’에 관한 연구와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는 구체적인 필요, 즉 ‘사회, 그리고 생협 구성원이 늙어가고 있다’는 상황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 최신 결과가 올해 11월 22일, 공개연구회 “생협은 젊은 층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에서 발표되었다.

일본의 평균 연령은 2017년 기준 47.3세로 한국의 41.8세보다 5세 이상 많으며 고령화율은 65세 이상이 28%, 70세 이상도 20%를 넘었다. 세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 다섯 명 중 한 명이 75세 이상이 되는 ‘초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2025년 문제라고 부르는 미래로 ‘차질 없이’ 가까워가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의 진행은 생협에도 해당한다. 조합원 평균 연령은 2015년 기준 55.9세로 2000년에 비해 7세 이상 증가했다. 한편, 대략의 통계이긴 하지만 생협 이용고 중 4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미만, 50세 이하로 계산해도 30%를 넘지 않는다.

전체로 보면 일본 생협의 조합원은 아직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일본의 주류 생협은 ‘국산 추구’ 수준의 생협으로서 한국의 생협운동과는 다소 결이 다르며, 따라서 생협 전체에서 50대, 60대는 50%를 넘을 정도의 높은 가입률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 생협에서는 택배 사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상의 통계 등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일본 생협은 ‘이대로를 유지한다면’ 한동안 성장을 유지한 뒤 끝없는 조합원 감소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거의 확실시된다. 이 배경에는 일본 중산층의 몰락이 있으며, 1인세대로 대표되는 극소가족화, 저출산, 외식과 간편식의 증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생활 및 문화 요구의 변화,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있다. 이 모든 키워드의 중심에 ‘젊은 층’이 있다.

일본 여성의 생협 가입률 및 조합원 평균 연령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조합원 평균연령
생협 가입률 2015	5.6%	34.4%	46.5%	56.0%	53.5%	23.3%	55.9세
생협 가입률 2000	6.1%	38.5%	47.1%	38.8%	23.2%	7.0%	48.6세

“20대·30대를 주 대상으로 한 생협의 인지도 등에 관한 조사보고”, 미야자키 다츠로

젊은 층의 의식과 간편식

생협종합연구소의 이번 공개연구회에서는 ‘젊은 층의 생협 인지도 및 이용에 관한 조사’¹⁾와 ‘편의성과 관련하여 반조리·완조리 가공식품에 관한 조사’²⁾를 바탕으로 하는 발표가 있었다.

‘젊은 층의 생협 인지도 및 이용에 관한 조사’ 결과는 전체적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이지만 결과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 까닭은 ‘생협 택배’를 주된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앞서 밝혔듯 일본 주류 생협의 수준이 국산을 추구하는 정도의 대중 생협이라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가령 20대와 30대가 생협을 이용하는 이유가 첫째(40.7%) ‘장보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둘째(36.1%) ‘근처에 적당한 장볼 곳이 없기 때문’이라는 결과는 한국 실정에 온전히 참고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전 세대에서도 생협은 안전한 식품을 집까지 배송해주기 때문에 지지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문제 혹은 과제로 가격과 편의성이 지적된다는 점이다. 일본의 많은 업체들이 집까지 식품 및 잡화를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성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은 오프라인과 동일한 상품을 더 비싸게 공급하는 서비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생협을 이용하고 있는 2,800만 명의 일본 조합원은 다소 느리고 불편하더라도 안전성이 확보된 독자적인 상품을 배송해주는 생협을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 반대급부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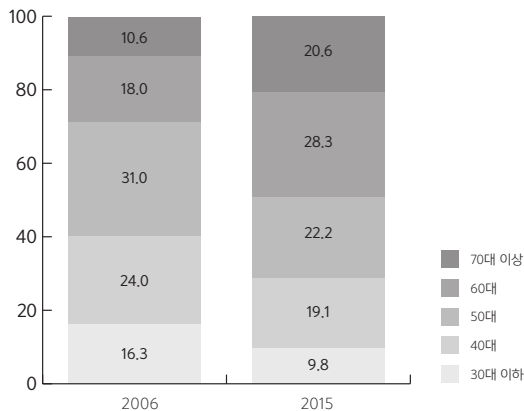
1) 2017년 3월 실시, 인터넷 조사(iResearch), 20·30대 각 400 응답자, 40대·50대는 각 200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2) 2018년 3월 실시, 인터넷 조사(iResearch), 20·30·40·50·60대 각 200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의 가격에 대한 체감도는 젊은 층으로 갈수록 더 높다. 이전 조사를 참고하면 가격 만족도에 관해서는 80대 이상이 3.8점, 70대가 2.8점 식으로 떨어지면서 30대는 -0.5점, 20대에 이르러서는 -0.7점까지 떨어지고 있다.

물품 편의성과 관련한 핵심은 반조리·완조리 가공식품이다. 가공 식품에 관한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젊은 세대일수록 반조리·완조리 식품을 많이 섭취하지만 결코 마음 편하게 이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건강 문제와 안전성에 대한 염려가 있지만 한편 맛벌이 등으로 인한 시간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간편식을 섭취하는 게 현실이며, 가능하면 건강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물품을 이용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다. 조사에서는 국산, 무첨가, HACCP, 논·지엠 non-gmo 순서대로 선호가 나타났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전체의 40%를 넘는 응답자가 가격을 더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즉 안전과 건강, 편리함을 모두 해결한 물품이 선호될 여지는 상당하다.

연령대별 생협 이용액 구성비 (단위 : %)



“20대·30대를 주 대상으로 한 생협의 인지도 등에 관한 조사보고”, 미야자키 다츠로

세대 간 간극과 조합원의 소망

세대 간의 간극은 조사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다. 소득 수준, 가구 구성, 생활패턴에 따른 이용 형태, 선호 물품에 이르기까지 세대 간 차이가 적지 않은 상황이며 이러한 간극은 향후에도 일정한 단절로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간편식에 대해서 그 차이가 더욱 극명히 나타났는데, 이용하고 지지하는 층과 전혀 이용하지 않는 층이 매우 뚜렷하게 나뉜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일본 생협을 지탱하고 있는 세대는 나이 들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 생협이 얻은 지지는 그 세대 조합원들의 소망을 어느 정도 시스템으로서 응답하는 데 성공해서 얻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일본 생협의 과제는 그 세대 조합원을 계속 포용하면서도 어떻게 새로운 조합원을 수용해 나갈 것인지에 달려 있다. 이는 불가피하게 생협의 이원화 혹은 다원화적인 존재 방식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생협은 조합원의 소망을 실현해 나가는 조직이므로, 생협이 나이 들어가는 조합원의 소망을 실현시키는 한편 젊은 층의 소망도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는지가 향후 십여 년 생협에 던져질 질문인 것이다.

일본 사회와 생협의 이러한 변화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한국 사회와 생협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특히 한국 생협은 친환경, 매장 중심, 전국 전개로 급속히 발전한 까닭에 그 사회 변화의 영향을 받을 여지가 더욱 크다. 

북한의 유기농업

유기농업의 발달, 과제 그리고 협력 가능성에 대한 개요

콘라드 합플라이쉬

국제 아이폼 역량개발국 국장, 아이폼 유기농아카데미 원장.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그들 스스로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관심과 열정을 쏟고 있다. k.hauptfleisch@ifoam.bio

번역 | 문지영 한살림연합 정책기획팀. amorphous@hansalim.or.kr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수많은 평범한 장소에서, 수많은 평범한 행동을 한다면, 그들은 이 세상의 ‘얼굴’을 바꿔 놓을 것이다.”

이 아프리카 속담은 나 자신과 내 업무, 그리고 국제유기농업운동 연맹IFOAM – Organics International(이하 아이폼) 산하에 활동 중인 변화 촉진자들change agent의 전지구적 네트워크에 있어 진실로 여겨진다. 종종 거대한 규모의 전지구적 문제 - 빈곤, 영양실조, 기후변화, 갈

등의 악화 그리고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 등을 맞닥트릴 때마다 나는 희망을 잃는다. 하지만 이후 ‘평범한 장소’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고 ‘평범한 행동들’이 결국 세상의 ‘얼굴’을 바꾸는 데 결합돼 있는 걸 보며 희망을 되찾는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선 다리를 놓을 필요가 있다. 다리를 놓은 후에는 서로 얼싸안아야 한다.

매우 적절하게도, 아이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하 ‘북한’으로 표기)에서 진행한 첫 번째 프로젝트의 이름이 ‘유기농 지식을 위한 다리Bridges for Organic Knowledge’ 혹은 ‘BOKK 프로젝트’였다. 2012년 북한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EU기금을 지원받아 진행되었으며 현지 실사, 회의, 교육훈련, 네트워크 구축 등이 이루어졌다. 이 혁신적인 시도에서 아이폼의 협력 단체는 평양 국제신기술경제정보센터Pyongyang International Information Centre of New Technology and Economy(PIINTEC, 이하 핀텍)였다. 핀텍은 북한 내 유일한 아이폼 회원단체였으며 이미 북한 안팎에서 내부 연수와 프로젝트, 국제 연구 등의 경험이 있었다.

당시 아이폼의 수많은 협력·네트워크 단체들은 아이폼이 이런 ‘천덕꾸러기pariah’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착수한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라거나 심지어 충격을 받기까지 했다. 아이폼 내부에서조차 프로젝트 관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전반적 목적은 북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을 개선함으로써 식량안보를 향상시키는 데 있었다. 따라서 이 계획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인도주의적 염려와 필요성으로부터 생겨난 것이었다. 배경이 어떠하든, 고통 앞에 그 누구도 가만히 있을 순 없다. 프로젝트에 관여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참여가 결정되었다.

첫 번째 프로젝트 - 가능성과 한계를 보다

BOKK 프로젝트는 유기농업 발전역량을 높이고, 북한의 다양한 기관을 지원하며, 지역 및 국제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연결을 확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유기농업,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 토양 비옥도 관리 혹은 다른 농경적 접근에 대한 지식과 이해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 일은 누가 하는가? 이러한 요소들은 제도적 맥락에서 어떻게 맞물리고 협력할 것인가? 이들과 ‘바깥세상’의 연결고리는 무엇이 될 것인가?

고무적인 부분과 도전의식을 복돋는 점이 동시에 있었다. 우선 북한에서는 이미 국내외 다양한 단체들에 의해 유기농업이 일정 부분 발전해왔다. 스위스의 피블FIBL 같은 오랜 협력 단체는 시범농장을 만드는 데 관여했고 다른 국제 NGO들은 주로 인도주의적 측면 또는 영양 분야에 관여했다. 농생태학이나 지속가능한 유기농업에 대한 지식과 기술도 공급했다. 이런 주제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 왔고 부분적으로 실행되기도 했으며, 심지어 북한의 지도부에서 관련 설명을 발표한 적도 있었다. 우리가 아는 바로, 북한의 주체사상은 자급self-sufficiency, 자립self-reliance 그리고 유기농업organic agriculture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지도부와의 어떠한 연계 혹은 그에 대한 호소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퇴비 만들기나 생물농약Bio-Pesticide 및 생물비료Bio-Fertilizer 생산 사례를 관찰하였고, 유기농 체계와 다소 비슷한 생산 관련 협동농장collective farm을 몇 군데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농장(특히 우리 프로젝트 농장이 되기로 지정된 농장)은 대부분 유기농 방식으로 잘 관리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투입재와 번식성분이 부족하고 토양과 비옥도가 적절히 관리되지 못한 결과 토사 유출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다. 북한 농업

의 또 다른 주요 문제는 경제제재와 금융제약으로 인한 농약 부족이다. 중국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생산량 하락과 토양 비옥도 손실로 이어진다. 투입재가 부적절하거나 투입량이 적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농촌 지역의 영양실조 문제를 악화시킨다.

한편 우리를 비롯해 북한에서 활동하는 기관들이 농업 시스템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현황과 수준을 알 수 없다는 것 또한 현실이었다. 우리는 지정된 지역만을 볼 수 있었고 그곳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지역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들은 유기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큰 기회이기도 했으며 여전히 그러하다.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7년 가까이 활동해왔음에도 여전히 걸 표면만 다루고 있을 뿐이다.

상황을 분석한 뒤, 우리가 주요 제약으로 본 것은 이해관계자 간의 조직화, 네트워킹, 지식과 기술의 부족 등이었다. 따라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부문에 초점을 두었다.

- 핀텍을 “유기농업과 신기술을 위한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센터”로 만든다. 핀텍은 이미 북한 내 기관, 이해관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만약 우리가 핀텍을 지식과 조직화를 위한 센터로 확고히 만든다면 이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 다양한 기관 소속의 이해관계자 대상 연수훈련을 진행(북한 내외의 국제 전문가가 운영)하고, '유기농 도서관' 설립에 필요한 자료, 책자와 출판물을 제공한다.
- 국내 및 국제 워크숍과 컨퍼런스에 북한의 유기농 이해관계자들을 참석시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연수훈련을 이끌어갈 트레이너의 역량 강화, 농민들로 하여금 지식과 기술 및 유기농업을 보다 잘 수용하도록 하는 자문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북한의 상황에서 핀텍의 인지도를 만들고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긴 과정을 거쳤다. 그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해외 모범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유기농업 도입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협동농장 시스템이 그 이유인데, 농장 관리자들은 주요 농작물의 할당량을 생산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었기에 유기농 체계에 관심을 덜 느꼈다. 지식을 더 강화해야 했다. 잘 관리되고 있는 생산성이 높은 대규모 유기농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추가적인 우대조치로써 시장가치를 더해야 할 필요도 분명히 있었다. 영양 문제, 그리고 영양을 고려한 농업이라는 주제 역시 첫 번째 프로젝트 기간 동안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간의 과정은 아이팜과 아이팜의 현지 협력단체에 있어 굉장히 까다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정한 매우 담대한 첫걸음이었다.

두 번째 프로젝트 - 영양 문제와 자급, 지속가능한 농업

2015년, ‘BOKK I’ 프로젝트의 성공에 힘입어 EU 집행위원회는 아이팜이 북한에서 진행할 두 번째 프로젝트에도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예상대로 ‘BOKK II’라 이름 붙여진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첫 번째 프로젝트의 활동과 개입을 더 깊고 넓게 하는 데 있었다. 첫 번째 프로젝트의 ‘DNA’가 대부분 남아있는 한편, 주요 관계자들 또한 역량 개발과 영양 문제를 심화하는 데 대해 이전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다. BOKK I 프로젝트 당시에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농업과 영양 문제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유기농 체제의 현실과 이것이 주는 혜택, 그리고 농장 운영과 대안적 생산 방식에 대해 더욱 잘 알 필요가 있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인도주의적 목표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유기농 보증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일부 있었다. 북한 내부로부터 생산, 인증, 브랜드화, 시장개방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유기농 생산물을 판매하는 것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팜은 현지 협력단체들의 의욕을 고취하고 지원하고자 가능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영양 문제와 자급, 지속가능한 농업을 프로젝트의 주제로 삼고자 했다.

BOKK II 프로젝트는 북한 내에서 유기농업을 규모화하고 주류화함으로써 식량안보를 증대하고 식이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영양교육에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핀텍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 유기농 시범농장과 농업지식 보급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영양 다양성에 대한 교육도 빼놓을 수 없다. 다양한 단계의 정책결정권자들은 생산과 소비 두 가지 관점에서 다각적

인 유기농 체계의 가치에 대해 교육받았고 이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유기농 체계를 주류화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상의 일들을 해나가는 데는 북한 내에 유기농업을 장려하는 단위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들은 자원 부족, 해외 유기농 단체와의 통신 접근성 및 네트워킹 기회 부족, 그에 따른 기술적·전략적 정보 부족 등 복합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피블과 아이폼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이 프로젝트를 집행함에 따라 지난 6년 동안 각 단위들의 역량이 향상되었고 상당히 많은 진척을 이뤘다. 연구자, 정부 관료, 그리고 기술직원 및 연관 부문의 직원들을 포함한 일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전 세계적 유기농 운동과 유기농 생산기술, 유기농업의 혜택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형성돼 있다.

핀텍과 북한의 농지및환경보호부, 그리고 북한유기농업발전연합회는 자국의 유기농 계획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말하자면, 유기농 기준을 포함한 유기농산업법안 초안 마련, 유기농업 법정단체 개발, 농업과학아카데미와의 협력, 유기농 영농기술 연구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 연구 프로그램의 결과는 아이폼/핀텍 워크숍에서 공유되었으며 그 결과 한 과학논문은 2014년 세계유기농대회에서 발표되기도 했다. OADA해외농업개발협회도 BOKK I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기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이후 BOKK II 프로젝트의 시범 농장이 된다.

위의 대상 그룹의 가장 큰 제약은 해외 정보나 우수사례 및 혁신 사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다. 또한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은 자국의 농업지식과 의사결정 시스템의 위계에 속해 있다. 이 위계는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모든 개인에게 아주 작은 재량권만을 허용한

다. 그런 점에서 프로젝트가 각각 서로 다른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높은 계층의 관료들뿐 아니라 실제 집행과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의사결정이 프로젝트 실행의 실질적 동기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핀텍, 농장 운영자와 현 프로젝트에 연관돼 있는 다른 이해관계자들 역시 표현한 바 있지만,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장비 부족(땅고르기 작업을 인력에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농경기술(예: 녹비)을 수용하는 데 큰 장애물이다. 프로젝트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시범 장비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들의 이전 경험을 참고하여 이러한 장비를 국내에서 제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달할 것이다.

특히 환경 문제는 유기농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유기농업으로의 전환과 유기농 영농체계를 다각화하는 목적이 북한 주민들에게 더욱더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면, 이러한 전환은 또한 분명히 환경적 개선을 동반할 것이다(토양 보존, 오염 감소, 생물 다양성 증가, 홍수피해 저감 등). 또한 주변화된 인구 중 특히 여성과 아이들이 현재 극심한 식량부족과 관련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은 식이 다양성으로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유기농 영농기술을 활용하고 유기농 영농체계를 다각화하는 데 다음과 같은 제약이 확인되었다.

- 추천되는 특정 영농기술(특히 윤작 시 녹비로 통합하는 것)은 매우 노동 집약적이고, 현재 땅고르기 기술은 이를 가능케 할 정도로 충분히 효율적이지 않다.
- 북한의 농학자들은 최신 유기농 우수 사례나 해외의 혁신사례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부족하다.
- 식문화에서 주식인 전분음식에 대한 집중이 여전하고 두류, 채소, 견과류, 과일, 축산물 등 다른 먹거리의 영양적 중요성(과 농경적 장점)에 대한 인식이 낮다.
- 현재 효율적이고 다각화된 유기농 영농체계를 보여주는 시범농장이 부족하다.
- 유기농 영농지식은 북한의 농업기술 보급체계에 속한 기술자들의 광범위한 기저에 도달해야 한다.

유기농 운동이 놓을 다리

BOKK II 프로젝트는 북한에서 여러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 성공해왔고 프로젝트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 바로 일주일 전 (2018년 12월), 아이폼은 세 번째 프로젝트 ‘더 나은 기관을 통한 회복탄력성 Resilience through Better Institutions; RBI’을 북한에서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북한의 유기농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관들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정기관들의 더 나은 기술적·제도적 역량을 만들고 개발함으로써 먹거리 위기와 관련하여 전체 인구

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는 이러한 기관들이 더 나은 조직화와 효과적인 네트워킹, 그리고 회복력 있고 영양에 민감한 영농기술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 등 자기역량을 개발함으로써 성취될 것이다.

북한에서의 지난 6년은 때때로 흥미로웠고 고무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도전적이었고 좌절감을 주기도 했다. - 우리의 활동과 방법론을 굉장히 구조화된 위계적 체계에 맞춰 ‘번역’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또한 마찬가지로 힘들었던 것은 진짜 수혜자들에게 지식이 당도도록 보장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지도자의 교리가 지배하는 체제를 통해 전해진다. 모든 발전은 지도자 덕택이며, 모든 도전은 펴나 되거나 국가의 적의 탓으로 돌려졌다. 이로 인해 결점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 우리는 언어와 문화의 제약 속에서 일하는 것뿐 아니라 부정의 문화culture of denial 속에서도 일해야 했다.

나는 북한 유기농업 발전에 있어 남한이 지원하고 기여할 큰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의 차이와 수십 년의 분단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의 가치와 문화는 여전히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노동윤리가 비슷하고, 문제와 해결책에 접근하는 방식도 비슷하다. 조직과 공동체의 힘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점도 비슷하다. 이러한 점들은 개발 지원에 있어 부가적 가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한국의 유기농 운동은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의 강한 전통을 갖고 있으며 지역발전 지원을 가치 있게 여긴다. 여기에 더해 농경문화의 자부심이 있으며, 그 밖에 협력에 도움이 될 또 다른 요소들을 갖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사항들은 양측의 유기농업 분야가 서로 협동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질 수 있다. 몇 가지 가능성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국내에 적합한 양질의 종자와 번식물질에 대한 필요
- 양질의 유기농 시설 생산, 경축순환농업 등과 같은 기술
- 기준, 점검, 유기적 통합성과 보증에 대한 상호 협력
- 교육훈련, 연구조사, 농촌지원 활동 (정부와 운동 영역에서 각각 가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북한은 야생인삼, 허브티, 전통적 요리법의 먹거리 등 독특한 자연전통식품을 제공할 수 있고 이에 관심을 갖거나 기꺼이 취급하려는 시장이 남한에 있을 것이다. 만약 지역의 협동조합과 정부가 일종의 유기농 동등성 협정하에 북한으로부터 수입되는 유기농 생산물을 취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는 두 지역 간의 연결과 북한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살림과 같은 개념은 생산공동체와 소비자 모두로부터 긍정적인 관심을 끌 것이다.

아이폼은 북한과 다른 유기농 세계 사이에 유기농 다리를 놓도록 돕는 기회를 가졌다. 하지만 나는 이제 한국의 유기농 운동이 자기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모두를 위해 가장 중요한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적기라고 생각한다. 두 개의 분단된 한국 사이에 놓는 하나의 다리. 

시진핑의 ‘신시대’와 향촌 ‘진흥’

김인경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학과 박사과정.

동아시아 협동운동, 중국의 협동조합 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다.

beautyna88@naver.com

중국 정부는 2020년 모든 국민이 중산층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는 ‘소강사회’¹⁾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대내·외에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표 실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여전히 3농농업·농촌·농민 문제이다. 2018년 시진핑 2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추진 과제가 제시되었지만 현재 중국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백화점식으로 총 망라된 점은 예년과 다름이 없어 보인다. 다만 당분간은 3농 문제를 주제로 한 ‘중앙 1호문건’²⁾이 계속해서 발표될 가능성 또한 커 보인다.

1) 소강사회는 <예기(禮記)>의 공자와 제자 자유의 대화에서 나오는 말로, 공자가 제시한 사회발전 단계의 두 번째다. 첫 번째인 ‘온포(溫飽)’는 백성들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사회, ‘소강(小康)’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이 보장된 사회, 마지막 ‘대동(大同)사회’는 요순시대의 이상향으로 모두가 잘사는 것을 말한다. 중국 국가 발전 전략으로 소강과 대동을 다시 등장시킨 이는 덩샤오핑으로 1987년 3보론(三步走論:온포-소강-대동)의 3단계 전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치와 기간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장쩌민 전 국가주석은 2002년 소강 사회 진입 선언과 함께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현재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의 완성(建成)’,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 부강 중국을 건설하겠다는 중국몽(夢)을 밝히고 있다.

2) 중국공산당과 정부(국무원)이 매년 발표하는 최우선 정책과제를 말한다.

이는 단순한 논리로, 공산당 중앙 문건에 자주 등장하는 사안일 수록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봐야 한다. 중요하지 않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제기할 이유가 없고, 어렵지 않다면 단 하나의 문건으로 충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하고 어렵기 때문에 공산당 중앙이 끊임없이 환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그 사안이 공산당 중앙에 그토록 중요하고 어려웠던 것일까? 그리고 공산당 중앙은 가까운 미래에 그 중요하고 어려운 사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글은 이와 같은 질문을 갖고 2017년 12월 말 중국 충칭重慶시 서남대학교에서 2박3일간 개최된 제1회 신시대 중국향촌건설포럼首届新时代中国乡村建设论坛 및 ‘향촌진흥전략연합 싱크탱크’ 설립식, 그리고 2017년 귀주성 통롄銅仁에서 열린 9차 CSA 대회에 참석한 뒤 지난 한 해 동안 공산당 중앙의 그 ‘중요하고 어려운’ 사안인 ‘3농’ 문제 연구자와 활동가·당사자들을 바라보며 느낀 초심연구자의 단상이다.

중국의 신농민新農民

- 농업을 알고, 농촌과 농민을 사랑하는 3농 인재 양성

최근 이례적일 정도로 시진핑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정책은 ‘신시대’라 불릴 만큼 변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농촌 ‘진흥’ 전략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 속에서 2018년 3월 2일 개최된 한·중 경제장관 회의에서는 경제분야 협력 의제로 농촌 진흥이 포함되었고 이는 양국이 합의한 향후 4대 협력 방안에도 포함되었다.

중국 식품안전 관련 이슈가 사회 문제로 자주 언급되는 상황에서 중국 농민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자국산 농산물에 대한 중국 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이다. 폐식용유와 가짜 분유 파동 등으로 인해 자국산보다는 한국산이나 홍콩, 유럽산을 찾는 소비층의 마음을 돌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등과의 합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국내·외적으로 중국 농업은 상당히 열악하다는 생각과 함께 중국 농업과 농산물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있다. 물론 맞는 면도 있지만 틀린 면도 많다. 중국의 CSA대회를 가 본 사람이라면 중국 농촌이 우리보다 뒤쳐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선입견인지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CSA대회에서는 행사의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었다.

<먹거리 안전과 농가의 지속가능성 제고, 도·농 협업 모델과 로컬푸드 직거래를 넘어서, 중국 3농 문제 해결과 중국사회의 생태문명 건설을 위한 포괄적 솔루션>. 그리고 문제의식으로 <지금까지 3농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사회 전체 시스템 내에서 농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전체 경제 시스템 내 산업의 한 가지로 보고 있다. 농업을 사회의 가장 낙후된 업종으로 보는 산업자본, 금융자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그리고 이런 주류적 사고에 의거한 교육이 바로잡히지 않는 이상, 3농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요원하다>. 또한 한국의 유기농 마을 흥동의 사례, 귀농 청년의 농촌 정착 이야기, 생산자와 소비자 협동조합을 위한 워크숍, 생태농업기술 세션(벼, 채소, 과일, 차잎, 종자, 증의약재, 양식), 향촌진흥과 지속가능한 발전(농촌의 지속가능교육 추진, GMO, 원난성 리장시 지속가능한 발전 프로젝트 공동체 사례), 우량

종자(다원화된 종자 시스템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 구축, 종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활로), 상업화에 잠식되지 않는 공공가치 구현, 빈곤퇴치 정책, 중국사회생태농업연맹의 PGS인증 지속가능성 탐구 (PGS 중국의 이야기, 파머스 마켓과 소농의 연계, 허난성河南省 귀농 청년 호조팀의 PGS 실천 경험과 교훈, 푸저우福州시의 PGS 발전과 전망), CSA의 생존(소비자의 자발적 조직탄생, 생태공동체에 관한 인식, 가정농장의 운영과 이에 대한 고찰, 생태 소농에 관한 이야기, 한 공익조직의 CSA 생태 소농의 길), 도시농업과 먹거리교육, 생태 농업 브랜드와 전통 농업문화, 생태농업 기술포럼(토양, 환경, 유기비료) 등 여러 세션으로 구분하여 밤샘 토론과 발표가 진행되었다.



2017년 CSA대회 해외연사로 초청된 한살림 윤형근 상무 발표 중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국가 정책에 있어 일방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중국식 탑다운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학계가 먼저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실천방안을 찾는 동시에 대중담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참가자 스스로 “앞으로 우리의 농업은 환경친화적이어야 하며, 자발적으로 향토(농촌)를 선택해, 농촌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앞으로 농촌은 새로운 농업과 농민이 있어야 형성되는 것으로 농촌에 인재와 활력이 넘쳐날 때야 비로소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 우리는 신농민新農民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이렇게 농업을 알고—懂, 농촌과 농민을 사랑하는—兩愛, 일동양애—懂兩愛의 신농민들이 도시 외곽에 살면서 농촌 주변의 소농들과 연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며, 경작 면적이 적은 50~70대 농민을 연결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판매 플랫폼과 제품 브랜드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신시대, 향촌 ‘건설’에서 향촌 ‘진흥’으로

지난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³⁾에서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은 ‘시진핑 習近平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긴 이름의 새로운 사상을 제기했다. 중공의 공식적 설명에 따르면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사상이 필요한데 그것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

3) 중국공산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5년에 1번 개최되며,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2017년 10월 18일~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상'이라는 것이다.

사회 정책의 차원에서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會)의 완성'이 눈에 띈다. 공산당은 2020년을 소강사회 완성 시점으로 잡았는데, 그 시점이 공산당 19차 중앙위원회 기간(2017~2020)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산당은 16차 당대회부터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해 분투하였고, 중국 인민의 실질 소득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부분이 상당한데, 가령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문제가 그러하고, 빈부격차 또한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3농 문제를 국정의 가장 핵심으로 삼고 농업세 폐지, 사회주의 신농촌건설, 농민 전업합작사범 시행, 촌관제도 등의 정책을 펼쳤지만 중국의 3농 문제는 여전히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결국 시진핑 시기의 중국은 그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전면적인 소강사회의 건설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으려면 그에 어울리는 성과가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시진핑 정부의 가장 큰 목표인 '빈곤한 사람이 없는 소강사회'를 이루는 데 가장 걱정거리는 상대적으로 수입이 열악한 농민이므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재정은 물론이고 사회적 관심 또한 농촌으로 쏠릴 수밖에 없으며, 농민들의 복리 상황은 장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신농촌건설 정책과 생태문명건설 정책에 힘입어 농촌·농업 문제도 최상은 아닐지언정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만큼 중국 농업이 상대적으로 압축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보장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우리 농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진핑 집권 2기 출범의 제19차 당대회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실행하는 첫 작업으로 중앙정부의 국무원이 중앙1호 문건에서 여전히 ‘3농(농업·농촌·농민)’을 발표하고 기존의 향촌 ‘건설’을 향촌 ‘진흥’ 전략으로 표기해 의미를 강화했다. 이 문건에서는 “산업 진흥, 생태적인 삶, 향촌문화 진흥, 효율적 농촌 거버넌스, 생활수준 향상产业兴旺、生态宜居、乡风文明、治理有效、生活富裕”을 목표로 담고 있다.

이렇듯 정부 중앙1호 문건은 제19대 당대회에서 처음 제시된 농촌 ‘진흥’ 전략의 청사진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지난 9월 ‘국가농촌진흥전략규획(2018~2022년)’을 제정해 보다 구체화된 로드맵을 토대로 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020년 소강사회 실현을 앞두고 가장 걸림돌인 농업 분야의 각종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중국공산당 농촌공작조례’도 제정하여 전략 추진을 독려한다고 하니 국정과제에서 차지하는 농촌 ‘진흥’ 전략의 위상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거리 곳곳에서 “중국 특색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했다”는 선전물을 볼 수 있다.

중국의 합작주의 실험

필자가 참가한 두 행사에는 농민·농촌·농업을 융합하는 삼농三農 주의를 진작에 제창하여 중국 농업의 큰 방향을 제시한 원테전溫鐵軍⁴⁾ 교수가 모두 참석하였다. 2012년에 설립된 서남대학의 중국향촌건설학원은 중국 인민대학이나 북주임업대학 등과 함께 원테전 사단의 두뇌집단이다. 이곳에서 열린 제1회 신시대 중국향촌건설포럼에서는 충칭 지역의 애국실업가이자 사회적기업 대표였던 루주오 루作孚 선생의 다큐멘터리 상영을 시작으로 민국시기1912년~1949년 충칭 지역에서 평민 교육과 농민협동조합운동에 힘쓴 연양추宴陽初, 1890~1990, 중국 전통문화를 강조하며 향촌건설운동에 영향을 미친 량슈밍梁漱溟, 1893~1988 등 주로 농촌에서 농민들의 빈곤 퇴치와 경제적 자립 활동에 합작사(협동조합) 방식을 적극 활용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이들의 정신과 가치를 강조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다. 사실 신중국 성립 이후 공산당은 농민들의 생활 개선에서 더 나아가 사회주의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합작주의⁵⁾를 정치적으로 적극 활용한 바 있다.

중국의 애국주의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은 서구열강의 침탈에 대항하고 구시대 봉건국가인 중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왔다. 오랜 봉건체제와 신흥 군벌체제로 정치 사회가 매우 혼란한 상태에서 중국의 정치계와 지식계에서는 다양한 서구 사상과 이념을 받아들였고, 어떤 사상과 이념이 중국 사회를 개조하

4) 현 중국 서남대학교 중국향촌건설학원 집행위원장

5) 합작주의 즉, 협동조합주의는 당시 평민합작, 계급화해, 평화추구의 방식으로 새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상이었다. 협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인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했으며, 20세기 초 중국의 정치, 사회뿐 아니라 농촌경제를 재건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장지엔
(張謇, Zhang Jian)
(1853~1926)
난통(南通)실업을 통한
촌락주의 실천



옌양추
(晏陽初, Yan Yang Chu)
(1890~1990)
1926년 덩현(定縣)
지역 자치운동



량슈밍
(梁漱溟, Liang Shu Ming)
(1893~1988)
조우핑(鄒平)
지역 자치운동



루조우푸
(盧作孚, Lu Zuofu)
(1893~1952)
베이베이(北碚)
지역 자치운동

는 데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있었다. 위 사진의 인물들은 급진주의와 자유주의 사상 중간에서, 서구의 사회개조운동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중도적 사상인 협동조합사상을 받아들여 중국에서 합작운동을 전개했던 이들이다.

20세기 초 서구의 다양한 사상들이 중국에 유입되고 실험·실천되었지만 중국의 이런 협동조합 운동에 대해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연구가 부족하다. 대다수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농민혁명 시기와 신중국 성립 이후 공산당의 농촌 합작화 운동을 대부분 소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길 뿐, 공산당 지도자들이 소련의 농촌 합작화 이전에 이미 서구의 공상적 사회주의와 합작주의 관련 문헌을 접촉했었고 이를 중국의 사회 개조에 적극 활용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신중국 성립 전후 공산당 지도부가 공상적 사회주의와 합작주의를 공산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활용한 사실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중국은 관공 중심의 농민전업합작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학계와 민초 차원에서 해외 협동조합 사례에 관심을 기울이며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서남대학교 제1회 신시대 중국향촌건설포럼(首届新时代中国乡村建设论坛) 고위급회담
 앞은 순서 왼쪽부터 원테진 교수, 왕시엔밍(王先明)남개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쉬시우리(徐秀丽) 중국
 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박사, 우충칭(吴重庆) 중산대학 화남농촌연구소센터장 겸 철학과 교수가 중
 국향촌건설의 사상과 소농(小農), 내재적 발전 등 중국의 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중국의 농촌전업합작사와 협동조합의 역할

우선 중국 연구자들은 한국 농협과 일본 JA의 성공 모델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한국이 기존 농협과 더불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다양한 협동조합을 농촌에 설립하고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자 모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우리의 농협과 유사한 JA라는 조직이 있어 법 제도에 있어서도 우리와 많은 유사점이 있지만, 중국은 것처럼 규모를 가진 조직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농업생산 분야에서 추진한 정치·경제적 제도와 역사적 결과 때문이다. 중국은 그동안 해체되었던 농촌의 협동조직을 다시 부흥시키고 이를 활용하고

자 2007년 법 제도를 도입하여 농민전업합작사⁶⁾라는 일종의 농업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수는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추세인데, 이들 전업합작사는 2017년 등록 기준 199만 9천 개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전업합작사의 규모를 보면 평균 17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인당 평균 출자액이 108.7위안(한화 약 2만 원)으로 그 규모가 영세함을 알 수 있다. 농민전업합작사의 업종은 재배업이 47%, 축산업이 35%이며 업무별로는 생산·판매형이 전체의 52%를 차지하는 등, 농업생산 및 단순판매를 중심으로 한 1차 산업 위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조건에서는 우리나라의 영농조합법인 처럼 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소규모 협동조합과 견줄 수 있다. 따라서 전업합작사의 규모가 영세한 현실에서 이를 어떻게 규모화하고 조직화하여 농업인의 충분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⁷⁾

지배구조 및 내용을 보면, 전업합작사의 의사결정은 거래량에 따른 비례표결로 이루어지고 일부 합작사에는 지배층 및 정부가 개입하기도 한다. 소수의 임원을 중심으로 합작사를 관리하는 등 민주성의 측면에서 협동조합 원칙에 어긋나는 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일반 농민조합원의 출자 비중이 낮아 자본 조달에 동등하게 참여하기 어렵고, 규모화되는 과정에서 소규모 농업인의 참여가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경영진 보수 등의 이익분배 구조가 없으며 정부의 지원 및 촌민의 신망으로만 운영되어 경영조직

6) 중국정부는 2006년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업합작사법(中华人民共和国农民专业合作社法)> 관련 규정을 발표하고, 2007년 7월 1일 시행했다.

7) 전업합작사의 수는 2007년 위의 법에 따라 폭발적으로 늘었으나 합작사의 내실과 질적 발전을 위해 2018년 수정법안이 시행되었다. <http://www.chinacoop.gov.cn/Item/129023.aspx>

구조를 만들지 못한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학자들은 전업합작사를 농촌개발 및 농업진흥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조직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들이 규모화될 필요가 있으며 정책적·금융적 지원을 통해 경영의 어려움을 개선해야 한다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학자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 아래서 전업합작사의 연합적 조직화를 통하여 한국과 같은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고 사업을 계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는 단기간에 정책화되기는 어렵다고 전망된다. 왜냐하면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을 조직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중국의 정치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정치적 측면에서 당국이 고려하는 점이 많기 때문이다. 여러 사회·경제 여건이 다른 가운데에서도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농협과 한국의 생활협동조합 운영모델에서 많은 점을 배우려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한살림이 전국 조직을 갖추고 성장하면서 농산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농정의 주요 파트너로서 그동안 농산업 발전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농촌의 다양한 사업 수요를 충족해 나가고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가는 측면에서 그동안의 흐름과 향후 발전 전망에 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인다.

이번 자리를 통해 필자는 한국과 일본의 농업협동조합 및 농촌발전의 경험과는 다르게 중국에서는 어떻게 농업 및 농촌 지역 협동조합 모델이 확립되고 발전할지 무척 궁금해졌다. 중국은 앞으로 경제발전 모델 속에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협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인식하고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는 추세이며, 우리가 고민하는 지역발전을 위한 협동조합으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중국 내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많은 시도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실제로 농촌의 변화에 협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충청지역 허추련(舍初人)유기농 농장 방문, 꾸러미 일손 돕기

중국 내부에서는 생태적인 전환을 꿈꾸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 그리고 여러 집단과 공동체, 이론과 실천 그룹들이 보다 자주, 보다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패치워크(patch work)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들은 ‘따로 또 함께’ 연대해 가면서 단단한 주류패러다임에 균열을 만들며 생태적 전환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실험하고 보여주고자 한다. 이런 노력을 보며, 당-국가체제의 권위주의 정부, 국가 자본주의, 게다가 19차 당대회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의 제기에서부터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에 따른 시진핑 1인 독재체제로, 강성 권위주의로 전환할 것이라는 중국에 대한 도식적인 결론보다 중국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신농민’ 관련 소개가 있기를 바라본다. 그리고, 중국의 다양한 주체들과 실천들이 ‘따로 또 같이’ 묶이고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소통의 중심에 본인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떨어지는 비행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후변화, 생태적 지혜로 접근하기

신승철

생태적지혜연구소 소장. 기후변화 시대 이후의 전환사회를 생태적 지혜에서 탐색하는 연구자이다. 쓴 책으로 『탄소자본주의』, 『구성주의와 자율성』 등이 있다.
autonomist@hanmail.net

서문 : 생명위기의 경고음, ‘헬게이트’는 열리는가?

비행기에서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린다. 새들이 양쪽 엔진에 부딪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한 상황, 155명의 탑승객을 태운 여객기의 운명은 단 한 번의 순간적인 선택에 달려 있는 상황이었다. 관제탑은 가까운 공항으로 회항을 지시한다. 하지만 기장은 자신의 경험과 직관을 믿고 허드슨강으로 비상 착륙을 선택



<설리 : 허드슨강의 기적> 포스터

하고 비행기는 강으로 하강한다. 크린트 이스트우드가 메가폰을 잡고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은 영화 <설리 : 허드슨강의 기적(SULLY, 2016)>을 본 사람들은 단 208초의 짧은 시간에 응집되어 나타난 주인공의 고뇌와 지혜, 판단과 선택에 감탄사를 내뱉게 된다.

여기 또 하나의 비행기가 낙하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 40억 명의 인류를 싣고 우주를 달려가던 지구라는 여객기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비상상황이다. 2018년 여름, 드디어 지구여객기의 추락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한국 40°C, 유럽 48°C, 인도는 무려 60°C에 가까운 기온, 가히 살인적인 상황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된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기후변화가 물 순환의 이상과 기상재해, 생물 종 대량멸종, 해양생태계의 절멸, 절기살이의 붕괴 등을 유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식량 위기'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최근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수천만 명의 캐러밴 난민의 발생은 지구라는 여객기가 추락하고 있다는 증후이기도 하다.

기후변화의 상황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극복 가능하리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탄소고정술과 같은 기술의 적용을 맹신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물론 화력발전소 굴뚝에는 탄소포집장치가 설치되는 중이다. 그러나 현존 문명을 작동시키는 에너지원이 화석연료인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탄소 감축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 과학기술은 삶의 양식의 표면에 적용될 뿐이지 근본적으로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문제는 삶의 양식, 즉 문명 전반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그 변화에는 자동차문명, 육식문명, 소비주의문명, 일회용품문명, 아파트문명, 텔레비전문명과 같은 대부분의 삶의 양식이 포함된다. 그리고 화석연료 기반의 문명 전반이 기후변화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생명위기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중이다.

기후변화의 막대한 상황 앞에서 비행기는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 비행기의 추락, 종말에는 세 가지 스펙트럼이 있다. 첫 번째는 지구의 종말이다. 그러나 인류가 없어지더라도 지구는 결국 다시 회복되리라는 전망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외로 해도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인류의 종말이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것이다. 인류의 종말 이후에 인간 종이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화성으로의 이주나 거대우주선처럼 SF영화와 같은 기획은 사실상 불가능한 환상이자 망상이다. 세 번째는 문명의 종말이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현존 문명의 종말은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다. 여기서 세 가지 종말의 상황을 유심히 생각해 본 사람은 곧 깨닫겠지만, 우리는 문명의 종말을 인류의 종말로 향하게 하지 않는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화석연료문명, 육식문명, 자동차문명 등은 끝장나겠지만, 그러한 문명이 약속한 편의와 혜택 없이도 인류는 어렵사리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비행기는 떨어지게 되어 있지만 그것이 연착륙이 되어 인류가 살아남게 될지, 경착륙이 되어 인류까지도 모두 절멸할지는 우리의 선택의 순간과 조종간에 달려 있는 셈이다. 즉, 문명의 종말을 인류의 종말로 향하게 하지 않으면서 문명 전환의 계기로 바꾸는 생태적 지혜가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다.

우리는 지금-당장, 전환의 특이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비행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절규하며 외치거나 우울감에 빠지거나 좌절하는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도약을 감행하고 이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서 서식하는 연결망의 지혜, 할머니들의 지혜, 생태적 지혜에 주목해야 한다. 즉, 지구Local라는 지금, 여기, 가까이에서부터 출발하여 행성 지구Global로 향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살림과 돌

봄, 정동의 ‘관계망의 영역’과 정책, 거대프로그램, 거대계획, 시스템, 구조 등의 ‘제도의 영역’을 공진화시키는 지혜도 필요하다. 때에 따라 예술, 혁명, 과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지혜를 구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막대한 생명위기 상황에 압도된 현재 우리를 둘러싼 우울, 불안, 좌절, 비탄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기후변화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정보가 주는 효과

그렇다. 대답은 이미 나와 있고,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마치 호사가들이 가십거리처럼 톱 던지듯 말하는 현실진단의 최신 정보와 지식은 우리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힌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해!”라고 절규하더라도 냉정한 정보와 지식은 대답으로 주어질 뿐이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탄소증가수치의 그래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뭐하냐는 듯한 몇몇 지식인들의 발언도 등장한다. 또 다른 경우에는 기후변화가 조작극이라는 지식인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판단은 수많은 과학자들의 논증과 검증을 믿지 않겠다는 망상이니 논외로 하겠다.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대답으로서의 정보와 지식의 한계 역시도 분명하다. 하나의 대답 이외의 다른 대답이 존재할 여지를 거의 주지 않기 때문이다. 목이 말라붙고 발이 덜덜 떨릴 것만 같은 막대한 기후상황이 최신 정보, 뉴스, 논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모두 정답이라고 말하며, 거기에 해답은 없다. 그러한 막대한 위기 앞에서의 압도와 무기력은 심각하게 마음의 생태계를 파괴한다. 무엇을 어디

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우울감, 좌절, 멘붕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잘 알게 되면 더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 이른바 후쿠시마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상황이 그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인근 지역주민들은 원전사고에 대해서 잊어버린 듯이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지냈다고 한다. 아무도 그것을 생각하려 하지 않고, 기억하려 하지 않고, 발언하지 않는 상황이 그것이다. 일상 은 그토록 조용히 지속되었다. 무언의 카르텔과 같은 낱빛 침묵이 아닌 집단 망각과 같은 평화로운 침묵의 상황이 후쿠시마에서 벌어졌고, 이러한 후쿠시마 증후군과 같은 상황은 막대한 기후변화의 현실 앞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진다. 사람들은 발언을 회피하고 생각하려 하지 않고 행동하려 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마치 처음 알았다는 듯이 되묻기도 한다. 거대한 망각의 ‘레테의 강’을 지나 간 것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다. 최신 정보와 지식을 실시간으로 받아보면서, 어떻게 나와 우리 가족이 요행히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연구하는 개인들의 등장이 그것이다. 이러한 생존주의적 맥락의 문제점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대안만을 탐색한다는 점에 있다. 기후변화의 막대한 상황과 거대한 식량 위기, 물 부족의 상황에서 도시도 농촌도 부자도 빈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물론 자신이 먼저 대비하고 비축한 부와 자원, 에너지가 있다면 얼마간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구생태계는 서로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어서, 작은 벌레나 식물, 나무의 멸종도 결국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거기에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 하물며 거대한 식생, 생태, 자연, 생물권의 변화를 초래하는 막대한 기후변화의 상황은 우리가 당연시하며 살아왔던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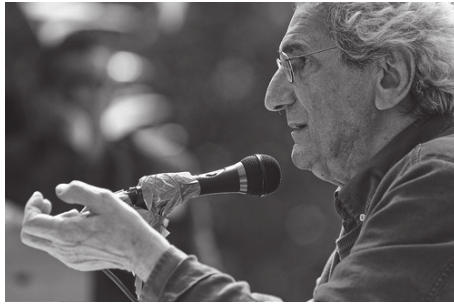
양식 전반을 뒤흔들 것이다. 그 시작은 엄청난 수의 난민의 발생으로 드러나고 있다. 생태학자들은 지구 평균 기온이 2도씨만 상승하더라도 현존 문명의 혜택, 즉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라이프라인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전 세계의 10% 미만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구획 안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의 발버둥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더 나아간 경우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어차피 끝나게 되어 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위안과 위로, 향유, 쾌락과 관련된 삶, 소비주의, 향락주의, 물신주의, 힐링, 웰빙, 율로 등의 삶으로 향하자는 것이 그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삶은 암울한 미래에 대한 회피와 도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 있다. 이들은 상처받아서 위안과 위로를 얻으려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역으로 쾌락과 향유라는 망각의 독주를 마시려고도 한다.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마라, 바꾸려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고, 더 망가지게 하는 것이다”라는 식의 비판과 우울감이 오히려 현재 삶의 표면을 흐르는 즐거움과 향유를 만든다는 역설이 여기서 발생하다. 이러한 반행동주의, 반미래주의, 반지성주의와 같은 행동의 배후에는 일회용품처럼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만 즐기려는 관점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더 진행되면 바로 탄소파시즘, 즉 기후난민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되지도 않는 성장주의가 등장한다.

찰나의 미학,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단기투기성 자본

자본의 기본 속성은 미래의 시간을 차압함으로써 자기증식을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미래로부터 끌어올 자원이 없다는 점, 미래라는 시간의 지평이 사라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속에서의 자본의 기괴한 움직임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자본,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자본은 미래에 대한 투자의 원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황에서 부동산투기와 같은 단기투기성 자본으로 제 모습을 변신시키고 있다. 즉, 미래가 암울하고 미래에 전망이 없음을 스스로 파악한 자본의 퇴행과 의고주의(擬古主義)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결국 그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고, 미래를 완전히 포기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본은 일회용품과도 같은 찰나의 현재만을 탐닉하기 시작한다. 최소한의 혁신, 사회적 책임, 경영 원칙 등도 사라지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새로운 관료제지충마저도 등장하고 있다. 이는 완벽한 유아기로의 퇴행이며, 자본이 보이는 갑질의 행태는 결국 봉건제로까지 퇴행할 수도 있다는 점마저 드러낸다.

결국 자본의 퇴행을 뒤집는 것은 사회의 영역이다. 여기서 사회적 경제와 공동체경제, 마을경제 등의 중요성이 등장한다. 이탈리아의 정치철학자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는 최근 발간한 『어셈블리 assembly』라는 저작에서 대안세력들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기존에는 혁신이나 리더십, 경영 등이 자본의 영역이라고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미래의 전망을 포기한 자본의 등장 상황에서, 미래세대와 사회의 미래전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회적 자본 섹터에서의 리더십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하지만 그 리더십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 왔던 방식의 카리스마를 가진 개인의 리더십이 아니라 협동조합, 공동체, 마을 등의 집합적 리더십의



네그리의 연설 장면¹⁾

형태를 띠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미래로 향하는 색다른 입자가속기를 발동시켜야 한다는 막중한 시대적 임무와 책임을 현재 떠맡은 상황이다.

이제 대안세력들은 막대한 기후변화의 상황 앞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호소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유기농업, 자원재생산업, 협동조합, 공동체기업 등에 대한 투자는 바로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현재의 수백 배에 달하는 재원을 필요로 한다. 단기투기성 자본의 퇴행으로부터 벗어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자본이 갖고 있는 사회적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호소와 열망, 열정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현존 기술의 흐름과 방향성을 나름대로 규정하면서 이념화 작업을 했던 ‘4차 산업혁명 담론’의 문제점은 인간사회의 미래 전망에 대해 크게 주안점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결국 인간을 지나치게 뺄셈하는 4차 산업혁명의 포스트휴먼 담론이 아니라 인간이 더욱 필요한 재생에너지에 대

1) “네그리 “노라고 말하는 것, 최초로 해야 할 윤리적 행동””, <한겨레> 2012. 1. 5. (www.hani.co.kr)

한 답론이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의 진정한 방향성일 것이다. 이러한 미래투자는 태양과 바람의 나라라는 미래전망으로 향할 것이다.

생태적 지혜라는 문제제기가 던지는 전환의 상상력

결국 막대한 기후변화의 시대에 해결 방안은 “왜?Why”에 뒤따르는 “그러므로 ~은 ~이다”라는 식의 대답으로서의 최신 정보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대답은 ‘현존 문명이 유지된다면, 결국...’이라는 전제조건을 깔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논리구조에 따라서 화석연료문명이 왜 문제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화석연료 사용이 가져올 막대한 상황이 초래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그 답은 어떻게 화석연료문명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How”에 뒤따르는 문제제기들에 주목하게 된다. 결국 본질과 이유에 대한 질문이 아닌 작동과 양상에 대한 질문이 대안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문제제기이기 때문이다. “어떻게?”라는 질문은 우리의 생활양식과 문명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수정해나갈 수 있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석탄과 석유로 이루어진 발전소, 화학제품, 냉난방연료, 운송, 수송 등에 대해서 그래프로 그려내고 그 이유를 밝히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생에너지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왜?”라는 질문의 방식을 정보와 지식의 방식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입구와 출구가 명확히 일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즉,

이유가 있으면 결과가 있고, 문제제기 하나에 대답 하나가 할당되는 인과론적 방식의 ‘의미화’의 논의이기 때문이다. 그 대답은 옳거나 틀리는 두 가지 결론밖에 없다. 그러나 “어떻게?”라는 질문의 방식을 통해서 입구와 출구를 분열시키는 경우 대답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개여서 경우의 수를 형성할 수도 있다. 그것은 지도화의 논의, 즉 전략적 지도제작의 논의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입구로서 문제가 되었던 지점에 아주 색다른 미래의 여러 가지 출구를 끌어와서 현재의 입구에 역으로 적용하는 역행적 방법론 역시도 바로 지도화이다. 동시에 그 입구와 출구의 분열은 엄청난 에너지와 활력, 열정의 원천이 될 것이다. 쉬운 예로, 시험을 못 봐서 패배감에 머문다면 입구와 출구가 일치하는 의미화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시험을 못 봤는데 갑자기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활력을 발휘함으로써 인생의 다른 방향성에 놓인 미래의 출구를 끌어와 색다른 지도를 그려내는 것도 가능하다. 결국 “왜?”가 대답으로서의 ‘정보와 지식의 의미화의 논리’라면, “어떻게?”는 문제제기로서의 ‘정동과 지혜의 지도화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시대에 “어떻게?”에 주목하는 생태적 지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태적 지혜는 숲, 갯벌, 바다 등의 공유지에서 싹터 왔던 색다른 지식유형이다. 자본주의에서 널리 통용되는 “이것은 내 거다”, “이것의 경계는 여기까지다”라고 딱 구획 지어서 사고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통념상 지식체계로 환영받지 못했던 것이 생태적 지혜였다. 즉, 사물의 본질이 아니라 결과 가장자리, 주변에 주목하는 지혜이다. 다시 말해 상품처럼 경계와 구획이 분명하고 사랑과 정동, 욕망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리와 환상을 외부에서 기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처럼 모호한 구름과도 같은 정동, 욕망, 사랑이 아로새겨져 있는 증여와 호혜의 이야기

구조가 발생하는 것이 생태적 지혜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대답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살림과 생명, 아이들이 던지는 문제제기에 주목하는 것이 생태적 지혜인 것이다.

기후변화 시대에 생태적 지혜는 삶의 양식, 문명, 사유와 실천의 형태를 바꾸는 원천이자 방법론이 될 것이다. 전문가들이 통계와 그래프 앞에서 좌절하고, 관료들이 자동적인 기능연관과 똑딱거리는 회의 절차에서 기능정지되고, 시장이 미래투자의 가능성을 잃어버리고 전망을 상실할 때, 생태적 지혜의 방법론은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전환사회를 구성하고 인류문명을 재건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共有 영역에 있던 협동조합, 공동체, 마을, 사회적경제 등은 공유公有 영역에 있는 공공 영역, 제도와 시스템과의 구성적 협치를 통해 전환사회의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 또한 공유共有 영역의 집단적 리더십은 사유私有 영역인 시장을 미래로 향한 방향성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 “어떻게?”라는 생태적 지혜의 경우의 수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늘려나가는 특이점으로서의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미래는 우리가 경우의 수 하나하나를 늘려갈 때 선택 가능해진다.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는 경우의 수 하나의 설립과도 같다. 이에 따라 생태적 다양성 속에서 회복탄력성, 신축성, 유연성, 복잡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재특이화 과정, 즉 특이성 생산을 통해 경우의 수로서의 특이점 하나하나를 반복시켜내고 설립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우리는 아주 색다른 미래로 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를 미지의 무정형의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 설립할 특이점의 경우의 수가 만드는 생태적 다양성으로 보는 시선이 요구된다.

문제는 현재의 순간, 즉 “이 순간이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사건의 순간”이라는 실존의 순간, 지금-여기의 순간, 단독성의 시간의 재건에 기후변화 시대가 연루된다는 점에 있다. 현재는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의 교차이다. 그런데 기후변화 시대는 과거로부터 유래된 현재, 즉 오래된 지혜로서의 과거적 현재를 무력화시킨다. 생태적 지혜의 일부라고 할 수 있었던 종자, 발효, 약초, 절기살이, 식생 등이 기후변화의 거대한 환경의 변화 앞에서 대대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태적 지혜를 내용이 아닌 표현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물론 과거로부터 전승되고 구전되던 생태적 지혜 중 여전히 유효한 것도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와 의미를 지닌 것도 많다. 하지만 기후변화 상황에서 우리가 익숙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과 변화가 배치와 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태적 지혜를 미래적 현재의 방법론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과학, 실험, 예술, 살림의 미래적 전략, 미래세대에 대한 육성과 지원, 미래의 특이점 설립, 전략적 지도제작 등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생태적 지혜와 전문가주의에 대한 비교

생태적 지혜	전문가주의
문제제기	대답
어떻게?	왜?
지도화 (입구와 출구의 분열)	의미화 “~은 ~이다”(입구=출구)
구성주의 (대답이 없거나 여러 개)	객관적 진리론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대답)
미래로 향하는 리더십과 협치 등 실천	대안의 부재, 좌절, 회피, 우울

정동이라는 오래된 지혜가 던지는 대안의 상상력

물론 오래된 지혜로서의 과거적인 생태적 지혜 중에서도 지속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 정동affect의 영역이 바로 그것이다. 정동은 돌봄, 살림, 모심, 보살핌, 섬김 등으로도 불려 왔다. 정동은 욕망, 사랑, 돌봄과 동의어로 간주되어 왔으며, 스피노자가 창안한 개념이기도 하다. 정동은 꿈쩍 안 할 때의 마음인 감정, 기분, 환상, 망상이 아니라 돌보고, 아끼고 보살피고 닦고 정돈하는 등 움직일 때의 마음이며, 위생적이고 탈색된 채 접촉하는 정보와는 달리 접촉하고 관계하고 사랑, 정성, 인격, 욕망, 정 등이 오갈 때 발생하는 마음이다. 기후변화 시대야말로 정보와 지식, 감정생활, 미디어생활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등장한다. 좋은 친구를 돈으로 사는 심리학적 발상, 현실 배치의 변화가 없는 마음수련이나 힐링, 선수련, 미디어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 기반한 개인주의, 그리고 상품, 지식, 서비스, 관계마저도 소비하는 소비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명의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의 질문을 던지고 오래된 지혜인 정동으로부터 해답을 찾고 있다.

기후변화 시대는 관계를 소멸시킨 채 어떤 삶의 영위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줄 것이며, 공동체에 익숙지 않은 미래세대, 1인가구, 돌봄으로부터 배제된 노인 등에게 막대한 위기상황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기후변화 상황에서는 사회 자체를 무차별 사회가 아닌 간헐공동체 사회로 재편하고, 공동체가 여러 세대를 넘나들고 온·오프를 망라하며 정주성과 유동성을 횡단하도록 재특이화해내고, 개인을 가족만이 아닌 2인조, 3인조 식으로 짝짓는 형태의 모듈화를 통해서 소집단 유형으로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재건과 구성이 정동, 사랑, 욕망의 순환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생존과 생활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문명의 전환을 앞당길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주의야말로 소비주의의 기반이며, 탄소중독적 문명을 작동시키는 원천일 뿐만 아니라, 자본의 흐름에 따라가면서 성공주의와 승리주의, 즉 성장주의의 망상을 작동시키는 동시에 고독, 소외, 무위, 외로움의 절규로 전환사회의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무기력 지층에 쉽게 노출시키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시대에 정동과 사랑, 욕망은 금욕주의, 의고주의, 퇴행에 의해서 더욱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입자가속기처럼 작동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분자적인molecular 정동, 욕망, 사랑의 지도화의 과정을 몰적인molar 탄소소비의 의미화에 수렴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분자는 여러 모델을 넘나들고 횡단하며 지도를 그리는 것이 라면, 몰은 하나의 모델에 수렴되고 집중하여 전문가주의에 입각하여 의미화하는 것이다. 즉, 소비로 귀결되지 않는 사랑, 욕망, 정동의 가속화로 나아가야 전환사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요지이다. 기후변화 시대는 예술, 창조, 생산, 과학, 문화, 대안적인 상상력의 시대를 여는 정동의 입자가속기의 무한변주 시대가 될 것이다. 그것은 소비주의나 미디어중심주의가 한 번도 겪지 못한 춤과 노래와 열정, 에너지, 활력, 예술의 시대일 것이다.

‘문명의 종말’의 계기를 ‘문명의 전환’의 특이점으로

2018년 10월 3일, IPCCUN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48차 총회가 있던 인천 송도컨벤션회의장 앞에 청소년 100여 명이 모여들었다. 환경단체도, NGO도, 정당도 기성세대도 아무도 없는 곳에 청소년들



IPCC 회의를 방문한 청소년기후소송단 ©신경준

만이 기후변화를 막자고 나선 것이다. 청소년들은 기후변화 문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며 그것은 미래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 세대에게도 해당된다는, 1.5도씨를 마지노선으로 기후변화의 한계를 제한해 줄 것을 호소했다. 송도 행사장에는 청소년들, 즉 도래한 미래세대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미래는 때로는 무척 가까이 있으며, 다가와 노래하고, 호소하고, 외치는 목소리로 현현한다. 그러한 미래세대의 전망을 포기한다는 것은 바로 기성세대의 끔찍한 책임방기이자, 회피이자, 전망상실일 뿐이다.

미래는 무정형의 미지의 시간이 아니라, 이미 곳곳에 도래해 있다. 그래서 미래를 현재로 소환하여 입구와 출구가 다른 지도를 그릴 수 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도 있겠지만, 이미 도래한 미래는 바로 이 청소년들이다. 이들의 말처럼 1.5도씨를 한계선으로 하려

2) “누진제 완화가 기후변화의 대안일까요?”, <오마이뉴스> 2018. 10. 4. (www.ohmynews.com)

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수백 배로 늘려야 한다. 에너지소비자로서 재생에너지 없이는 어떤 편의도 누리지 않겠다는 점을 정부와 기업들에게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세 먼지와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 화력발전소를 당장 멈추고 화석연료제로시대를 열도록 정부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들의 말처럼 되려면 관행농이나 수입산 농산물이 아니라 유기농이나 로컬푸드를 먹음으로써 음식과 화석연료의 검은 고리를 끊어야 한다. 또한 육식 대신 채식이나 동물복지축산을 통해 아주 적게 가끔씩 제값 주고 제대로 알고 먹어야 한다. 이들의 말처럼 되려면 자동차 대신 자전거 사용과 보행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화학제품과 일회용품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며,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야 한다. 개인주의와 소비주의가 아니라 공동체, 마을,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재건해야 한다. 이 모든 실천은 정동과 사랑, 욕망의 활력과 생명에너지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예술활동처럼, 문화활동처럼, 미래의 강렬도에 감응한 무언의 춤사위처럼 말이다.

비행기는 결국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를 갖고 있다.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의 미래를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조종간을 놓지 않는 실천은 언제든 가능하다. 각 세대들, 이를 떼면 미래세대와 현재세대, 과거세대는 산산이 흩어져서 저 혼자 살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으고 상상력을 발동시키고 정동, 사랑, 욕망의 입자가속기를 더 활기차게 가동시켜야 한다. 다가올 문명의 종말을 문명전환의 특이점으로 만드는 지혜를 우리는 무한히 증식시키고 재특이화해야 하는 것이다. 미래세대는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고 이미 말하고 있다. 다른 세상, 다른 삶은 가능하다. 우리에게 외침을 전달한 미래의 올림과 떨림에 공명해 보자! 

우리는 언제 지구를 느끼는가

이문재

시인,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시집 『지금 여기가 맨 앞』, 『산책시편』 등을 펴냈다. slowslow@naver.com



지구를 구하는 열 가지 생각

존 B. 카 주니어 씀, 한윤정 번역, 로도스, 2018.

소가 제 꼬리를 휘둘러 쇠파리를 쫓는다
 물에서 나온 개가 부르르 몸서리치며 물방울을 털어낸다
 아토피에 걸린 어린아이가 밤새도록 제 살을 긁는다
 지구가 비스듬히 기운 채 무서운 속도로 자전하는 까닭을 알겠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광욕하는 이유를 알겠다

피부병이 도져서 그러는 것이다
제 살갓에 들러붙은 것들을 떼어버리려는 것이다
태양의 힘으로 소독하려는 것이다
- 졸시, '지구 생각'

1980년대 중반, 원로시인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다. 당시 나는 스물 일곱, 첫 시집 발간을 준비하던 무명시인이었다. 그때 그분께서 내게 두 가지 충고를 해주셨다. “마음에 들지 않는 시는 발표하지 말라.” “때때로 대자연 앞에 서보라.” 그분의 가르침을 한동안 잊고 지냈다. 원고 청탁이 들어오기만 기다리던 젊은 시인에게, 서울 한복판에서 막 월급을 받기 시작한 직장인에게 문단 대선배의 권고는 비현실적이었다.

만시지탄. 사십대로 접어들어서야 깨달았다. 돌아보니 편집자의 독촉에 못 이겨 완성도가 떨어지는 시를 발표했고, 대자연과 마주하는 것이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 못지않게 힘들었다. 늘 미뤘다. 일단 문예지에 발표하고 시집을 묶을 때 다시 손을 보면 된다고 넘어갔다. 자연과의 만남도 매번 유예됐다. 다음 주말에, 돌아오는 여름휴가 때, 다음 학기 방학 때... 나는 거대도시를 떠나지 못한 채 집과 일터를 오갔다.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의 반복이었다.

나는 시인으로부터 아주 멀어져 있었다. 반성이었을까, 아니면 자각증세였을까. 1990년대 초반, 삼십대로 접어들 때였다. 뭔가 이상했다. 안팎에서 이물감이 느껴졌다. 내가 나 자신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도시에 적응하기가 어려웠고 생산력을 우선하는 경제논리를 따라가기가 버거웠다. 마음이 몸 밖으로 나가 떠돌았다. 지금, 여기, 나. 이 셋이 서로 만나지 못했다.

아마 그 무렵이었을 것이다. 생태 환경 문제에 예민해졌다. 격월간 『녹색평론』을 탐독했다. ‘조화로운 삶’을 추구한 스콧 니어링의 책을 펼쳤고, ‘게으름’을 찬양한 러클레르크의 학술원 강연을 읽었으며, 윌슨 호숫가에서 자울과 존엄을 실험한 헨리 데이비드 소로를 부러워했다. 내 감수성과 상상력은 소위 느낌의 미학 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1994년에 펴낸 두 번째 시집 『산책시편』 이후 내 시를 지탱하는 기둥 중 하나가 ‘녹색’이었다. 1990년대 초중반, 생태문학론이 문단과 학계에서 이슈로 부상했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하지만 생태문학은 유행병처럼 번지다가 이내 사라졌다. 내 시는 조금 외로워졌지만 나는 위축되지 않았다. ‘모든 진정한 시인은 심오한 생태학자’라는 『녹색평론』의 모토를 붙잡고 내 시 안으로 생태, 생명, 평화, 지구를 초대했다. 시의 사인화私人化 경향을 인정할 수 없었던 나는 시가 더 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믿었다. 시가 더 큰 시공간에, 즉 문명사적 맥락에 거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구적 상상력이란 용어를 자주 내세웠다.

앞에 인용한 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구’라는 단어는 그 이미지가 너무 크고 무겁다. 별이나 새, 그리움이나 외로움처럼 시와 친밀하지 않다. 우리 현대시는 의외로 까탈스러워서 아직 시의 나라에 입국하지 못한 존재들이 의외로 많다. 내게 땅이나 물, 바람, 공기, 불과 같은 시어는 다정다감하다. 내 시 안에서 불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지만 지구는 그렇지 않다. 우리 유전자, 우리의 무의식이 아직 지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다. 지구를 구체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느끼기가 어려운 것이다.

인류가 지구 전체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게 된 것이 채 반세기가 안 된다. 물론 우주선에서 촬영한 지구를 자주 본다고 해서 하루아

침에 지구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의식, 특히 지구와 우주에 대한 체감온도는 근대 이후 끊임없이 낮아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성과 과학기술의 눈부신 진전이 천지자연에 대한 우리의 오랜 친화력을 거세시켰다. 우리는 지구 안에서 지구와 결별했고, 지구 안에서 끊임없이 작아지고 있다.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 존 캡의 신학과 만나다

이번에 서평을 쓰지 않았다면 존 B. 캡 주니어(이하 캡)라는 생태 신학자를 만나는 데 시간이 더 걸렸을지도 모른다. 토마스 베리나 이반 일리치는 낮이 익지만 캡은 이번 책을 통해 처음 만났다. 원고 청탁을 받았을 때 의아했다. 내가 잘 모르는 저자인데 왜 하필 나에게 글을 부탁했을까? 지구를 구하는 생각들이라... 책 제목이 마음을 조금 움직였다. 게다가 편역자가 한윤정 씨이고 책을 기획한 주체가 ‘지구와사람’이었다. 나는 선뜻 서평을 쓰겠다고 했다. 기자 출신인 편역자 한 씨와 강금실 변호사가 이끌어가는 ‘지구와사람’에 대해서는 모른 바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3년여 전, 나는 법조계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는 ‘지구와사람’ 창립 준비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다.

캡은 미국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이고 환경사상가이다. 1925년 일본 고베에서 나고 자랐는데 부모가 감리교 선교사였다. 캡은 어린 시절 고베 소재 캐나다학교를 다녀 일찍부터 다윈주의를 경험할 수 있었다. 1940년 미국 조지아로 이주하고 편협한 인종주의와 마주하면서 교회, 미디어, 고등교육, 국가가 만들어내는 이념의 틀에 거부감을 갖기 시작했다. 군에 입대해 일본에서 복무하다가 귀국해 1947

년 시카고대에 입학했다. 이때 자신의 신앙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진다.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매우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나의 동반자였고 구세주였던 하나님은 쉽게 증발했고 내 기도는 천장으로부터 튕겨나왔다”고 토로할 정도로 캡의 신앙은 흔들렸다.

캡은 시카고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 기독교를 과학적 · 역사적 지식과 양립시키고자 했다. 대학원에서 철학적 상대주의를 접했고 지도교수 찰스 하츠혼을 통해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과 만났다. 하츠혼 교수는 화이트헤드의 제자였다. 그러니까 캡은 학문적으로 화이트헤드의 손자였다. 캡은 시카고대 신학대학원에서 일대 전환을 이룬다. 캡은 1952년 박사학위를 받고 조지아 주 대학 강단에 서는 한편 순회교회 목사로 활동하다가 1958년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에 자리를 잡는다. 1971년 학술지 『과정 연구 Process Studies』를 창간하고 2년 뒤 과정사상연구소를 공동 설립했으며 1998년 이후 격년으로 국제화이트헤드콘퍼런스를 열어왔다.

번역자의 친절한 해설에 따르면, 화이트헤드는 플라톤의 형이상학과 경험론, 프래그머티즘, 진화론, 양자이론 등을 종합해 자신의 유기체 철학을 완성했다. 분과학문 중 하나로 고립된 신학을 되살려내야 한다고 생각하던 캡에게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철학, 즉 과정철학은 비상구였다. 캡은, 자연을 하나의 기제로 본 데카르트를 비판한 화이트헤드가 옳다고 보았다. 캡은 서양철학을 지배해온 이원론과 대학의 분과학문 체계를 뛰어넘고자 거부했다. 캡은 화이트헤드의 종합적 세계관을 따라 윤리학, 불교철학, 생물학, 경제학 등을 자신의 신학적, 철학적 관점과 결합시켜 ‘과정신학’을 탄생시켰다. 기독교가 생태적 세계관과 만나기 시작한 것이다.

캡은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을 ‘포스트모던’이라고 명명했다. 하지만 캡의 포스트모던은 유럽의 그것과 확연히 구분된다. 유럽이

‘해체적’ 포스트모더니즘에 경도된 반면 캡은 ‘구성적’ 포스트모더니즘을 내세웠다. 유럽의 탈구조주의자들이 세계에 대한 종합적 비전을 거부한 데 반해 캡은 반시대적이라는 비판을 무릅쓰면서도 형이상학과 종합적 세계 모델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았다.

과정철학에 뿌리를 둔 과정신학은 전일성, 상호연관성을 핵심으로 한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한 문장으로 압축된다. 캡의 신학은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의 존재와 역할까지도 재정의한다. 그가 보기에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일방적으로 조종하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는, 일정 정도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캡은 하나님이 피조물의 욕구와 의지를 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다시 말해 피조물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악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존재와 함께 경험하고 공감하는 ‘동료’가 된다.

중국 공산당 당헌에 영향을 끼친 생태신학

캡의 과정신학은 1960년대 후반 생태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인류의 가장 긴급한 과제이며 기독교 신앙에 주어진 소명이라는 각성에 이르면서 생태신학으로 확장된다. 1971년 『너무 늦은 걸까?: 생태론의 신학』을 출간하면서 기독교가 전파한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생태계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한다. 1981년 캡은 찰스 버치와 함께 펴낸 『생명의 해방: 세포에서 공동체까지』에서 생물과 무생물,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경계를 무화시키는 생태 모델을 제시했다. 진화하는 모든 생명은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이와 같은 목적성은 ‘삶을 믿으며’

신에게 다가가려는 인간의 종교적 의지와 다르지 않다.

캡의 생태신학은 주류 경제학에 대한 비판에서 더욱 현실성을 갖는다. 근대화 이후 자본주의 세계 시장이 과학기술을 포섭하면서 경제가 성장할수록 지구 생태계는 파괴되기 시작했다. 인간이 풍요와 편리를 추구할수록 땅과 하늘, 산과 바다는 오염되고 황폐해졌다. 캡은 ‘지속가능한 경제복지지수GPI’를 개발한 데 이어 세계 질서를 개편해 공동체와 생태적 균형을 추구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최근 국내에서 캡의 생태신학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실천 활동이 중국 공산당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캡은 대학 울타리를 과감하게 벗어나 다양한 종교와 대화하는 한편 전 세계 학자들과 이마를 맞댔다. 돈의 논리에 포박된 경제주의에 반대하며 ‘지구주의’를 주창하던 캡은 21세기 들어 환경문제에 직면한 중국에 화이트헤드 철학과 함께 생태적 세계관을 전파했다. 캡은 자신의 제자인 중국 철학자 왕쩌허와 함께 중국에 36개에 달하는 과정사상 관련 연구소를 개설했고 매년 미국에서 국제생태문명포럼을 열어 중국 학자와 활동가를 초청했다. 이 같은 활동이 2012년 중국 공산당으로 하여금 당헌에 생태문명을 국가 목표로 설정하도록 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이다.

『지구를 구하는 열 가지 생각』은 캡이 지금까지 펴낸 50권의 저서에 포함되지 않은 글을 모은 것이다. 이번 책에 실린 대부분의 글이 2010년 이후 캡이 <뉴 호라이즌 New Horizon>과 <판도 포퓰러스 Pando Populus> 웹 사이트에 칼럼 형식으로 수록한 것이다. ‘열 가지 생각’을 펼치기에 앞서 캡은 “나는 희망적인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얼마나 남을 것인가.” 다른 하나는 “우리는 폐허에서 지속가능한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러면서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이 “최상의 생태적 사고와 최상의 인본

적 사고를 결합하고 과학적, 종교적, 윤리적, 예술적 통찰력을 한데 모은다”라며 화이트헤드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캡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 긴급하게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하는 열 가지 생각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동양사상이나 전근대 토착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했던 세계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에서부터 종교, 교육, 경제, 주거, 제조업,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고 또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들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의 미래, 즉 지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구현하기 위한 캡의 열 가지 생각은 다음과 같다.

- 1) 실재는 상호 연관된 사건들로 구성된다.
- 2) 내재적 가치의 위계가 있다.
- 3) 하나님은 가치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 4) 인간은 고유한 가치와 책임이 있다.
- 5) 교육은 지혜를 위한 것이다.
- 6) 경제는 생물권역의 번성을 향해야 한다.
- 7) 농업은 토양을 되살려야 한다.
- 8) 편안한 주거는 자원을 최소한 사용해야 한다.
- 9) 대부분 제조업은 지역적이어야 한다.
- 10) 모든 공동체는 공동체들의 공동체의 부분이어야 한다.

지구를 구하는 열 가지 지침 외에 내가 이 책에서 얻은 ‘새로운 생각’은 마틴 루서 킹의 사상을 화이트헤드와 연결시킨 대목이다. 킹 목사는 인권과 평화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공동체의 소중한 목표라고 보았으며 만일 킹이 더 오래 살았다면 ‘모든 생명이 상호성의 네트워크에 포섭돼 있다’는 자신의 비전을 실현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캡은 킹 목사를 구성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예언자라고 부른다.

주류 경제학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도 설득력이 있다. 캡은 지구를 파괴시키는 엔진 중 하나인 주류 경제학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행복의 경제학’을 옹호한다. 캡은 특히 금융자본주의가 야기하는 전 지구적 폐해를 지적하면서 부분지급준비금 제도에 기반한 민간은행의 신용창출, 즉 ‘가상경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화폐창출을 국유화해야 실물경제가 살아나고 ‘소비자’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캡의 견해에 나는 동의한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도 ‘돈’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의외로 무지하다. 카지노자본주의라고 불리는 가상경제 체제에 대한 대안이 녹색경제, 자립(공동체)경제다.

캡은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을 지향하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여덟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 첫 번째가 기독교를 절대시하며 타자를 박해하는 ‘기독교주의’다. 두 번째는 물질과 정신을 이원화한 데카르트 이후의 현대 형이상학이고 세 번째는 ‘문제를 일으킨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대 과학이다(아인슈타인도 똑같은 지적을 한 바 있다). 이외에도 민족주의, 경제주의, 국방정책, 미국 예외주의, 대학 시스템 등이 생태문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책의 맨 마지막에 한국의 생태문명에 관한 캡의 발언이 실려 있다. 2017년 11월 미국 클레어몬트에서 국제콘퍼런스가 개최됐는데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과정사상연구소 소속 한국생태문명프로젝트가 한국 관련 콘퍼런스를 마련하고 그 자리에 캅을 초청한 것이다. 캅은 현재 중국에서 추진 중인 생태문명의 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한국인들이 생태문명을 향해 힘을 합치기로 결심한다면 그 성과가 조만간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캅은 동아시아에서 추구하는 보편가치인 ‘조화’가 서양이 추구하는 ‘정의’보다 잘 기능한다면 조화에 기반한 공동체가 생태문명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 콘퍼런스에서도 캅은 대안(공동체)경제와 교육의 혁신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지구를 살리는 또 하나의 생각, ‘내 몸이 신전이다’

글머리에 소개한 줄시 ‘지구 생각’은 지구가 처한 위기를 간접적으로 환기한 것이다. 인간 개개인이 지구에 대한 감수성을 되살려야, 다시 말해 인류와 지구와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더 나은 미래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 인간에게 ‘지구 감각’이 매우 부족하다는 안타까움이 전제된 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 앞에 지구가 전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인류에게 지구를 새롭게 각인시켰다. 하지만 지구는 이내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7년 후인 2018년 지구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다. 아니 지구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왔다. 우리가 지구를 상상하는 능력이 갑자기 탁월해졌기 때문이 아니다. 불행하게도 지구 생태계가 동시다발로 ‘반격’에 나섰다기 때문이다. (초)미세먼지에 이어 한 달 가까이 지

속된 초열대야, 잦아지고 강해진 태풍, 얼음 없는 북극의 여름, 조금에서도 발견된 미세플라스틱 등 종말론적 뉴스가 연일 매스컴을 타면서 지구와 우리 개개인의 몸(삶)이 직접적으로, 또 매 순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나는 <지구를 살리는 열 가지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캡의 권고는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울 만큼 하나하나가 다 절박한 ‘예언’이다. 나는 캡의 신학적 고뇌와 생태론으로의 전환을 존경한다. 전 세계에 걸친 그의 실천 활동에도 경의를 표한다. 언제나 그렇지만 문제는 ‘나’다. 나와 이웃의 실질적 전환이다. 삶의 방식의 전환이다. 나는 시인이므로 시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시의 근본 역할 중 하나가 인간의 내면과 천지자연을 이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우리가 직면한 미증유의 위기가 인간과 자연의 단절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잃어버린, 아니 우리가 자본주의문명에 빼앗긴 ‘시의 마음’을 되찾는 것이 생태문명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믿고 있다.

시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인 ‘나’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나뿐 아니라 새와 벌레는 물론 나무와 돌에 이르기까지 이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세계감(世界感)이 곧 시의 마음이다. 나는 이것이 화이트헤드의 과정(유기체)철학의 요체이자 캡의 과정신학의 핵심이라고 이해한다. 시의 마음은 질문하는 마음이기도 하다. 본질, 기원, 핵심에 관한 궁금중이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시의 마음이 출발하는 중차대한 질문 중 하나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면 누구나 문제의 실체, 즉 산업문명의 거대한 그늘과 마주할 수 있다. 생산력 우선주의에 의해 생명이 아니라 ‘공산품’으로 전락한 식물물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농수축산물 또한 인간과 다름없는 고귀한 생명체이자 지구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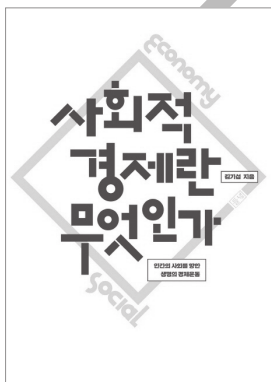
태계의 엄연한 구성원이다.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섭취하는 음식만큼 우주의 상호연결성을 증명하는 것도 흔치 않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쓰고 말해왔다. '식탁이 지구다. 식탁이 유턴 지점이다. 우리 몸이 문명전환의 구체적 장소다.'라고. 우리 몸은 '신전(神殿)'이다. 고귀하고 신성하며 유일무이한 존재이자 주체이고 장소다. 우리가 우리 몸을 신의 거처라고 인식할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은 '순결한 제물'로 승격한다. 그때 우리는 음식을 '먹는다'고 하지 않고 '모신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몸이 저마다 모심을 받는 대상이자, 모심을 주고받는 신성한 장소라고 상상해보자. 내가, 그리고 내 앞의 당신이, 그리고 우리와 그들이, 인류와 천지자연이 새롭게 보이지 않을 것인가. 

생명의 사회경제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김기섭 씀, 들녘, 2018.



류하

한알마을 이사장. 원주 지역에서 공동체운동과 '무위당 만인회' 일을 함께하고 있다.

syukim333@hanmail.net

어느 날 갑자기 '사회적기업'이 유행되더니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협동·조합'이 유행되더니 「협동조합 기본법」이 생겼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가 유행하더니 이구동성異口同聲: 말 그대로 처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소리를 냄 '사회적 경제'를 유행한다. 채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2018년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신고 인가된 협동조합은 10,615개로 2차 조사 결과(2014년말 기준 6,235개)보다 대폭 증가되었다. 10,615개 중

‘사업 중단’ 혹은 ‘폐업’한 협동조합은 4,447개로 41.9%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별로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이 건열(乾熱)에 들뜬 열광의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경제’를 비판하거나 성찰하는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사회적 경제’에 편승한 지식인들의 백가쟁명식 주장이 난무하고, 한반도라는 공간을 통해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협동운동을 해온 당사자들과 무관하게 저마다 자기식으로 규정짓기에 바쁘다. 대체로 그들의 시선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실천을 통해 차곡차곡 쌓아온 내공(?)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서구 유명 이론가의 시선이거나 서구 철학과 경제 이론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생소한 용어로 버무려진 어려운 이야기들이다. 우리 사회에 사회적 경제 담론이 출현하기 훨씬 이전부터 있어온 다양한 협동조합, 생명공동체운동을 통해 축적되어 온 활동가들의 이야기와 담론들은 쉽게 뒤로 밀쳐진다.

해방 후 한반도 남단에서는 민초들의 사회운동이 아무리 신선해도 해석과 설명에 대한 이론적 담론은 지식인들의 서구추수적인 경향을 쫓아 확산되었다. 협동조합의 선구적 길을 걸어온 담론과 이론들을 소개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나 이전부터 있어온, 내재적인 자기 담론과 활동을 축적해온 운동조차 서구적 시선으로 규정짓는 것은 때로 신선함을 넘어 불쾌함마저 일으킨다. 우리 사회의 내재적 문제의식,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생명들과 함께해온 철학과 사상에 기초한 협동조합·생명공동체 담론과 실천이 꼭 서구의 시선에 의해 해설되거나 재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서구 근대체제를 넘어서려는 운동과 시선의 담론을 서구에서만 찾아야 한다는 형용모순을 낳는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근대화에 대한 성찰은, 서구의 시선이나 서구에서 진행된 운동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우리 내면에 흐르는 전통과 시선을 중심에 놓고 창조적 조화와 변용

을 꾀해야 새로운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내재적인 문제의식과 시선을 통해 협동운동 혹은 생명운동을 해온 사람들이 시대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담론의 발전과 시선의 확장을 가져오지 못한 점과 성찰의 부족은 지적되어야 한다. 한살림을 비롯한 생명협동운동 및 한국의 다양한 영역에서 오래전부터 해온 협동운동이 자기담론의 발전과 확산을 가져오지 못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역량 부족과 게으름이 큰 몫을 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급격한 서구 근대화 과정을 겪은 한국 사회에서 국가와 자본의 도움 없이 민초들의 자발적 의지를 중심으로 내재적 담론에 기초해 자기입지를 구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찌 되었든 80년대 출발 당시보다 생명운동과 생명협동운동은 확산되었고 사회적 인식도 훨씬 개선되었지만, 아직 우리 사회의 주목할 만한 시선과 담론은 될지언정 무게중심은 아니다. 생명협동운동이 한국 사회의 중심_{重心}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풍성한 담론이 출현해야 하고, 토의와 실천을 통해 검증되고 사회적 동의를 얻어나가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제시되었던 원칙과 소론들이 주류 경제학 담론의 좌·우 편향을 넘어서 탈근대적인 ‘생명의 사회경제’ 담론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기섭의 책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는 시기적 적절성을 가지고 출판되었다. 이 책은 우선 저자 자신이 평생을 화두로 공부하고 실천해 온 생명사상과 협동운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결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책에서 저자는 경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양의 사회이론, 종교, 철학 등의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자신의 의견을 정리했다. 많은 영역을 넘나들지만 딱딱한 논문의 형식을 빌리지 않고 조곤조곤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형식으로 집필되었다는 점도 이 책의 특징이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선

김기섭은 400쪽이 넘는 책을 통해 우리 사회에 횡행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론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의 위치를 독특하게 규정짓는다. 국가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경제, 이른바 진보적 지식인들이 말하는 사회적 경제, 그 외에도 ‘사회적’이라는 말을 자기식대로 신화화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분석하고 비판한다. 저자는 자신만의 시선으로 사회적 경제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그는 지금 우리 사회에 통념처럼 번지고 있는 ‘국가 주도의 시장 실패 보완경제’로서의 사회적 경제 관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나’를 위한 ‘모두’의 경제 행위이고, 국가경제는 ‘모두’를 위한 ‘모두’의 경제행위입니다. 이에 비해 사회적 경제는 기본적으로 ‘나’를 위한 ‘우리’의 경제행위입니다. (중략) 사회적 경제가 존재하는 기본 이유는 사회로부터 소외를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데 있지, 시장으로부터 소외를 구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회로부터 배제된 이들을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 시장으로부터의 소외를 구제하는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경제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사회인이고, 그 대상은 시장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밖에 있으며,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시장에서의 구제가 아니라 ‘사회적 통합(social inclusion)’에 있습니다.”

요컨대 사회적 경제는 말 그대로 ‘사회’에 중심이 있는 것이지 시장에서 소외된 혹은 시장의 실패로 생겨난 문제들을 국가가 해결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는 법률의 제정,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수립과 지원으로 이어지는 국가 주도 혹은 장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에 편승한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은 아닌지 반어적으로 묻는다. ‘인간이 주인인 세상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일체의 생명이 주인 되게 하는’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는 데 사회적 경제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강변한다. 저자의 이러한 주장은 지금까지의 문명이 인간 중심의 자연(생명) 수탈 경제였음을 지적하는 것이리라. 그동안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비롯한 대안경제를 논할 때 핵심적인 문제는 소유의 문제였다. 이는 마르크스를 비롯한 사회경제론의 시선이다. 생산수단이라고 이야기하든 자본이라고 하든 그것을 누가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경제문제의 출발이다.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해 소유와 생산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와 교환양식의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한 사람이 칼 폴라니이고 최근에는 일본의 사사가 가라타니 고진이 있다. 김기섭의 문제의식은 두 사람의 시선과 연구에 많이 의탁하고 있다. 다만 김기섭은 자본의 본질이 ‘생명’이라는 데로 더 나아간다. 칼 폴라니는 교역의 세 유형을 ‘자연’에서 자연과 인간의 대사를 지칭하는 상호성(호혜), ‘사회’에서 인간과 인간이 나누는 ‘재분배’(교류), ‘경제’에서 생산물과 생산물의 교환이라는 ‘상품교환’으로 나누고 이런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제도로 ‘경제’와 ‘사회’를 나누는데, 김기섭은 여기에 ‘자연’(생명)을 하나 더 추가한다. 모든 제도의 바탕에는 자연과 인간의 ‘대사(代謝)’가 바탕이 된 연후에 ‘교류’와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자연’이기에 자연을 추가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되기에 ‘자본은 자연(생명)의 집적물’이라는 주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다음은 자본의 기원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의식혁명에도 불구하고 ... 농경과 목축이라는 현실로 구현하는 데는 무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 즉, 보습과 쟁기를 만들 나무, 파종할 씨앗, 기다리는 동안에 먹을 식량, 자연과의 계약을 위한 공물 등은 모두 자연이고 자연의 비축이었습니다. 수렵과 채집이 자연에서 얻은 먹잇감을 즉석에서 다 소비하는 것이었다면, 농경과 목축은 자연을 비축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연의 일부를 비축한 덕분에 인간은 자신의 의식혁명을 농업과 목축이라는 현실 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었고...”

이것이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상품집적으로서의 자본’과 다른 점은, 마르크스는 자본을 ‘인간노동’의 다른 표현으로 본 것이고 김기섭은 자본의 본질은 자연(생명)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시선의 이동은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데 있어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한다. 마르크스의 관점이 자연에 대한 인간 우위의 관점이라면 저자의 관점은 인간에 대한 자연의 우위 혹은 자연 속에 포섭된 인간으로 그 위치가 뒤바뀌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것의 ‘물신화’에 대응한 모든 것의 ‘신성화’로의 전환이자, 인간 중심 경제에서 생명 중심 경제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생명 중심 경제로의 이동은 ‘인간과 자연의 분리 속에 인간 우위의 시선과 철학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우주·생명) 속의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경제가 작동하는 문명으로서의 이동이다.

“상품집적으로서의 자본은 실은 인간노동의 다른 표현입니다. 인간의 생산노동과 소비노동 사이의 간극에서 자본의 증식이 일어나고, 따라서 이런 자본에 의해 둘 사이의 간극은 더욱

벌어집니다. 이에 비해 생명집적으로서의 자본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노동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연의 생산력과 이에 대한 인간의 기다림 사이의 간극에서 자연과 인간을 통일시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이때의 자본입니다.”

그런데 자연이 하는 일을 ‘노동’이라고 표현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그러하다는 것이고 자연이 특별히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가지고 노동(?)을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만 인간의 노동이 ‘자연스러운 노동’(?)이 된다면 - 가령, 해월 선생은 30여 년의 도피와 포교의 생활 속에서 한시도 일을 멈춘 적이 없다고 한다. 머무르는 마을에서 해월이 행한 노동은, 결과로 생긴 것을 누군가가(생명이) 쓸 것이라는 무심無心의 노동이었다 - ‘자연노동’이라는 언어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의 사회경제와 무대 그리고 주인공

이 책의 제목인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는 내용을 알든 모르든 상당히 도발적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이 존재하고 각각의 시선들은 적어도 일면의 진실과 진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하여 ‘단정적 어투’의 김기섭의 책에는 수많은 논쟁거리가 있고 시빗거리가 있다. 하지만 필자가 과문한지 몰라도 이 책은 근대산업문명의 핵심인 근대경제체제를 넘어서고자 하는 ‘생명의 사회경제’ 담론을 체계화한 최초의 책이다. 그것 하나만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다. 더군다나 이 책은 우리가 사는 공

간(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경제를 사유하고 이웃과 더불어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경제를 일구는 주인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환기시킨다는 점에서도 특별하다. 더욱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서구 문명과 서구 철학 중심의 서구추수적인 건조한 사회적 경제 담론을 넘어서 한반도의 고대사 속에 존재했던 단군 사회와 마한 사회에서 이루어진 경제체제를 사회적 경제로 설명하고자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유럽의 ‘민중의 집’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한반도 역사에 존재했던 소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대비와 재조망으로 나아간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자의 말대로 학계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다양한 사회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한반도에서 새로운 ‘공동체 복지 사회’의 가능성을 찾는 것은 우리의 창의력을 자극하는 대목이다. 또한 공동체의 기본기능인 ‘우애와 환대’의 정신과 문화를 서구적 시선에서 벗어나 ‘제사와 축제’의 생명문화 관점에서 풀어내는 방식도 장점이다.

‘생명의 사회경제’를 구현하는 구체적 현장과 무대는 지역사회이다. 현재 한반도의 지역사회는 근대국가와 자본의 식민지이다. 지역의 자치self-governance를 위한 운동의 역사도 오래되지 않았고,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극히 작다. 그 속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전략은 다양한 교역양식의 사회경제조직들이 중층적으로 연결되고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저자의 말대로 “자본주의 세계가 시장경제 시스템의 동심원적 확장이라면, 사회적 경제의 지역사회는 인간과 그 삶의 방사상放射狀 다중결합”이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이제 성장의 극점을 맞이하였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고령화와 실업, 다양한 사회적 위기를 안고 있다. 그리하여 ‘지역사회’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대체할 새로운 문명과 문화의 근원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생명의 외경심

을 가진 민초들만이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쟁점이 되는 ‘사회안전망 구축 책임’을 ‘근대국가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을 살아가는 민초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관계망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감한다. 우리가 새로운 문명을 꿈꾸다는 것은 한반도라는 공간을 무대로 살아온 우리 내면에 켜켜이 쌓인 신령한 그 ‘무엇’을 바탕으로 해 새로운 담론과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자기 자신도 바꾸지 못하는데 무엇을 바꾼다고 할 수 있는가? 혁명이든 새로운 문명이든 자기 자신을 바꾸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옥의 티 같은 이야기 하나를 덧붙이자면, 저자가 이 책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나는 ... 생각한다”라는 어법과 사회적 경제의 ‘주체’라는 표현이 거슬린다. 자연으로부터 인간의 분리가 사회의 분리, 경제의 분리로 이어지는 인류문명사의 문제를 이 책에서 내내 지적하는 만큼, 서구 이원론의 출발점이자 타자에 대한 권력화의 시작인 ‘코기토cogito¹⁾’와 ‘주체’에서 이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싶다. 모든 생명 존재는 우주 속에서 더불어 존재하고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라면 ‘주체의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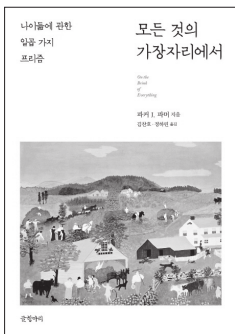
그러나 모든 것을 떠나 ‘생명의 사회경제’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터준 저자에게 한없는 고마움을 전한다. 

1) 데카르트의 명제 ‘코기토 에르고 슝cogito ergo sum(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나’는 이성적 존재이며 서구 ‘근대문명 주체’의 등장을 의미한다. 근대적 ‘주체’의 성립은 한편으로 타자의 탄생과 주체가 타자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권위와 지배관계가 발생하는 이원론이다. 반면에 한국의 전통사상은 하늘(한울,天)사상이다. 저자가 ‘제사와 축제의 의미’에서 논하고 있듯이 그것은 한반도를 삶의 공간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원형이다. 평상시에 잘 못 만나는 이웃 공동체들과 만나 하늘에 제사 지내고 하늘의 큰 덕을 찬양하고 즐겼으며, 한반도 역사 속에 내재적으로 흐르다가, 구한말 동학으로 분출하여 ‘시천주(侍天主)와 인내천(人乃天)’으로 널리 퍼진 개벽 사상이다. 이때 사람은 서양의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한울을 모신 존재’로서의 각성과 수심정기(守心正氣)하는 영성적 존재이다. 동학과 그 이전 한국의 사상사에서 주로 쓰인 용어는 주인(主人)이며, 그것은 공공(公共;모두가 공유한다는 의미)의 주인이다.

가장자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조완석

한살림성남용인 이사장, 자율과 자치로 운영되는 한살림 공동체의 부활을 꿈꾸는 조합원이다. shalom1111@hansalim.or.kr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서』
-나아둠에 관한 일곱 가지 프리즘

파커 J. 파머 씀, 김찬호·정하린 옮김, 글항아리, 2018.

파커 파머와의 만남, 그리고 한살림

파커 J. 파머의 책을 세 번째 만난다. 첫 번째는 10여 년 전 작은 독서 모임에서 만난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이고, 두 번째는 한살림 학습모임에서 함께 읽은 『온전한 삶으로의 여행』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책,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서』를 읽게 되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파머의 책을 만난 때마다 내 삶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를 읽은 시기는 내가 과천에서 상계동으로 이사하고 처음 한살림 햇살모임을 시작했던 때이다. 이전에 한살림에서는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시작한 ‘동화 읽는 모임’을 많이 했는데 우리 동네에서 ‘동화 읽는 어른 모임’을 함께했던 엄마들이 독서치료를 함께 공부하면서 독서 모임을 만들고 한 달에 한 번 책과 영화를 보았다. 그 책은 거기서 읽은 첫 번째 책이었다. 책 제목에서부터 신선한 느낌을 받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대부분 목적 지향적으로, ‘나’보다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문득 멈춰 서니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숨 쉬고 생각하는 유기체로 불쑥 내 앞에 나타났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낯선 이방인처럼, 나이면서 내가 아닌 척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마주하도록 해주었다. 그즈음 우리가 여는 소소한 활동에 ‘말을 걸다’라는 문구를 슬하게 써먹은 기억이 난다.

『온전한 삶으로의 여행』은 내가 한살림성남용인에서 처음 활동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습모임에서 함께 읽은 책이다. 그 동안의 내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살림에서의 자원활동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고, 그 속에서 어려움도 겪었다.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 내 생활의 영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밥 운동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보람도 크지만 나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정체성의 혼란이 나를 힘들게 했다. 한살림에서 쓰는 말들이 낯설고 어려웠고(특히 ‘조직’이란 말은 다른 뜻을 떠올리게 해 적응이 잘 되지 않던 말 중 하나이고, 한살림 정체성을 담은 ‘한살림 선언’은 또 어떠한가?), ‘활동 이전에 공동체를 이해하고 거기에 필요한 역량들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물음들이 쌓이던 무렵이었다. 이런 어려움은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서로 도움이 될 만

한 책을 추천 받아 읽으며, 한살림 활동 이전에 공동체의 삶을 이해하고 공동체 일원으로 가져야 할 덕목과 방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갈등을 풀었다.

가장자리의 시선으로 돌아보기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서』는 파머가 여든 살이 되는 해 출간되었다. 파머는 지역사회 조직가, 컨설턴트, 교수, 교장, 작가, 비영리 단체 창단 멤버, 피정 리더 같은 일을 맡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일했으나 밥벌이를 했던 직업 목록과 본인이 의미를 부여했던 직업 목록은 같지 않다고 말한다. 돈을 버는 수단은 자주 바뀌었지만 교사이면서 학습자라는 그의 소명은 늘 한결같았고 글을 쓸 때 자신의 소명이 가장 명료하게 드러났다고 한다. 이 책은 작가가 교사이자 학습자로 살아오면서 겪은 역경과 좌절의 시간이 어떻게 감사와 은총의 삶으로 변화되었는지 여든 살의 시선으로 기록한 책이다.

파머는 ‘가장자리에서는 한가운데서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는 커트 보니것의 작품 구절을 인용하고 책의 제목으로 삼았다. 나이 들면서 갖게 되는 가장자리의 시선은 자신의 생애가 파노라마로 들어오고 과거, 현재, 미래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깨워 준다고 한다. 그래서 파머는 나이 들을 좋아하고 나이 든다는 것은 감사와 은총이라고 말한다.

4년간의 한살림 이사장 역할을 마무리하는 총회를 앞두고, 역함이 끝나간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동안 다 못한 아쉬움과 조급함이 엇갈리는 요즘, 이 책은 나에게 지난 4년을 작가의 가장자리의 시선

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큰 행운으로 다가왔다.

이사장 역할을 맡은 초기, 무거운 책임감에 비해 스스로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긴장과 열등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이 책 첫머리의 첫 문장 ‘나는 매일 모든 것의 끝자락에 가까이 선다.’에서 파머가 말한 ‘끝자락’들을 매일 경험한 것 같다.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운 실수와 오해들, 미숙함에서 오는 딱딱함, 목적과 방향 없이 달려들던 지난 시간들이 보인다. 반면 동료이자 친구로, 선생님으로 나를 지지하고 도와준 사람들과 함께한 따뜻하고 고마운 순간들이 책갈피에 곱게 끼워둔 단풍잎처럼 환하게 떠오른다.

이사장이라는 역할은 한살림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결과, 관계들을 중심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경우가 많다. 협동조합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역할의 오해, 대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꾸만 나의 진솔한 감정과 생각들을 무시하고 놓치는 태도가 관계에서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한다.

우리가 가끔 농담처럼 주고받는 ‘한살림 해야 하는데 자꾸 두 살림을 한다’는 말처럼 우리가 하는 살림운동의 목표와 내가 사는 모습이 점점 멀어져감을 느낄 때 더 힘들어진다. 한살림을 하면서 지켜왔던 생활 습관이 무너지는 것에 이젠 무덤덤해졌다. 바빠서 사무실에 갈 때 도시락을 못 챙긴다. 빠듯한 회의 일정을 맞추느라 택시를 수시로 타고 점심시간이면 대부분 동료들과 사무실 건너편 식당가를 헤맨다. 식구들 밥상을 챙기는 일은 이제 까마득하고 친구들 사이에선 어느새 나의 참석을 묻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이런 유행어(?)를 변형해 읊조릴 때도 있다. ‘어쩌다 (이사가 되어서) ...’

역설의 시각과 다양성의 발견

그럼, 나는 왜 한살림을 하고 있지? 이사장 역할은 나에게 어떤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빼곡한 일정이 당연한 듯 회의를 하고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하다가 문득 ‘내가 왜 여기 있지?’ 하고 묻고 싶을 때가 있다. 작가는 찰나에 스치는 생각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 길게 여운을 남기고 아무 때나 불쑥 찾아오는 이 반복되는 질문에 대해 책의 3장에서 답을 내놓는다.

파머는 트라피스트회 수도사 토머스 머튼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고, 그를 영적 친구이자 인생의 안내자라고 소개한다. 이 책 3장에서 파머는 머튼이 강연에서 젊은 수도사들에게 한 말을 인용했는데, 그 말은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기 전에, 삶을 살아야 have a life 합니다!’이다. 나에게는 이 말이 ‘여러분, 한살림운동에 동참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로 들렸다.

그리고 ‘나는 이미 어떤 삶을 살고 있고, 한살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다가가는 운동이다.’로 받아들여졌다. 한살림에서 지향하는 철학과 목표가 내 삶과 분리되어 어디선가 똥똥 떠다니는 착각에서 벗어나, 나는 내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지금 나의 역할과 활동이 그런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또 이런 알아차림은 길을 잃어본 경험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나의 지난 시간을 위로한다.

파머는 지금껏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을 세 번 앓았다. 우울증은 파머가 겪은 시련 중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파머는 우울증을 자기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동력이자 친구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들려준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필요한 일이며, 마음이 유연하다면 그 일들로 무너지고 산

산이 조각난다기보다 부서져 열리기도 한다. 그 틈이 우리를 진실의 세계로 이끄는 열린 통로가 된다고 말한다.

그 열린 통로는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다양한 외부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길이 된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매는 동안 만들어진 열린 틈은 내 참모습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고, 비로소 행동하게 될 때 우리는 행복과 보람을 느낀다. 부서지고 깨지는 고통이 가져다준 통찰과 행복은 역설이다. 이런 역설의 시각은 머튼의 삶의 핵심을 이루고 파머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어야 하고, 또 이래야만 한다는 당위는 사람의 두려움에서 나온다고 한다. 나에게도 이사장으로서 스스로 요구한 기준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다. 활동을 할 때도 행여 ‘한살림답지’ 못할까(못하게 보일까봐) 조심스러워한다. 지금 생각해도 쉽지 않은 결정들을 해야 했고 혹시나 책임을 추궁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 우리가 만든 한살림에 대한 믿도 끝도 없는 환상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방황하게 할 때 많은 조합원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지금도 활동에 참여하길 망설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논리의 렌즈만이 아니라 ‘둘 다’라는 역설의 렌즈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새삼 깨닫는다. 나의 고정된 시각 때문에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한계를 넘지 못하고 좌절된 일들과 상처받은 사람들이 떠오른다. 그중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소외시킨 일이 꽤 많았을 것이다. 생각할수록 나를 비롯해 모두에게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다.

파머의 역설의 시각은 우리 공동체 안에 다양성을 허락하게 해준다. 파머는 다양한 종이 어우러져 사는 생태계의 풍요로움을 예로 들어 생물 다양성과 사회 다양성 간의 유사점을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다양성은 삶을 활력 있게 하고, 우리를 더 현명하고 창조적이

게 해주며, 우리 개개인에게 회복탄력성을 증진할 기회를 주고, 우리를 치유하고 생명을 주는 유머를 낳는다.

또한 가장자리의 시각은 중심의 시각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존재들을 발견하게 하고 무더진 감수성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리하여 사회적 현실에 스스로 발을 내디딜 때 사람들은 풍성한 생태계를 누릴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 말은 우리 주변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용기와 유연한 사고가 만든 깨진 열린 틈으로 풍성한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 인상적으로 마주했던 일본 생활클럽생협의 슬로건 ‘지키고 싶은 가치를 위한 변화’도 이런 생각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닐까?

사실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노력은 계속 되어왔다(모든 곳에서 그러했을 거라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가 시도하고 결실을 맺은 많은 일들과 실패의 경험을 거름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중기계획을 설계하고 내년 사업계획회의와 예산위원회가 한창 가동 중이다.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늘리는 정책을 만들고, 조합원의 삶이 담긴 매장을 만들고 그곳에서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역과 함께 사는 풍경이 되는 한살림을 꿈꾼다.

결과가 아닌 오직 ‘충실함’

얼마 전 한살림에 사표를 내고 다른 인생을 설계하는 분과 함께한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술자리를 같이하게 되었다. 내게는 한살림 선생님 같았고, 또 언제든지 한살림을 하면서 생겨나는 고민을 들어

줄 친구 같은 분이어서 늦은 시간까지 헤어지는 아쉬움을 달랬다. 무엇보다 역할이 끝나간다는 안도감과 그동안 다하지 못한 활동에 대한 아쉬움과 조급함이 엇갈리는 요즘의 나와 비슷한 심정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분은 마음이 어떠하시냐는 내 물음에 이렇게 말했다. ‘마음과 생각은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몸이 축축해진다...’고. 마음이 조금 먹먹해졌다.

해마다 지부, 지역, 연합에서 총회가 열린다. 한살림 같은 협동조합은 총회가 열리는 3월에 한 해를 시작해 다음해 2월에 한해가 마무리되는 듯하다. 한 해의 반은 총회에서 결정한 것들을 실행하고, 반은 총회를 준비하면서 지나가는 느낌이다. 그래서 어디나 총회는 제일 큰 잔치이고 우리 모두의 성찰과 각오가 담긴 신성한 의식이며, 새로이 선출된 일꾼들과 임기를 마친 분들이 교차하는 격려와 감사의 자리다.

나는 가끔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를 그려본다. 임기를 마치고 인사하는 분들을 보며 내가 하게 될 인사말을 생각해본다. 그때마다 한살림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었던 시간에 감사하게 된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기다려준 수많은 동료들이 떠오르고 별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까지도 모두 나와 연결되어 있는 충만한 감정을 느낀다.

이 책을 통해 파머는 이런 ‘순간’들의 의미를 더 깊게 성찰하고 발전시킨다. 우리의 꿈을 향해 정진했던 시간들 속에서 결과가 아닌 가치의 옳음, 그리고 일 자체의 진실에 점점 더 집중할 때 우리는 더 희망적이 되고, 결코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을 가치에 따라 살고자 할 때는 결과가 아니라 오직 ‘충실함’만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말한다.

파머는 나에게 묻는다. 최종 결산이 어떠했는지가 아니라 내 재능을 주변의 필요에 충실하게 연결시키려고 노력했는지, 내가 가진

최상의 것을 최선을 다해 세상에 내어주는 일의 가치와 정의에 충실했는지를.

나는 이 물음에 파머에게 배운 ‘가장자리의 시선’으로 답한다. 지난날에 대한 후회는 축복으로 바뀔 수 있고, 비판은 우리 일의 초점을 다시 잡고 결심을 다지게 하는 기회가 된다고. 나는 여전히 길 위에서 있고 환상에서 벗어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 더 알 수 있도록 깨어있길 바란다고.

내 삶의 가장자리에서

파머는 이 책에 내가 언급하지 못한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다. 가령 현재 자기 모습 전체를 받아들이는 법(노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기다려서는 안 되는 과제)의 중요성을 자기 삶 전체를 통해 이야기하고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 젊은 세대와 접촉해 그들로부터 배우고 에너지를 얻고 그들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라,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향해 움직여라, 마지막으로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자연에서 보내라, 라고 우리에게 슬며시 권한다.

이 책에 실린 파머의 에세이들을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캐리 뉴커머가 노래로 만들어 불러서 그 노래를 통해서도 파머의 글을 다시 느껴 볼 수 있다. 이 책의 추천의 글을 쓴 김훈 선생은 파머의 글을 읽으며 한국의 싱어송라이터 하덕규의 노래가 떠올랐는데 깊은 이야기를 가볍게 노래하는 하덕규의 미덕이 파머의 가장자리 시선과 닮았다고 한다. 김훈 선생이 들은 하덕규의 ‘숲’이란 노래를 찾아 들

으며 나의 가장자리 시선이 내 삶의 갈피들에서 만들어내는 리듬과 가사를 상상해 본다. 내가 나이 들고 성숙해져서 가장자리를 마다 하지 않고 오히려 즐겨워하며 그런 노래들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지금, 파머가 가장자리라고 부르는 ‘자유롭게 날아오르기 직전, 뭔가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기 직전, 평화와 기쁨을 발견하기 직전’의 순간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이 책의 말미에 작가가 인용한 중세시대 사랑의 시인, 노리치의 줄리안Julian of Norwich 시를 파머와 함께 웅얼거리면서 기대감으로 설레는 마음을 눌러본다.

‘다 잘될 것이다, 그리고 잘될 것이다, 모든 사물의 존재 방식
또한 다 잘될 것이다.’ 

시골 사는 젊은 여자의 서사는 그다지 우울하지 않다

열음

시골에 와서 안 해본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 고양이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자동차 운전
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편의점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proust.sd@gmail.com

들어가는 글 : 별 볼 일 없는 사람

서울에서 태어났고 수도권 지역으로 건너와 초·중·고등학교를 다
녔다.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대학에서 인문학과를 졸업하고 4년 정
도 서비스직에 종사했다. 소소한 채무를 제외하고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빚이 없고 땅이나 집 혹은 적금을 포함한 자산도 없다. 토익
점수를 비롯한 자격증도, 딱히 누가 탐낼 만한 재능도 없다. 그리고
2017년 4월 강원도 화천으로 귀농을 했다.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
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삼십대 비혼 여성이라는 설명도 덧붙여

야 할 것 같다. 여기까지가 누군가에게 피로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꺼내 볼 수 있는 나의 서사이다. 어쩌면 일곱 글자만으로 가능한 설명이기도 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대체로 내가 스쳐왔던 많은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대해 궁금함이 없는 듯했다. 아니, 그랬다. 가만히 있으면 툭 찰러보는 사람 하나 없을 때도 있었다. 나는 그렇게 배경이 되어 존재해있던 여러 날들을 거치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궁금함을 자아내지 않는 존재란 정체 모를 신비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다 알 것 같은 사람으로 쉽게 편입이 되어버리는 ‘부류’에 속했다. 누구나 그럴 때가 있는 것 같다. 알고 싶지 않은 타자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믿어버릴 때가. 하나의 뭉텅이처럼 보이는 사람들, 바로 나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나 자주 그러했다. 나는 그렇게 정치에도 사회적 연대에도 관심이 없는 무력한 청년이 되어본 적이 있고, 이 땅의 미래에는 아랑곳없이 저 살 궁리만 하느라 애도 안 넣는 이기적인 여성이 되어본 적이 있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성실하지도 않은 게으른 가난뱅이가 되어 본 적이 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시골에 농사지으러 가겠다고 하니 서울에서 할 거 없어서 농사나 짓는다는 그럴듯한 서사를 부여받은 적도 있다.

별다른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쉽게 써 내려갈 수 있는 서사가 있다. 백설공주 이야기만큼이나 익숙한 서사들이 그렇다. 나를 이루는 하나의 서사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서사를 쓴다. 보잘것없는 삶에 새로운 서사를 덧붙이는 일은 그렇게 시작된다. 앞서 밝혔듯이 나는 2017년에 강원도 화천으로 귀농을 했다. 그날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내가 왜 무력한 청년, 이기적인 여성, 게으른 가난뱅이가 아닌가에 대해 말해보려는 것

은 아니다. 그것들에 대한 설명은 내가 아니라 어떤 물음과 고민 없이 누군가를 그렇게 규정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답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보였는지를 말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보았는지를 말해야 한다. 또한 할 것 없어서 농사나 지으러 간 것이 아니면 ‘왜 이곳에 사는지’에 대해서도 말할 생각이 없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왜 유독 그 질문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쉽게 향하는가에 대한 반발심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질문에 내포된 빛나는 계획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만 꺼내고 말해볼 수 있을 뿐이다. 누군가에게 거칠고 단순하게 포착될 가능성이 다분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농촌에 속한 풍경에 대한 이야기. 그 과정에서 어떤 기대가 있다면 최대한 솔직하고 싶다는 것과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만날 가능성을 피고 싶다는 것 정도이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은 아마 나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일 것 같다.

아르바이트 생활자

어떤 날 통장에는 십만 원 남짓의 잔고가 찍혀 나왔다. 그즈음 내 선에서 굵직하게 느껴지는 돈을 써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던 것이 아르바이트를 구한 계기가 되었다.

그중 하나는 동네에서 활동하는 풍물반의 공연비 명목이었던 오만 원 정도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기 어려운 돈은 아니었다. 다만 단

돈 오만 원에 불만이 한가득 들어차고 초조함과 착잡함 사이를 오갔던 순간,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오만 원이라는 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나의 품위까지도 위협한다는 것을.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마음이 되자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붙은 구인광고를 발견한 건 딱히 운이 좋아서라고 볼 수는 없었다. 내가 사는 곳은 위수지역으로 규모에 비해 읍내상권이 활발했다. 누가 보기에든 짹짹한 수익을 올리는 몇몇 상점이 있었고 아르바이트생은 주부와 학생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저임금 노동시장은 그들과는 달리 가정과 학교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는 더욱 활짝 열려있었다.

그 사실은 분명 숨통이 되어주었다. 대부분의 농촌은 서울과 비할 바가 못 되게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적다. 그 적은 일자리의 대부분은 주로 기계를 다루거나 힘쓰는 일이 많아 여성의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데 운이 좋아서 찾게 된 경우에도 차가 없으면 접근하기 어렵다. 나의 경우도 읍내에 위치한 커피숍에 출근하기 위해서는 차를 사용할 수 있어야 했다. 안정적으로 출퇴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 과정에서 차를 공유해주는 이웃과 운전이 익숙해질 때까지 출퇴근을 도와주는 이웃, 그리고 운전 연수를 도와주는 이웃이 있었다. 수세에 몰리니 어떻게든 먹고사는 방법은 생기게 된 셈인데 결국 특별한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배경에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방법이기도 했다.

다달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소중했지만 농촌에 와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영위하는 모양새에는 이물감을 느꼈다. 밤 열한 시가 가까워 오는 시각에 불이 꺼진 이웃들의 집을 지나치는 퇴근길이 그렸고 시골에서 기대했던 삶과 계획들이 멀어지는 것 같아 씁쓸해진 마음을 보는 일이 그렸다. 내가 놓인 공간이 나와 맞물리지 않는 지

금이 두려웠던 건 밀려나기도 전에 제 발로 걸어 나가는 서사를 쓸 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 것인지’ 혹은 ‘이러려고 농촌에 온 것인지’라는 두 갈래의 시선과 질문 앞에서 당장 내놓을 수 있는 답은 나에게 없었다.

농촌은 청년의 얼굴을 환영했고 어떻게든 영입하고자 분주했다. 그들은 누구인가. 밝고 씩씩하고 싹싹한 청년. 빛나는 아이디어로 고부가가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청년. 선망의 대상이 되어 또 다른 청년을 끌어들이는 청년. 그들은 마치 가까운 존재인 것같이 친근했고 어딘가에 존재할 것같이 생생했다. 농촌과 그들이 맞물리는 풍경에는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다만 그들 외에 다른 얼굴은 상상할 수 없었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실재하는 사람들은 그림자가 되고 실제 없는 이미지가 사람을 대신할 때 누군가의 얼굴과 목소리는 드러날 수 없다. 아무래도 아르바이트 생활자는 농촌이 품고자 하는 청년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근사한 이웃과 근사_{近似}하고 싶은 마음

귀농하고서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당시에는 새로운 공간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기에 바빴다. 일하게 된 농장과 살고 있던 집과의 거리가 걸어서 오 분이라는 사실을 맨 먼저 체감했다. 매일 지하철에서 두세 시간을 보내온 사람으로서 출퇴근 시간의 파격적인 단축은 커다란 기쁨이었다. 이전보다 소비를 덜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뜻하기 때문이었다. 물론 당시에든 수입원은 고민거리였다. 서울·

경기 지역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때 주로 한 말은 다음과 같았다. “교통비, 외식비, 커피값 같은 것을 쓰지 않아도 되어서 이거 뭐 삼십만 원이면 한 달을 살겠다. 그렇지만 그 삼십만 원을 어디서 벌어야 좋을지 모르겠다.”

물론 동네에서도 소문난 ‘개털’의 입지를 재빨리 선점한 터라 이웃들로부터 먹을거리, 입을 거리뿐만 아니라 1년을 넘게 거주지 무상 임대 혜택을 받은 사람이어서 가능한 발상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삼십만 원은 터무니없는 액수였고, 전달하는 내용과 무관하게 목소리는 활기찼다. 그리고 주변에는 근사한 이웃들이 있었다.

근사한 이웃들의 처지는 고만고만했다. 먹고사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대개 ‘어마무시한’ 빚이 있었다. 그럴 듯한 집이 있어도 집의 절반 이상 혹은 전부가 빚이었다. 나의 처지와 결은 달라도 비슷한 구석이 있었다. 빚과 자산이 동시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빚도 자산도 없는 내가 있었다. 나는 빚과 친해질 용기가 없었다. 말하자면 단순한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믿고 싶었다. 이웃들과 근사_{近似}해지고 싶은 까닭에서였다.

처음으로 나와 이웃들 사이에 어떤 막이 존재하는 것을 느낀 건 ‘집짓기’가 대화의 주제가 되고부터였다. 나를 제외하고는 다들 집이 있거나 집을 지을 예정에 있었다. 그런 이유로 집을 짓는 과정을 실제로 지켜볼 수 있는 경험을 했고 집 공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전문 용어를 알게 되기도 했다. 집짓기에 관한 지식은 전보다 풍부해졌지만 그 이야기들은 지루하거나 별다른 흥미가 생기지 않았다. 그것이 나와 얼마나 관련 있는 주제인지,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지에 대해 생각하고부터였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을 짓는 일은 나에게 먼 미래이거나 맞지 않는 옷처럼 보였다. 빚을 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도 마찬가지였다.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아도 주변을 둘러봐도 매달 들어오는 돈을 모아 봐도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였다. 오히려 나에겐 1년이라도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거처가 필요했다. 집을 짓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느꼈던 소외감은 집을 짓는 상상을 통해 어렵사리 거처의 불안을 인식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근사한 이웃들과 동일시하고 싶은 마음을 벗어난 건 작은 수확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잠시 다른 갈래의 입지가 생겼다 사라지는 경험을 한 적도 있었다. 그 일은 나보다 이른 귀농을 하고 정착해 있던 사람과의 연애로부터 비롯되었다. 관계가 알려지고 얼마 되지 않아 친하지 않았던 이웃들로부터 초대를 받고 환대도 받았다. 내 앞에 놓인 따뜻한 국과 기름진 고기와 다정한 눈빛은 단번에 어떤 ‘입지’가 생기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같은 날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나름의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아이 계획에 대한 질문과 격려를 받는 일과 남자친구가 이제 밥을 먹게 되었다며 좋아하는 표정을 보는 일은 어쩔 수 없이 불편했다. 아무래도 현실을 빠르게 깨닫는 것이 여러 모로 나에게는 유리했다.

농촌 청년 여성들이 만드는 시공

나에게는 한구석에 고여 있는 마음과 생각이 흐를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 필요했다. 농촌청년여성캠프는 어쩌다 발을 들이게 된 곳이었지만 이어지는 모임부터 내 발로 걸어 들어갔던 건 그런 이유였다.

농촌청년여성캠프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청년 여성 농민들 간의 간담회에서 비롯되었다. 그 자리에 참석한 4명의 청년 여성 농



‘우리끼리 좋아서 하룻밤’ 단체사진

민들끼리 따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고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고 했다. 농촌에 살고 있는 청년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의 필요성이었다. 그날의 만남은 농촌청년여성캠프의 기획과 시작으로 이어졌다. 2017년 3월에 열린 첫 캠프 ‘우리끼리 좋아서 하룻밤’을 시작으로 지난 2년간 총 5회의 캠프가 열렸다.

캠프에 참여하는 건 두 방향의 소통 창구가 생기는 일이었다. 하나의 방향은 참가자들의 정체성과 그로부터 꺼내어져 나온 관심사에 있었다. 참가자들은 청년, 여성, 농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졌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지만 농촌의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언론에서는 섬세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는 주제의 이야기들이 공기처럼 떠다니는 풍경은 그 자체로 각별한 경험일 수밖에 없었다.

참가자들은 또한 여전히 제각각의 사람들이었다. 페미니즘에 대한 온도 차, 결혼 여부, 농사의 규모 등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그 안에서 길러져 나오는 고민은 차이가 있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세 갈래의 타자성을 어렵사리 통과하며 더듬듯 단어를 찾고 느리게 말을 잇는 사람도 있었다. 또 다른 방향은 말하기의 방식에 있었다. 누군가의 말을 가로채거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자기가 아는 선에서 규정하지 않았다. 사실 그러려고 애를 썼다. 어떤 이야기들은 농촌청년여성캠프와 같이 특정한 시공에서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바탕에 있었다. 조금 더 말하고 싶었고 조금 더 듣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첫 캠프의 장면 하나를 공유하고 싶다. 참가자들은 돌아가며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당번을 정했고 커다란 종이에 써서 벽에 붙여놓았다. 막상 식사시간이 되면 순번 같은 건 잊어버린 듯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고 치우는 과정에서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노동의 풍경이 만들어졌다. 처음 만난 사람들과 리듬감 있게 일의 호흡을 맞출 수 있었다. 서로의 몸은 말하지 않고도 어떤 종류의 일에 한에서 소통의 맥락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가는 글 :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

사회적으로 입지가 없는 사람일수록 선과 악으로 쉽게 나뉜다. 청년에게는 열정이 있고 없음이, 여성에게는 배려(희생)가 있고 없음이, 농부에게는 양심이 있고 없음이 그들을 쉽게 양분하는 것 같다. 문제는 ‘선’을 벗어나는 순간의 선택지가 ‘악’으로 한정될 때 우리 스

스스로가 '선'에 갇히게 되고 말과 행동을 검열한다는 점이다. 생각을 담아낼 언어를 찾지 못하는 것은 언어가 없는 것과 같다. 언어를 가져도 사용할 공간이 없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나에게 페미니즘이 건넨 이야기는 도처에 널린 선악과 이분법을 포착하는 시선이었고 그것들을 넘어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한 가능성이었다.

내 삶의 화두 중 하나는 자발적이고 우아한 가난이었다. 이전의 가난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사회적 약자의 계급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계급을 자각하는 경험은 소중하지만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스스로도 헛갈린다.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늘 헤매게 된다. 그만큼 대책을 요구하는 일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대책이 마련되는 일은 멀고도 멀다. 아득할 지경이다.

나는 여기까지만 말할 수 있다. '당분간' 농촌에서 살 예정이고 '당분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갈 예정이다. '지금 여기'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일이 아직까지는 나의 선택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조로운 농촌의 풍경에서 평범한 얼굴이 하나씩 늘어가는 건 여전한 희망이다. 다채로운 농촌의 풍경을 위해 아르바이트 생활자로 살아가려는 사명감이 딱히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면 이런 바람에 가깝다. 빛바래지 않고 삭제되지 않고 즐겁게 살아낼 거라는 것. 이 서사의 마무리는 생각보다 우울하지 않다. 

사회적 금융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 2018 사회적경제활동가대회



문지영 한살림연합 정책기획팀

2018 사회적경제활동가대회는 2013년 시작한 이래 벌써 4회를 맞는 행사다. 올해는 ‘연대로 여는 길, 함께 일어서다!’라는 주제로 11월 2일 전국에서 약 200여 명이 신협연수원에 모인 가운데, 사회적경제 활성화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금’을 주요 의제로 삼고 1박 2일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2018년 2월 정부가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금융 시장 조성에 나설 것을 밝힌 이후,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재무적 이익을 동시에 꾀하는 사회적 금융이 우리 사회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보다 본격화되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사회투자지원재단의 문보경 상임이사는 사회적 가치 중심



으로 금융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필요한 자금이 사회적경제 현장에 사각지대 없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자금의 조성 및 집행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전국주민협동조합,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발기인회,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각각의 자금조성 경험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중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정책자금은 많으나 쓰기 쉽지 않고, 또 민간 차원의 자금은 조성 자체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필요한 자금을 필요한 현장에 지원하는 도매기금의 역할을 소개했다.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손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 전국 889곳의 신협 중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 좋은 조건의 대출을 보장하는 거점신협 137곳을 지정하기도 했다.

기존의 금융은 금융이용주체의 신용과 담보능력만을 중시했다. 하지만 사회적 금융은 금융이용주체가 창출할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둔다.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일자리 부족, 양극화, 복지 등 다양한 문제를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한살림의 경우 그동안 한살림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합원과 생산자가 함께 스스로 조성해왔다. 한살림이란 개별조직 단위 외에도 지자체 및 농협 등과의 협력하에 공동출자하여 사업체를 만든 경우도 있으며(안성마춤식품 등) 작년에는 한살림펀딩을 창립해 한살림 생산자가 생산자금을 마련하는 데 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도 하였다. 농업살림이란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는 금융 생태계를 본격 조성하기로 한 셈이다.

이번 2018 사회적경제활동가대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한살림은 실행위원회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신협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생협 분야를 대표해 한살림을 소개하기도 했다. 국산 친환경유기농 먹거리를 매개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리를 좁힌 직거래 운동은 그 생산과 소비를 꾸준히 넓히는 경제적 성취를 이룸과 동시에 오랜 협력과 협동의 경험으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살림운동의 고민이 기존의 먹거리를 넘어 지역살림이라는 이름으로 돌봄 등 여러 복지 문제와 거버넌스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요즘, 한살림이 창출할 새로운 사회적 가치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개별 조직이나 지역 차원의 자금조성 외에 전국, 더 나아가 시민들의 보편적 이해에 기반한 통합기금 등이 함께 논의되는 이 때 ‘세상의 밥’이 되기 위한 한살림은 어떤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금융 논의에 힘입어 한살림이 나누고자 하는 ‘밥’의 구체적인 모습을 고민해 볼 수 있었다. 

2018 한살림재단 ‘생명·협동연구’ 지원 공모사업

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는 그동안 생명의 가치와 협동하는 삶을 실현하는 데 밑거름이 될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연구지원공모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올해는 한살림재단과 함께 ‘2018 생명·협동연구 지원 공모사업’을 실시하였고 귀농귀촌, 과학윤리, 대안경제, 역사 등 다양한 범주에서 아래 주제의 연구가 선정되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연구주제	연구자
라운드업 제초제 소송의 내부문건 연구를 통해 본 몬산토의 전략과 과학논쟁	박진영
제주 지역 생명농업 원로 생산자들의 초창기 활동 기록과 정리	이선자 외
한국 협동조합운동과 지연사회와의 관계 - 이상촌 운동의 시도와 경험을 바탕으로	신효진 외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서울 지역의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윤호창 외
지자체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모델 연구 - 순창지원센터의 경험을 중심으로	전국귀농운동본부 농정책연구소

각각의 내용은 보고서 및 소책자 등의 형태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또한 2009년부터 진행되어온 연구지원공모사업의 내용은 연구소 홈페이지 또는 한살림자료공간 archive.hansalim.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모심과살림연구소 02-6931-3608, mosim@hansalim.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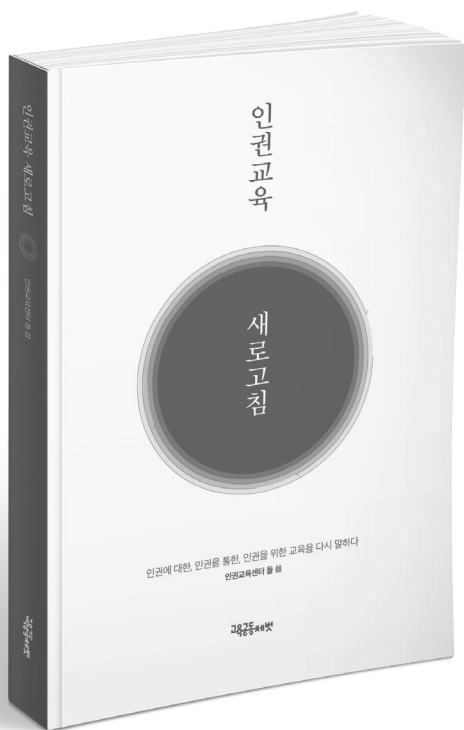


인권을 교육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인권에 대한, 인권을 통한, 인권을 위한 교육’을 다시 말한다.

인권교육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탄탄한 내공을 쌓아 온 '인권교육센터 들'의 활동가들이
인권교육가들이 갖고 있는 여러 고민과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간다.

그러면서 인권의 개념과 가치를 깊고 넓게 되새김질 해 보고,
기법이 아닌 철학으로서의 인권교육 방법론이란 무엇인지, 인권교육은 어디를 지향하며
인권교육가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이야기한다. 이 책은 인권과 인권교육을
공부하고 실천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교과서이면서, 인권교육의 초심을 찾고
한 발 더 깊숙이 인권교육의 길로 들어서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이다.



인권교육 새로고침
인권교육센터 들 씀
18,000원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길 30 2층 | 전화 02-332-0712, 070-8250-0712 | 전송 0505-115-0712

교육공동체벗